

제 31 과

세월이 참 빠르군요!

1. 가는 세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여러 가지 말로 비유한다.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다.”, “시간은 흐르는 물과 같다.”, “세월이 쏜살같이 간다.” 등이 그 예이다. 할 일이 많아서 시간이 모자라는 사람은 시간이 마치 날개라도 달고 훨훨 날아가는 것처럼 느낄 것이고, 사랑과 행복에 젖어 있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가지 말고 영원히 멈춰 주기를 원할 것이다. 그런가 하면 무언가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은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랄 것이다.

누구나 사춘기에는 시간이 좀 빨리 지나서 어른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한번쯤은 한다. 그러다가 스무 살이 지나 정말 어른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 버리는 것을 느끼게 된다. 처음에는 일 주일이 그 다음에는 한 달이, 그리고는 일 년이, 나중에는 십 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다고들 한다. 시간이란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변덕스러운 것일까? 아니면 시간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변덕스러운 것일까? 지금 내 시간은 어떻게 가고 있나?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2. 계절

철 수 : 동복 입기엔 아직 좀 이르지 않아요?

숙 희 :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으스스한걸요.

철 수 : 며칠 전만 해도 땀을 뻘뻘 흘렸는데...

숙 희 : 그래요, 전 남보다 유난히 더위와 추위를 타나 봐요.

철 수 : 벌써 추석도 지났으니 슬슬 겨울 준비 할 때도 되었지요.

숙 희 : 그럼요, 낮의 길이가 얼마나 짧아졌다고요.

철 수 : 개나리, 진달래가 활짝 피었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세월이 참 빠르지요?

숙 희 : 춘하추동이 너무 분명해서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3. 기다림

숙 희 : 지금 몇 시나 되었지요?

철 수 : 방금 물어 보시고 또 물어 보세요? 겨우 십 분 지났어요.

숙 희 :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마음이 초조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철 수 :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면 시간이 더 안 가는 법입니다. 틀림없이 기쁜 소식이 올 거예요.

숙 희 : 기다린다는 게 이렇게 힘든 줄 정말 몰랐어요.

철 수 : 그럴수록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고 책이라도 읽어 보세요. 그러면 시간이 빨리 갈 테니...

숙 희 : 책이 다 뭐예요. 앉아 있을 수도 없는데요. 일각이 여삼추라고, 전 한 시간이 십 년 같아요.

4. 길에서

이 선생 : 김 선생, 저기 저 청년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김 선생 : 글썄... 낮이 익은 것도 같은데...

이 선생 : 모르시겠어요? 김 박사님 댁 막내 아들이잖아요.

김 선생 : 그 막내가 저렇게 어른이 되었던 말이에요?

이 선생 : 처음엔 저도 못 알아 보았어요. 인사를 하면서 자기 소개를 하니까 알았지요.

김 선생 : 몰라보게 컸군요. 그러고 보니 아버지 젊었을 때 모습 그대로예요.

이 선생 : 가네 안 가네 해도, 아이들 크는 걸 보면 세월이 빠르다는 걸 실감하게 돼요.

김 선생 : 좋은 집안에서 자라서 그런지 아주 의젓해 보이네요.

5. 사무실에서

철 수 : 뭘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좀 쉬어 가면서 하시지요.

숙 희 : 쉬어 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좋겠어요. 이것 좀 보세요.

철 수 :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군요.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요, 뭐.

숙 희 : 그렇게 여유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건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까지 끝내야 하는 일이에요.

철 수 : 그렇다고 점심까지 굶어 가면서 할 수는 없지 않아요?

숙 희 :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되었어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까?

철 수 : 자, 어서 일어나요.

숙 희 : 먼저 다녀 오세요. 전 하던 일 마저 하고 나중에 가겠어요.

어휘와 문법

1. 가는 세월

1. **비유하다** : 이해하기 쉽도록 그것과 비슷한 성질, 모양 등을 가진 다른 것으로 표현한다.

비유해서 말하면, 비유법.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개미에 비유한다.

2. **눈 깜짝할 사이에** : '눈을 한 번 감았다 뜰 정도의 짧은 시간에' 라는 말로 아주 짧은 시간에 변화가 생길 때 사용한다.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다. 눈 깜짝할 사이이다.

조금 전까지 있던 지갑이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졌다.

3. **달다** : 물건을 어떤 자리에 붙여서 떨어지지 않게 하다.

매달았다. 달려 있다.

아버지께서는 떨어진 단추를 손수 달고 계셨다.

4. **훨훨** : 날개를 크게 펴고 천천히 시원스럽게 날아가는 모양, 또는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모양.

밀린 일을 끝내고 나니 훨훨 날 것 같은 기분이다.

5. **행복에 젖다** : 물에 젖는 것처럼 행복한 감정에 깊이 빠져 있어서 불행을 생각할 수 없다.

행복에 젖어 있다. 슬픔에 젖은 눈.

온 세상 사람들이 늘 행복에 젖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6. **-는가 하면** _____ : 동사에 붙어서 쓰이며, 선행문의 내용에 후행문의 사실을 덧붙여서 말하거나, 혹은 선행문과 후행문의 내용이 상대적일 때 쓴다.

예 :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줍는 사람도 있다.

오늘은 비가 오는가 하면 해가 나기도 한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착하게 살아 가는 사람도 있다.

그는 자기 자랑을 하는가 하면 자기의 무능력을 탓하기도 해요.

그 사람은 능력이 있는가 하면 대인관계도 원만해서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7. **초조하다** : 급하거나 시간이 없어서 걱정하면서 기다리는 마음을 나타낸다.
마음이 초조하다. 초조하게 기다린다.

수술실 밖에는 결과를 기다리며 초조하게 왔다 갔다 하는 가족들이 있었다.

8. **-는다고들 하다** : 인용문 ‘-는다고’에 복수 접미사 ‘-들’이 붙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나타낸다.

예 : 이번 대학교 입학시험은 매우 쉬웠다고들 해요.

자녀에게 조기 외국어 교육을 시키는 부모가 늘어난다고들 하던데요.

맛벌이 부부들은 대체로 가사일을 분담한다고들 해요.

방학을 이용해 외국으로 배낭여행을 떠나는 대학생들이 늘어난다고들 한다.

연휴를 맞아 야외로 떠난다고들 야단인데 우리도 어디로 좀 가요.

9. **변덕스럽다** : 사람의 성격이나 날씨 등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잘 변하는 성질을 가지다.

변덕스러운 사람. 변덕이 심하다.

요즘은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늘 우산을 준비하고 다닌다.

2. 계열

1. **-기엔** _____ : 동작동사와 결합하여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라는 뜻으로 쓴다.
후행문에서는 대개 상태동사가 온다.

예 : 혼자 살기엔 집이 너무 크군요.

집을 모두 다 다시 수리하기엔 돈이 좀 많이 들겠어요.

날씨가 좋아서 등산하기엔 안성맞춤이군!

신랑감으로 결정하기엔 키가 좀 작은 것 같아.

'버리자니 아깝고 남 주기엔 더 아깝다' 는 말이 있어요.

2. **으스스하다** : 춥거나 무서워서 몸이 떨린다.

으스스한 기분. 몸이 으스스 떨린다.

어두운 골목길을 혼자 걸을 때는 온 몸이 으스스해진다.

3. **-만 해도** _____ : 명사에 붙어서 '다른 여러 경우는 생각하지 않고 단지 이 경우만을 예를 들어 말해도' 의 뜻으로 쓰인다. 일부 조사와 어울려서 '-까지만 해도, -(으)로만 해도, -에서만 해도' 등으로도 쓸 수 있다.

예 : 10년 전만 해도 서울이 이렇게까지 복잡하지 않았어요.

작년 이맘 때만 해도 날씬했었는데...

집안일만 해도 하루 종일 걸려요.

결혼 전만 해도 성격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이번 비로 남부지방에서만 해도 피해가 수억에 달했다.

차가 밀리니까 길에서 보내는 시간만 해도 상당해.

4. **땀땀** : 땀을 많이 흘리는 모양.

땀을 땀땀 흘린다.

이삿짐을 옮기느라고 땀을 땀땀 흘렸다.

5. **추위를 타다** : 추위를 쉽게 많이 느끼다.

추위를 타는 사람. 더위를 탄다. 부끄럼을 탄다.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추위를 탄다고 한다.

6. **슬슬** :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움직이는 모양
슬슬 출발하자. 슬슬 시작할 때.

이제 슬슬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7. **피었던 때가 엇그제 같다** : 꽃이 피었던 때가 어제나 그제의 일처럼 가깝게 느껴지다. 세월이 아주 빨리 지나간 것을 말한다.
엇그제 같은 일. 엇그제처럼 느껴진다.

개나리, 진달래가 피었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낙엽이 지고 있구나.

3. 기다림

1. **겨우** : 생각보다 아주 적을 때 쓰는 부사. 힘들게 가까스로.
겨우 300원 밖에 없다. 겨우 졸업했다.

아침 운동을 하겠다고 결심했지만 겨우 3일 밖에 실천하지 못했다.

2. **견디다** : 아픔, 어려움, 슬픔, 괴로움 등을 잘 참다.
견딜 수가 없다. 견디기가 어렵다.

젊었을 때의 고생을 참고 견딘 것이 지금 큰 도움이 되고 있다.

3. **안절부절** : 불안하고 초조해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모양.
안절부절 못한다.

시험 날짜가 다가오니 학생들이 모두 안절부절 못하면서 불안해 한다.

4. **-는 법이다** : 동사에 붙어서 자연스러운 법칙이나 당연히 그러하거나 또는 그렇게 해야 함을 나타낼 때 쓴다.

예 : 약속은 꼭 지켜야 하는 법이다.

자기가 맡은 일은 책임을 져야 하는 법이란다.

은혜를 입으면 꼭 갚아야 하는 법이지.

급히 서두르면 실수하기 쉬운 법이야.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법입니다.

5. **느긋하다** : 여유가 있어서 서두르지 않고 마음이 편하다.

느긋하게 행동한다. 느긋이 기다려라.

이미 일어난 일이니 느긋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는 일 밖에 남지 않았다.

6. **책이 다 뭐예요** : 책은 생각할 수도 없다는 뜻으로서 강한 부정을 나타낸다.

시간이나 돈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 일을 할 수 없을 때 쓴다.

선물이 다 뭐예요. 축하 인사도 못 들었어요.

택시가 다 뭐야. 버스 탈 돈도 없어.

7. **일각이 여삼추** : 일각은 15분이고 삼추는 세 번의 가을 즉 3년을 말한다. 이

표현은 15분이 3년과 같다는 말로 아주 짧은 시간도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아주 길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보통 무엇을 초조하게 기다릴 때 많이 쓴다.

일각이 여삼추다. 일각이 여삼추로 느껴진다.

초조하게 기다리는 심정은 일각이 여삼추 같았다.

4. 길에서

1. **낮이 익다** : ‘낮’은 얼굴을 가리키며, 여러 번 보아서 눈에 익숙하다는 뜻.

낮익은 얼굴. 낮이 설다.

어디서 보았는지 생각이 나지는 않았지만 무척 낮익은 얼굴이었다.

2. **-는단 말이에요?** : ‘-는다는 말이에요?’의 준말로써 화자가 기대하지 않았거나

믿을 수 없는 사실, 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반문할 때 쓰는 말이다.

예 : 그 때 갓난아기가 이렇게 컸단 말이에요?

이렇게 맛있는 것을 내가 만들었던 말이야?

아직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단 말입니까?

그 사람이 키가 크단 말이에요?

이 문법이 뭐가 어렵단 말이니?

3. 못 알아 보다 : 너무 변했거나 잘 보지 못해서 보고도 모른다.

알아 본다. 못 알아 듣는다.

10년만에 만난 동창의 모습은 너무 많이 변해서 금방 못 알아 볼 정도였다.

4. 몰라보게 컸다 : 쉽게 알아보지 못할 만큼 아이가 많이 자랐다.

몰라본다. 몰라보게 발전했다.

이름을 듣지 않고는 알 수 없을 만큼 몰라보게 컸구나.

5. -고 보니 _____ : 선행문에서 어떤 행위를 끝내고, 후행문에서는 그 후에 발견하거나 확인한 사실을 나타낼 때 쓴다.

예 : 듣고 보니 네 말이 맞는 것 같구나.

그 사람을 만나고 보니 듣던 것과는 달리 정말 좋은 사람이더군.

내가 자식을 낳고 보니 부모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

말을 하고 보니 그 사람한테는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것 저것 사고 보니 너무 낭비를 한 것 같아요.

6. -네 -네 해도 _____ : 선행문에는 비슷하거나 상대적인 여러 가지 상황과 의견들을 나열해 보인다. 후행문에는, 선행문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화자의 생각은 그 이전에 이미 인정했던 것과 같음을 나타내는 말이 나온다.

예 : 교통이 복잡하네 사람이 많네 해도 서울은 역시 살기 편한 곳이에요.

좁네 뾰네 해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역시 자기 형제 밖에 없어요.

이웃 간에 인정이 있네 없네 해도 우리 주위에는 따뜻한 이웃이 더 많아요.

돈이 많이 드네 귀찮네 해도 연휴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요.

잘 사네 못 사네 해도 먹고 살기에는 문제가 없어요.

7. 실감하다 : 보고 들어서 직접 느낀다.

실감이 난다. 실감있게 이야기한다.

몸이 아파 자리에 누워 있는 동안 건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8. 의젓하다 : 말과 행동이 어른스럽고 점잖다.

의젓한 태도. 의젓하게 행동한다.

영수는 중학생이 되자 아주 의젓해졌어요.

5. 사무실에서

1. -어 가다/오다 : 동작동사에 붙어서 그 행위가 지속됨을 나타내는 보조동사이다. 행위가 화자의 목표 기준점과 가까워질 때는 '-어 오다'를 쓰고, 멀어질 때는 '-어 가다'를 쓴다.

예 : 이제야 온돌방이 따뜻해져 오는군요.

5시밖에 안 됐는데 벌써 날이 밝아 오는군요.

지금까지 살아 오면서 남에게 폐를 끼친 적은 한번도 없어요.

취미생활도 해 가면서 살아가 살맛이 나죠.

일의 진행을 봐 가면서 다음 계획을 세웁시다.

2. 산더미처럼 쌓이다 : 더미는 많은 물건이 한 데 모여 있는 덩어리인데 이 말은 일이나 물건이 많이 있는 것을 산에 비유한 표현이다.

산더미처럼 쌓인 일. 책이 산더미 같다. 쓰레기더미.

책상 위에는 오늘 처리해야 할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3. 무슨 일이 있어도 : 꼭. 반드시. 무슨 일이 생겨도.

이번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

4. **-는다고** ____ : 인용어 '-는다고 하다'에 '-어서'가 붙은 '-는다고 해서'의 준말이다. 선행문에서는 어떠한 상황을 인용하거나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후행문에서는 앞 내용을 이유로 해서 생기는 결과를 나타낼 때 쓴다.

예 : 비싸다고 다 좋은 물건일까요?

학교에서 우등생이라고 사회에서도 반드시 우등생은 아니죠.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다고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음 주에 미국에 돌아간다고 인사차 들렀어요.

가정이나 직장에서 여자라고 차별 대우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해요.

5. **오늘따라** : 다른 날과 다르게. 오늘만은 특별히.
그날따라.

일찍 퇴근하려고 했는데 오늘따라 찾아 오는 손님이 많군요.

6. **마저** : 남기지 않고 끝까지.
마저 한다. 마저 다 먹어라.

난 필요 없으니 이것도 마저 가져 가세요.

가 : 외국사람들은 한국어 발음이 어렵다고 해요.

나 :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문법이 어렵다고 해요.

가 : 요즘은 남편들이 집안일을 많이 도와 줘요.

나 : 그런가 하면 집에 돌아오면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가 : 아들이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가 많아요.

나 : 그런가 하면 딸이 모시는 경우도 많아요.

가 : 학생들은 한 학기에 한 번쯤 오락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대요.

나 : 그런가 하면 오락시간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어요.

3. -었으면 하는 생각을 한 번쯤 하다.

(보기) 가 : 저는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 : 누구나 사춘기에는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요.

가 :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나 : 누구나 학생 때는 시험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요.

가 : 쉬는 날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나 : 누구나 일에 지쳤을 때는 쉬는 날이 많았으면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요.

가 : 세계 일주를 했으면 좋겠어요.

나 :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서 세계 일주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요.

가 : 돈을 많이 가지고 싶어요.

나 : 누구나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돈을 많이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요.

가 : 영어를 잘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 : 누구나 한 가지 외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요.

가 : 외국사람들은 한국어 발음이 어렵다고 해요.

나 :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문법이 어렵다고 해요.

가 : 요즘은 남편들이 집안일을 많이 도와 줘요.

나 : 그런가 하면 집에 돌아오면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가 : 아들이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가 많아요.

나 : 그런가 하면 딸이 모시는 경우도 많아요.

가 : 학생들은 한 학기에 한 번쯤 오락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대요.

나 : 그런가 하면 오락시간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어요.

3. -었으면 하는 생각을 한 번쯤 하다.

(보기) 가 : 저는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 : 누구나 사춘기에는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요.

가 :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나 : 누구나 학생 때는 시험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요.

가 : 쉬는 날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나 : 누구나 일에 지쳤을 때는 쉬는 날이 많았으면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요.

가 : 세계 일주를 했으면 좋겠어요.

나 :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서 세계 일주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요.

가 : 돈을 많이 가지고 싶어요.

나 : 누구나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돈을 많이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요.

가 : 영어를 잘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 : 누구나 한 가지 외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요.

4. -는다고들 하다.

(보기) 가 : 외국어는 처음 배울 때가 제일 힘들 거예요.

나 : 학생들은 진급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들 해요.

가 : 신혼여행지로 어디가 좋을까요?

나 : 국내에서는 제주도가 좋다고들 해요.

가 : 외국인들은 한국 음식 중에 뭐가 맛있다고 해요?

나 : 맵지 않아서 그런지 불고기가 제일 맛있다고들 해요.

가 : 왜 그 자동차를 많이 산대요?

나 : 모양이 멋있고 경제적이어서 산다고들 해요.

가 : 여자들이 생일 선물로 뭘 받고 싶어해요?

나 : 주는 사람의 마음이 담긴 꽃을 받고 싶다고들 해요.

가 : 요즘 젊은이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나 : 신문에 실린 설문조사에서는 정치 문제에 많은 관심이 있다고들 응답했어요.

5. -란 그렇게 -는 것일까(요)?

(보기) 가 : 성우 씨는 돈을 벌기 위해 안 해 본 일이 없대요.

나 : 돈이란 그렇게 인생에서 중요한 것일까?

가 : 민영 씨는 애인과 헤어진 후 무척 우울해 보여요.

나 : 이별이란 그렇게 마음 아픈 것일까?

가 : 건강하시던 최 선생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나 : 인생이란 그렇게 허무한 것일까?

가 : 임 과장님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서울로 직장을 옮기셨어요.

나 : 자식이란 그렇게 소중한 것일까?

가 : 옆집 할머니는 며느리와 자주 다투시더군요.

나 : 고부관계란 그렇게 갈등이 심한 것일까?

가 : 자식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어머니에 대한 기사를 봤어요.

나 : 모성에란 그렇게 강한 것일까?

2. 계절

1. -기엔 -지 않아요?

(보기) 가 : 내일은 반팔 옷을 입을까 해요.

나 : 4월인데 반팔 옷을 입기엔 좀 이르지 않아요?

가 : 그 사람이 한국말을 가르친대요.

나 : 한국말을 가르치기엔 실력이 좀 모자라지 않아요?

가 : 이 정도면 세 사람이 먹겠지요?

나 : 세 사람이 먹기엔 좀 부족하지 않아요?

가 : 이 소설책을 4급 학생들이 읽을 수 있겠지요?

나 : 4급 학생들이 읽기엔 좀 어렵지 않아요?

가 : 그 일은 제가 혼자 하겠어요.

나 : 혼자 하기엔 좀 힘들지 않아요?

가 : 농담이니까 마음에 두지 마세요.

나 : 농담이라고 하기엔 좀 지나치지 않아요?

2. -만 해도 _____ .

(보기) 가 : 영수가 벌써 중학생이 되었어요.

나 : 그래요? 몇 년 전만 해도 아기 같았는데 벌써 중학생이 되었군요.

가 : 스미스 씨는 한국말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나 : 그래요? 1년 전만 해도 '가, 나, 다, 라'도 몰랐어요.

가 : 이곳은 날마다 길이 막혀요.

나 : 얼마 전만 해도 괜찮았는데 도로 공사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가 : 김 선생님 어디 가셨어요?

나 : 조금 전만 해도 교실에 계셨는데 지금은 모르겠는데요.

가 : 요즘 할아버지 건강이 어떠세요?

나 : 작년만 해도 건강하셨는데 요즘은 약해지셨어요.

가 : 동네가 너무 변해서 집을 못 찾을 뻔했어요.

나 : 이 곳에 이사올 때만 해도 건물이 몇 채 없었는데 이젠 변화가 됐어요.

3. -었으니 _____.

(보기) 가 : 배가 고프군요.

나 : 1시가 넘었으니 배가 고폴 거예요.

가 : 피곤해요.

나 : 오랜 시간 일했으니 피곤하겠죠.

가 : 시험 점수가 엉망이에요.

나 : 놀기만 했으니 엉망이겠죠.

가 : 그 일이 잘 될까요?

나 : 최선을 다 했으니 잘 될 거예요.

가 : 우리 애가 괜찮을까요?

나 : 약을 먹었으니 곧 나을 거예요.

가 : 왜 안 오지요?

나 : 시간이 되었으니 곧 오겠지요.

4. -었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_____.

(보기) 가 : 한국에 오신 지 오래 되셨지요?

나 : 1급에서 공부했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4급이에요.

가 : 영미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낸대요?

나 : 결혼한다고 우리집에 인사 왔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애가 돌이래요.

가 : 벌써 졸업반이시군요.

나 : 대학에 입학해서 기뻐했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취직 걱정을 하고 있어요.

가 : 정년퇴직이 2년쯤 남았지요?

나 : 입사시험을 치렀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정년퇴직이 얼마 안 남았군요.

가 : 크리스마스 때 좋은 계획이 있으세요?

나 : 세뱃돈을 받았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크리스마스가 되었군요.

가 : 이젠 운전을 아주 잘 하시는데요.

나 : 처음 도로에 나가서 당황했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지금은 고속도로에서도 잘 달릴 수 있어요.

3. 기다림

1. -면 -는 법이다.

(보기) 가 : 어제 일을 빨리 끝내려다가 실수를 했어요.

나 : 서두르면 실수하는 법이에요.

가 : 요즘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요.

나 : 일을 너무 많이 하면 스트레스가 쌓이는 법이지요.

가 : 그 사건의 범인이 잡혔대요.

나 :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입니다.

가 : 비빔밥을 좋아했는데 요즘은 먹고 싶지 않아요.

나 : 맛있는 음식도 자주 먹으면 싫증나는 법입니다.

가 : 가야금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정말 어려워요.

나 : 뭐든지 처음 배우면 어려운 법이에요.

가 : 그 집 아이들은 부모님을 닮아서 아주 성실하더군요.

나 :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은 법입니다.

2. -는 줄 정말 몰랐다.

(보기) 가 : 비자 기간 연장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죠?

나 : 그 일이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줄 정말 몰랐어요.

가 : 이사하느라고 고생하셨죠?

나 : 이사하기가 그렇게 힘든 줄 정말 몰랐어요.

가 : 영수는 학비가 없어서 휴학했대요.

나 : 생활 형편이 그렇게 나쁜 줄 정말 몰랐어요.

가 : 저분이 김철수 씨 여동생이래요.

나 : 김철수 씨 여동생이 저렇게 미인인 줄 정말 몰랐어요.

가 : 김미선 씨는 한번도 결석한 적이 없어요.

나 : 김미선 씨가 그렇게 성실한 줄 정말 몰랐어요.

가 : 이 등반이 의자 꽤 비싸지요?

나 : 등반이 의자가 그렇게 비싼 줄 정말 몰랐어요.

3. 그럴수록 _____.

(보기) 가 : 일이 힘들니까 괜히 짜증만 나요.

나 : 그럴수록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죠.

가 : 장학금을 받았으니 이제 좀 놀아야겠어요.

나 : 그럴수록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해요.

가 : 오늘은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늦게 들어가도 돼요.

나 : 그럴수록 일찍 들어가야죠.

가 : 이제 운전이 자신이 있어요.

나 : 그럴수록 조심해서 운전하세요.

가 : 일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나 : 그럴수록 마음을 단단히 먹고 열심히 해야죠.

가 : 사고가 나서 정신이 없었어요.

나 : 그럴수록 침착해야죠.

4. -가 다 뭐예요. -는데요.

(보기) 가 : 저축을 많이 하셨지요?

나 : 저축이 다 뭐예요. 하루하루 생활하기도 어려운데요.

가 : 이번 학기에 장학금을 받으셨어요?

나 : 장학금이 다 뭐예요. 겨우 진급했는데요.

가 : 두 사람이 화해했대요?

나 : 화해가 다 뭐예요. 서로 아는 척도 안 하는데요.

가 : 생일 선물을 많이 받으셨어요?

나 : 선물이 다 뭐예요. 축하 전화 한 통 못 받았는데요.

가 : 불고기 만들 줄 아세요?

나 : 불고기가 다 뭐예요. 라면도 못 끓이는데요.

가 : 배운 단어를 다 외우셨어요?

나 : 외우는 게 다 뭐예요. 뜻을 이해하기도 힘든데요.

4. 길에서

1. -는단 말이에요?

(보기) 가 : 그 학생이 모두 100점을 받았어요.

나 : 그 학생이 그렇게 공부를 잘 한단 말이에요?

가 : 우리집은 매일 가족 회의를 해요.

나 : 가족 회의를 그렇게 매일 한단 말이에요?

가 : 기름값이 30%나 올랐어요.

나 : 그렇게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가 : 그분 월급은 제 월급의 두 배쯤 돼요.

나 : 그분이 월급을 그렇게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가 : 일이 많아서 9시 전에는 퇴근할 수 없어요.

나 : 일이 그렇게 많단 말이에요?

가 : 영국이가 이번엔 개근상을 받았대요.

나 : 게으름뱅이 영국이가 정말 개근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2. 그리고 보니 _____ .

(보기) 가 : 어제 대청소를 했어요.

나 : 그리고 보니 집안이 깨끗하군요.

가 : 김 선생님 아드님이에요.

나 : 그리고 보니 아버지와 꼭 닮았군요.

가 : 어제 미장원에 갔다 왔어요.

나 : 그리고 보니 머리 모양이 바뀌었군요.

가 : 스미스 씨도 우리와 동창이에요.

나 : 그리고 보니 많이 본 것 같군요.

가 : 오늘이 연대 졸업식이에요.

나 : 그리고 보니 꽃다발을 든 사람들이 많군요.

가 : 지난 주에 학기말 시험이 끝났어요.

나 : 그리고 보니 도서관에 빈 자리가 많군요.

3. -네 -네 해도 _____ .

(보기) 가 : 한국 날씨가 어때요?

나 : 덥네 춥네 해도 사계절이 있어서 참 좋아요.

가 : 학생들 평균 시험 점수가 어때요?

나 : 시험이 쉽네 어렵네 해도 평균은 지난 번보다 높아요.

가 : 식비가 얼마나 들어요?

나 : 먹네 안 먹네 해도 한 달에 20만원은 들어요.

가 : 이 식당은 손님이 많군요.

나 : 음식 값이 비싸네 불친절하네 해도 항상 손님이 많아요.

가 : 수학 여행지로 어디가 좋아요?

나 : 비용이 많이 드네 복잡하네 해도 경주가 볼 것이 많지요.

가 : 숙제하기가 정말 귀찮아요.

나 : 귀찮네 힘이 드네 해도 숙제가 공부에 도움이 많이 돼요.

4. -어서 그런지 _____ .

(보기) 가 : 김영수 씨의 연설이 어땠어요?

나 : 긴장해서 그런지 말을 더듬더군요.

가 : 좀 더 드세요.

나 : 아까 많이 먹어서 그런지 더 못 먹겠어요.

가 : 다나카 씨는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것 같아요.

나 : 성격이 까다로워서 그런지 친구가 별로 없어요.

가 : 이번 여행은 시골로 다녀 오셨다면서요?

나 : 시골이어서 그런지 공기도 맑고 인심도 좋더군요.

가 : 현준이는 어른스러워 보여요.

나 : 장남이어서 그런지 나이에 비해서 의젓해요.

가 :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나 : 공휴일이라서 그런지 거리가 한산해서 차가 안 밀리더군요.

5. 사무실에서

1. -어 가면서 _____ .

(보기) 가 :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나 : 사전을 찾아 가면서 공부해요.

가 : 이렇게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 서로 도와 가면서 살아야죠.

가 : 소금을 더 넣어야겠어요.

나 : 맛을 봐 가면서 넣으세요.

가 : 다 외우지 못했어요.

나 : 그럼 써 온 것을 봐 가면서 얘기하세요.

가 : 한국 풍습에 익숙하지 않아서 당황할 때가 많아요.

나 : 살아 가면서 배워야죠.

가 :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 :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 가면서 해 봅시다.

2. -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야 해요.

(보기) 가 : 급한 일이 생겨서 약속을 미룰까 해요.

나 : 이번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해요.

가 : 스티브 씨가 교통신호를 무시해서 사고를 당했대요.

나 : 교통규칙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해요.

가 : 어제가 결혼기념일이었는데 깜빡 잊어 버려서 집사람이 화가 났어요.

나 : 결혼기념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기억해야 해요.

가 : 세금을 안 내서 연체료가 나왔어요.

나 : 세금은 무슨 일이 있어도 기일 내에 내야 해요.

가 : 추석과 설날 전에는 차표를 예매하려는 사람들로 붐벼요.

나 :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명절 때는 고향에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 : 무슨 논문인데 그렇게 서두르세요?

나 : 졸업하려면 이 논문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달 말까지 완성해야 해요.

3. 그렇다고 -(으)ㄹ 수는 없잖아요.

(보기) 가 : 바쁘니까 빨리 갑시다.

나 : 그렇다고 교통신호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가 : 요리하기가 정말 싫어요.

나 : 그렇다고 늘 외식을 할 수는 없잖아요.

가 : 한 시간이나 기다렸으니 그냥 갑시다.

나 : 그렇다고 안 만나고 갈 수는 없잖아요.

가 : 시간 없는데 아무 거나 입고 가요.

나 : 그렇다고 사무실에 반바지를 입고 갈 수는 없잖아요.

가 : 자동차가 필요하시면 하나 사셔야죠.

나 : 그렇다고 돈을 써서 살 수는 없잖아요.

가 : 영수 써하고는 별로 친한 사이도 아닌데 결혼식에 꼭 가야 돼요?

나 : 그렇다고 한 직장에 다니면서 모르는 척 할 수는 없잖아요.

4. 오늘따라 왜 이렇게 -(으)ㄹ 까(요)?

(보기) 가 : 벌써 30분이나 기다렸는데 버스가 안 오는군요.

나 : 오늘따라 왜 이렇게 버스가 안 올까?

가 : 왜 얼굴을 찡그리고 계세요?

나 : 오늘따라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플까?

가 : 전화 받으세요.

나 : 오늘따라 왜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올까?

가 : 김 선생님 계세요?

나 : 김 선생님은 결근하셨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찾는 사람이 많을까?

가 : 아까부터 창밖을 내다보고 계신데 왜 그래요?

나 : 야외 수업이 있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비가 올까?

가 : 이 서류를 내일까지 끝내라는데요.

나 : 빨리 가야 하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일이 많을까?

5. -던 _____ 마저 _____ .

(보기) 가 : 밥 먹고 합시다.

나 : 하던 얘기 마저 하고 식사합시다.

가 : 빨리 오세요.

나 : 하던 일 마저 하고 갈게요.

가 : 술을 더 시킬까요?

나 : 마시던 술 마저 마시고 시킵시다.

가 : 그만 일어날까요?

나 : 먹던 거 마저 먹고 일어섭시다.

가 : 이 공책 예쁜데 한 권 사세요.

나 : 쓰던 공책 마저 쓰고 사겠어요.

가 : 이 책이 재미있는데 빌려 드릴까요?

나 : 읽던 책 마저 읽고 빌리겠어요.

문화 해설

한국인의 기다림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농사를 지으며 살아 왔다. 그런데 농사는 인간을 기다림에 익숙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농사를 지으려면 거의 모든 조건을 자연에 의지해야 하고, 자연은 인간을 오랜 시간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른 봄에 뿌린 씨앗도 가을이 되어서야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봄부터 가을까지 참으면서 꾸준히 일을 해야 한다. 가을이 되기 전에 열매를 보기 위해 급히 서두른다 해도 자연은 사람에게 ‘열매 맺을 시간’을 기다리게 한다.

우리 나라 사람은 주로 밥을 먹고 산다. 그런데 이 밥을 지을 때 보면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알 수 있다. 예전에 불 위에 솥을 걸고 밥을 할 때, 밥이 다 끓었어도 밥을 바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불에서 내려 놓고 어느 정도 기다려야 한다. 뜸을 들이는 시간이 필요하다. ‘뜸을 들인다’는 것은 쓸 데 없는 시간 낭비 같지만 사실은 가장 필요한 시간이고 우리의 지혜를 보여주는 시간이다.

우리 나라 사람은 기다림에 익숙하다. 기다림은 오랜 세월을 살아 오면서 저절로 얻은 미덕(美德)이다. 요즘처럼 모든 일을 빨리빨리 처리하려고 하고 결과를 조급히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더욱 필요한 것이라 하겠다.

이야기해 봅시다.

세월이 참 빠르군요!

보통 시간은 정확하게 나뉘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 우리가 느끼는 시간은 매우 다릅니다.

다음의 경우 시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생각해 봅시다.

1. 시골에 살며 농사짓는 농부의 하루와 대도시의 큰 회사에서 일하는 회사원의 하루를 비교해 봅시다.
2. 달력을 보며 명절을 손꼽아 기다리는 어린 아이와 명절이나 생일을 깜빡 잊어 버려 달력에 표시해 놓아야 하는 어른을 생각해 봅시다.
3. 마음대로 시간을 옮기거나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령 타임머신을 타고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제 32 과

이것 참 큰일났네!

1. 계획된 생활의 기쁨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추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누구든지 자기가 세운 계획대로 살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루나 한 달, 또는 일 년이나 일상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살 수 있다면 이 세상에는 아무 어려움도 슬픔도 없을 것이다. 누구든지 좋은 계획을 세우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만일 생활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살면 우리 생활이 얼마나 무질서해질까? 무계획에서 오는 무질서는 나에게만이 아니라 이웃과 사회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비록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간다 해도 우리는 계속 계획을 세우며 살아야 한다.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생활이란 희망이 있는 생활이기 때문이다.

가끔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계획을 바꾸게 하는 때도 있다. 그러나 그 모두가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만은 아니다. 큰 행운이 찾아와 우리를 놀라게 하기도 하고 들뜨게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뜻밖의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이것 참 큰일났네!”라고 하면서 조심스럽게 해결해 나갈 지혜를 찾는다.

2. 물이 안 나와요.

새 댁 : 수도가 고장이 났는지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와요.

옆집 아주머니 : 그런게 아니라, 오늘 이 근처에서 수도 공사를 해서
그래요.

새 댁 : 그래요? 큰일났네, 당장 먹을 물도 없는데...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옆집 아주머니 : 저도 라디오를 듣고 알았어요. 오후 늦게는 나온다니
까 우선 우리가 받아 놓은 물을 쓰세요.

새 댁 : 전 그런 줄도 모르고 괜히 걱정을 했군요. 미안해서
어떻게 하지요? 그럼 조금만 쓸게요.

옆집 아주머니 : 괜찮아요. 물이 넉넉하니까 쓸 만큼 쓰세요. 바쁘게
지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지요.

3. 차가 밀렸어요.

회사원 1 : 여긴 차들이 잘 빠지는 곳인데, 웬 차들이 이렇게 많이
밀렸지요?

회사원 2 : 이맘때가 되면 학교 근처에는 으레 교통이 막혀요.

회사원 1 : 아! 오늘 졸업식이 있어서 그렇군요. 그런 줄도 모르고 이
리로 나왔으니, 이것 참 큰일났네!

회사원 2 : 그래서 요즘은 지하철 타는 게 훨씬 빠르다고들 해요.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회사원 1 : 차들이 꿈쩍도 안 하는데, 언제 다 빠지지요? 정말 큰일이네요. 회사에서는 늦게 온다고 야단들일 텐데요.

회사원 2 : 어디 우리 뿐이겠어요? 오늘은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늦을 겁니다.

4. 승진

과 장 : 진심으로 승진을 축하합니다.

국 장 : 능력도 없고 경험도 부족한 사람이 큰 일을 맡아서 걱정입니다.

과 장 :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벌써부터 직원들의 기대가 크답니다.

국 장 : 그 말씀을 들으니 점점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과 장 : 조금 있으면 직원들이 모두 모일 텐데 인사도 받으실 겸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국 장 : 말재주도 없는데, 갑자기 말을 하라니 정말 큰일인데요.

과 장 : 이런 큰일이라면 얼마든지 있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5. 출국

손님 1 : 시간이 지났는데 왜 아직 출국을 안 시킬까요?

손님 2 : 안내방송을 들으니까 안개가 너무 짙어서 비행기가 착륙을 못하고 되돌아갔다는데요.

손 님 1 : 그래요? 그럼 오늘은 비행기가 못 뜰대요?

손 님 2 : 지금이라도 안개만 걷히면 문제 없겠지만, 날씨는 알 수가 있어야지요.

손 님 1 : 큰일났네. 오늘 비행기를 못 타면 곤란한데... 어제쯤 떠났더라면 좋았을걸.

손 님 2 : 방송에 의하면 앞으로 서너 시간 후엔 이착륙이 가능할 거래요.

손 님 1 :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어휘와 문법

1. 계획된 생활의 기쁨

1. 맞추다 : 서로 틀리지 않도록 맞게 하다.

옷을 맞추다. 답을 맞춰 본다.

제시간에 맞춰 오느라고 택시를 탔어요.

2. 이루다 : 목적, 계획, 뜻 등을 생각한 대로 되게 하다.

소원을 이루었다. 꿈이 이루어졌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다른 노력이 필요하다.

3. 비록 :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보통 좋지 않은 상황을 생각하고 쓴다.

비록 재주는 없지만 해 보겠습니다.

비록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다 해도 실망하지 마라.

4. 빗나가다 : 정해진 목표, 기대한 것, 옳다고 생각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오다.

예상이 빗나갔다. 빗나간 행동.

화살을 열 개 쏘았지만 하나가 빗나가서 금메달을 못 땀어요.

5. -는다 해도 ____ : '-는다고 해도'의 준말로서 선행문의 내용에 구애를 받지 않고 청자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후행문에 온다.

예 : 이번 주말에 비가 온다 해도 계획대로 여행을 떠납니다.

입학시험에 떨어진다고 해도 실망해서는 안 돼.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

다”고 말한 철학자가 있어요.

아무리 깨끗이 청소한다 해도 금방 더럽혀져요.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 대통령을 신임한다 해도 대통령은 항상 국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죠.

6. 들뜨다 : 좋은 일이나 기대 때문에 마음이 안정되지 않다.

마음이 들떴다. 들뜬 분위기.

여행갈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들떠서 일이 손에 안 잡혀요.

7. 조심스럽게 : 실수가 없도록 조심하면서.

조심스럽다. 조심스러운 태도.

잘못하면 그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할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8. 지혜 : 경험이 많거나 많이 배워서 옳게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슬기와 비슷한 말.

생활의 지혜. 지혜롭다. 지혜로운 사람.

나이가 들어 경험이 많아지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생기지요.

2. 물이 안 나와요.

1. 한 방울도 : ‘방울’은 물이 조금씩 뭉쳐져 있는 모습이다. 뒤에 부정형이 와서 물 또는 물 같은 것이 조금도 없다는 뜻이다.

물방울. 빗방울.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오는 나라에서 기름을 아껴야지요.

2. 그런 게 아니라 : 상대의 말이 맞지 않고 자신의 생각은 그와 다르다는 말을 할 때 쓰는 표현.

그게 아니라.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3. **당장** : 바로 그 때 그 자리에서 곧.
지금 당장.

그 사람은 지갑을 잃어 버려서 당장 집에 갈 차비도 없대요.

4. **-는다니까** ____ : ‘-는다고 하니까’의 준말로써, 그 인용한 사실로 인한 객관적 이유 때문에 생기는 결과를 후행문에 나타낸다.

예 : 오늘 오후에는 비가 온다니까 우산을 가지고 나가도록 하세요.

일자리를 찾는다니까 좋은 자리가 있는지 알아 봐 주세요.

교통방송에서 고속도로가 막힌다니까 국도로 자동차가 다 몰렸군요.

급하다니까 서둘러서 끝내세요.

정부에서 기부금 입학 제도를 검토한다니까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요.

5. **우선** : 다른 것보다 먼저.
우선권. 우선순위.

다른 일은 뒤로 미루고 우선 청소부터 합시다.

6. **받아 놓은 물** : ‘물을 받다’는 물이 나오지 않을 경우나 물이 필요한 경우를 생각해서 물을 준비해 둔다는 뜻이다.

약수를 받아 왔다. 목욕물을 받아 놓았다.

오늘은 물이 안 나와서 어제 받아 놓은 물로 세수를 했어요.

7. **-다 보면** ____ : 동사에 붙어 선행문의 동작을 계속해서 하는 동안 생기는 결과를 후행문에서 나타낼 때 쓴다.

예 : 한평생을 살아가다 보면 즐거울 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식을 키우다 보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돼요.

배우자를 너무 고르다 보면 결혼할 시기를 놓치고 말아요.

다른 사람의 충고를 무시하며 살다 보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 버리겠죠.

해외 여행을 하거나 외국 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애국자가 된다고들 해요.

③. 차가 밀렸어요.

1. 차가 빠지다 : ‘빠지다’는 좁은 곳을 쉽게 지나간다는 뜻. 이 말은 길에 차가 많지 않아서 차가 밀리지 않고 앞으로 잘 나간다는 표현이다.

차가 잘 빠지는 시간. 물이 잘 빠진다.

차가 빠지지 않는 걸 보니까 사고가 난 모양이에요.

2. 웬 : 기대하지 않은 것에 놀라서 질문할 때 쓰는 말이다.

웬 일이세요? 이게 웬 떡이냐!

3. 이맘때 : 이때쯤.

해마다 이맘때. 어제 이맘때.

작년엔 이맘때 첫눈이 왔었는데 올해는 좀 늦는군요.

4. 으레 :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아서 당연하고 틀림없이.

그 사람은 으레 늦는다. 퇴근 시간이면 으레 차가 밀린다.

5. 막히다 : 길이나 구멍이 쉽게 지나갈 수 없게 되다.

길이 막힌다. 당황해서 말이 막혔다.

막힌 하수도를 뚫어 드립니다.

6. **훨씬** : 생각한 것보다 아주 많거나 적을 때 쓰는 부사이다.

생각보다 훨씬 크다. 지난 번보다 훨씬 잘 했다.

7. **신경 쓰다** : '신경'은 무엇을 생각하거나 느끼는 힘이다. 이 말은 어떤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아주 깊이 생각한다는 표현이다.
작은 일에 신경을 쓴다. 신경 쓰이는 일. 신경질을 부렸다.

별일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8. **꼼짝** : 아주 조금 움직이는 모양
꼼짝 못한다.

너무 피곤해서 꼼짝도 하기 싫다.

9. **야단이다** : 보통 때와는 다른 큰 일이나 특별한 일 때문에 시끄럽게 하다.
야단 났다. 야단 친다. 야단 맞았다.

결혼식장에 신부가 나타나지 않아서 모두를 야단입니다.

10. **어디 우리 뿐이겠어요?** : '어디'는 특별한 뜻이 없이 상대의 말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표현하여 다시 질문할 때 쓴다. 이 말은 우리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표현한 것이다.

어디 그 사람 뿐이겠어요? 그 일이 어디 쉽겠어요?

이런 날씨에 여행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우리 뿐이겠어요?

11. **너나 할 것 없이** : 너와 나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요즘은 건강에 관심이 많아져서 너나 할 것 없이 한두 가지 운동을 해요.

4. 승진

1. 벌써부터 : 이미 오래 전부터.

이런 일이 생길 줄 벌써부터 알고 있었다.

2. 어깨가 무겁다 : 짐을 어깨에 올리면 무거운 것처럼 일을 맡아서 책임이 무겁게 느껴지다.

어깨가 무거운 자리.

부장이 되니까 책임감 때문인지 어깨가 무겁다.

3. -(으)ㄴ 겜 ____ :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동작동사에 붙어 후행문의 행위내용의 목적이 2가지 이상임을 나타낼 때 쓴다. 이 경우, ‘-(으)ㄴ 겜 -(으)ㄴ 겜’처럼 반복하여 쓸 수도 있다.

예 : 한국말도 배울 겜 문화도 배울 겜 한국에 왔어요.

지난 주말에는 문화 생활도 할 겜 좋아하는 연극 배우도 볼 겜 연극을 보러 갔어요.

밀린 이야기도 할 겜 집구경도 할 겜 우리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돈도 벌 겜 사회 경험도 쌓을 겜 이번 방학에는 아르바이트를 할까 해요.

외국어도 배울 겜 전문도 넓힐 겜 유럽에 다녀오려고 해요.

4. 얼마든지 : 어떤 양이나 수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누구든지. 뭐든지. 어디든지.

이 정도의 일이라면 얼마든지 도와 드리겠어요.

5. 출국

1. 질다 : 색깔, 냄새, 구름, 안개 등이 많아서 진하고 강하다.

화장이 질다. 짙은 회색. 안개가 짙게 끼었다.

그 옷은 색이 너무 짙어서 나한테는 안 어울려요.

2. **되** ____ : 동작동사에 붙어 반복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두사이다. 단, 한자어에는 잘 붙지 않는다.

예 : 되돌아가다. 되썰다. 되새기다. 되묻다.

3. **뜨다** : 물 위나 하늘에 오르다.

배가 떠 있다. 떠 오르는 태양.

유람선이 떠 있는 한강의 풍경은 정말 아름답더군요.

4. **안개가 걷히다** : 끼어 있던 안개가 없어지다.

구름이 걷힌다.

안개가 걷힌 후에 비행기가 이륙했다.

5. **-었더라면 -었을걸** : 이루지 못한 지난 일을 회상하면서, 그 일을 후회하거나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선행문에는 실제행위와 반대되는 사실을 쓰고 후행문에는 이루어지지 않아 후회스럽거나 안타깝게 생각되는 내용을 쓴다. ‘-었을걸’ 대신에 ‘-었을 텐데’를 써도 뜻의 차이가 없다.

예 : 우산을 가지고 갔더라면 비를 안 맞았을걸.

그 때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들었더라면 실패를 하지 않았을걸.

평소에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밤새워 공부하지 않아도 되었을걸.

저축을 해 두었더라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지 않아도 되었을걸.

잘 생각해서 판단했더라면 유혹에 빠지지 않았을걸.

6. **-에 의하면** ____ : 후행문에서 어떤 사실을 인용하면서 인용된 내용의 주체를 밝힐 때 쓴다. 후행문은 인용문이며 ‘-는다고 하다’의 종결어미로 끝난다.

예 : 일기예보에 의하면 곧 장마가 시작된대요.

박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다음 시험은 어려울 거라고 해요.

통계에 의하면 우리 나라 초등학교 학생들의 평균 신장이 커졌다고 해요.

여론에 의하면 그 기사를 구속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던데요.

신문 기사에 의하면 주식값이 자꾸 떨어진대요.

문형 연습

1. 계획된 생활의 기쁨

1. -는다고 하면 얼마나 _____ .

(보기) 가 : 대학 때는 정말 즐거웠는데...

나 : 대학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 : 일이 잘 안 돼요?

나 : 모든 일이 생각대로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 : 국민학교 동창들이 뭘 하는지 궁금해요.

나 : 동창생들을 다시 만난다고 하면 얼마나 반가울까요?

가 : 난 시험 공부를 못했는데 넌 어때니?

나 : 시험 날짜가 하루만 연기된다고 하면 얼마나 신날까?

가 : 김 선생이 부탁을 거절했다면서요?

나 : 지금이라도 부탁을 들어 준다고 하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가 : 이산가족들의 소원은 남북통일이랍니다.

나 : 빨리 통일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기쁠까요?

2. -는다고 해서 _____ .

(보기) 가 : 한국 풍습은 우리 나라와 달라서 이해할 수 없어요.

나 : 풍습이 다르다고 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한국 생활이 재미없을 거예요.

가 : 요즘 회사일을 하기가 싫어요.

나 : 일이 힘들다고 해서 불평만 하면 성공할 수 없어요.

가 : 조카가 아주 귀여워서 뭐든지 해 주고 싶어요.

나 : 아이가 귀엽다고 해서 무조건 잘 해 주기만 하면 버릇이 나빠져요.

가 : 우리팀이 지니까 응원할 기분이 안 나요.

나 : 우리팀이 지고 있다고 해서 응원을 안 하면 선수들이 더욱 기운을 잃게 돼요.

가 : 싸운 후에는 그 친구를 자꾸 피하게 돼요.

나 : 친구와 싸웠다고 해서 안 만나면 사이가 더 멀어져요.

가 : 별 것 아니니까 연습을 안 해도 돼요.

나 : 다른 사람보다 좀 잘 한다고 해서 자만하면 안돼요.

3. 비록 -는다 해도 _____ .

(보기) 가 : 그 아이는 똑똑하긴 한데 노력을 안 해요.

나 : 비록 똑똑하다 해도 노력을 안 하면 소용없지요.

가 : 선물이 이렇게 보잘 것 없어서 어떻게 하지요?

나 : 비록 보잘 것 없다 해도 정성이니까 고마워할 거예요.

가 : 우리집 아이는 공부에 소질이 없나 봐요.

나 : 비록 공부에 소질이 없다 해도 다른 재능을 개발하면 되지요.

가 : 계획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또 계획을 세워요?

나 : 비록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해도 일을 하기 전엔 계획을 세워야지요.

가 : 합격할 가능성도 없는데 왜 그 시험을 보려고 해요?

나 : 비록 이번엔 떨어진다고 해도 경험으로 한번 보겠어요.

가 : 내일 지구가 망한다면 뭘 하시겠어요?

나 : 비록 내일 지구가 망한다 해도 나는 오늘 사과 나무 한 그루를 심겠어요.

4. -게 하기도 하고 -게 하기도 하다.

(보기) 가 : 저는 비가 오면 왠지 우울해요.

나 : 날씨가 우리를 우울하게 하기도 하고 즐겁게 하기도 해요.

가 : 생일인데 친구가 전화도 안 해서 섭섭했어요.

나 : 작은 일이 우리를 기쁘게 하기도 하고 섭섭하게 하기도 하지요.

가 : 영수 씨 집이 화재로 큰 피해를 입었대요.

나 : 뜻밖의 불행이 우리를 당황하게 하기도 하고 절망하게 하기도 해요.

가 : 다음 달에 있을 국민학교 동창회가 벌써부터 기대가 돼요.

나 : 옛 친구와의 만남이 우리를 즐겁게 하기도 하고 들뜨게 하기도 하지요.

가 : 책을 늘 가까이 하시는군요.

나 : 독서가 많은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기도 하고 인생관을 바꾸게 하기도 해요.

가 : 민우 씨가 복권에 당첨되었대요.

나 :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불행하게 하기도 하지요.

2. 물이 안 나와요.

1. -는지 _____ .

(보기) 가 : 서 선생님을 만나 보셨어요?

나 : 그분이 요즘 바쁘지 통 연락이 없어요.

가 : 그 영화에 대한 평이 어때요?

나 : 영화가 재미있는지 손님이 하나도 없어요.

가 : 지금 혜영 씨 뭐 하고 있어요?

나 : 시험 결과 때문에 초조한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가 : 밖이 왜 이렇게 시끄럽지요?

나 : 옆 집에서 잔치를 하는지 시끌벅적하네요.

가 : 상철이의 일이 잘 되고 있대요?

나 : 일이 잘 안 되었는지 기운이 없어요.

가 : 그 병원 시설이 어때요?

나 : 건물을 새로 지었는지 무척 깨끗하고 현대식이더군요.

2. -는다니까 _____ .

(보기) 가 : 언제 손님이 오신대요?

나 : 곧 오신다니까 빨리 준비합시다.

가 : 아버지께서 오시면 같이 먹지요.

나 : 아버지는 밖에서 저녁 약속이 있으시다니까 우리끼리 먹자.

가 : 김 선생님은 언제 시간이 있대요?

나 : 금요일 오후엔 한가하다니까 그 날로 약속을 정하도록 합시다.

가 : 외국 여행을 가는데 돈을 어떻게 가져 가지요?

나 : 여행자 수표가 편하다니까 현금 대신 그것으로 가져 가세요.

가 : 오늘 계속 비가 온대요?

나 : 비가 오다가 오후엔 갠다니까 접는 우산을 가지고 나가세요.

가 : 준영 씨가 어떻게 마음을 바꿨어요?

나 : 처음엔 안 한다고 하다가 다들 한다니까 자기도 하겠다고 했어요.

3. 그런 줄도 모르고 괜히 _____ .

(보기) 가 : 시간이 남았으니까 천천히 해도 돼요.

나 : 그런 줄도 모르고 괜히 서둘렀군요.

가 : 그 가게는 배달도 해 줘요.

나 : 그런 줄도 무르고 괜히 무거운 걸 혼자 들고 왔군요.

가 : 선희가 오늘 아파서 지각했대요.

나 : 그런 줄도 모르고 괜히 심하게 야단을 쳤군요.

가 : 회의가 취소됐는데 모르셨어요?

나 : 그런 줄도 모르고 괜히 택시까지 타고 왔네요.

가 : 그 문제는 잘 해결되었어요.

나 : 그런 줄도 모르고 괜히 고민했네요.

가 : 조금 있으면 세일이니까 컴퓨터를 싸게 살 수 있어요.

나 : 그런 줄도 모르고 괜히 일찍 샀네요.

4. -다 보면 _____.

(보기) 가 : 받침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나 : 주의해서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가 : 요즘엔 일이 잘 안 돼요.

나 : 살다 보면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가 : 그 사람은 첫 인상이 별로 안 좋아요.

나 : 좀 더 사귀다 보면 좋은 점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가 :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나 : 함께 의논하다 보면 좋은 의견이 나올 거야.

가 : 급히 하느라고 한 가지를 빠뜨렸어요.

나 : 바쁘게 서두르다 보면 실수하기가 쉬워요.

가 : 외국 학생들을 가르치기가 어때요?

나 : 외국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배우는 것도 많아요.

3. 차가 밀렸어요.

1. -는데 웬 -가 이렇게 -지요?

(보기) 가 : 차가 쉽게 빠질 것 같지 않아요.

나 : 출근 시간도 아닌데 웬 차가 이렇게 많지요?

가 : 열람실에 자리가 없군요.

나 : 시험 때도 아닌데 웬 학생이 이렇게 많지요?

가 : 책 내용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나 : 중학교 교과서인데 웬 단어가 이렇게 어렵죠?

가 : 이걸 15,000원이에요.

나 : 질도 별로 좋지 않은데 웬 값이 이렇게 비싸지요?

가 : 재직증명서 하나 가져 오세요.

나 : 카드 하나 만드는데 웬 절차가 이렇게 복잡하지요?

가 : 눈이 금방 그칠 것 같지 않아요.

나 : 겨울도 지났는데 웬 눈이 이렇게 많이 오지요?

2. -는 게 훨씬 -는다고들 해요.

(보기) 가 : 요즘 젊은 주부들은 김치를 안 담근대요.

나 : 김치를 사다 먹는 게 훨씬 경제적이라고들 해요.

가 : 이제는 국민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운대요.

나 : 언어는 조기 교육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들 해요.

가 : 요즘은 중소기업에 많이 취직해요.

나 :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게 훨씬 승진 기회가 많다고들 해요.

가 : 전 아침을 거르고 점심식사를 일찍 해요.

나 : 아침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게 훨씬 건강에 좋다고들 해요.

가 :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줄었대요.

나 : 자가용을 타는 것보다 대중 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게 훨씬 시간이 절약된다고들 해요.

가 : 사람들이 증권 투자를 많이 해요.

나 : 저축을 하는 것보다 증권을 사는 게 훨씬 이익이 많이 남는다고들 해요.

3. -는다고 야단들이다.

(보기) 가 : 이번에 새로 개발된 세탁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때요?

나 : 성능이 좋다고 야단들이예요.

가 : 남부 지방은 가뭄 피해가 심하다는데 창수 씨 고향은 괜찮아요?

나 : 우리 고향도 비가 안 온다고 야단들이예요.

가 : 김치가 정말 맛있는데 누가 담그셨어요?

나 : 어머니가 담그셨는데 사람들마다 비결을 알고 싶다고 야단들이예요.

가 : 교통비가 인상되었다지요?

나 :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랐다고 야단들이예요.

가 : 득남하셨으니까 한턱 내셔야죠?

나 : 그렇지 않아도 동료들이 한턱 내라고 야단들이예요.

가 : 유학가시기 전에 친구들 한번 만나야지요?

나 : 친구들마다 떠나기 전에 한번 만나자고 야단들이예요.

4. -(나) -(나) 할 것 없이 _____ .

(보기) 가 : 요즘 아이들이 옛날과 달라서 키우기가 어렵죠?

나 : 이 집(이나) 저 집(이나) 할 것 없이 애들 교육 문제로 고심하고 있어요.

가 : 그 나라는 국민 모두에게 군대에 갈 의무가 있다면서요?

나 :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군대에 간대요.

가 : 학생회관을 짓는데 동문들이 성금을 냈다면서요?

나 : 졸업생(이나) 재학생(이나) 할 것 없이 적극적으로 협조했어요.

가 : 왜 이 노래를 택하셨어요?

나 :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즐겁게 부를 수 있는 노래거든요.

가 : 요즘 대도시에서는 공해문제가 아주 심각하대요.

나 : 대도시(나) 시골(이나) 할 것 없이 공해문제는 걱정거리예요.

가 : 수영장에 갔는데 노인들도 많더군요.

나 : 수영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쉽게 즐길 수 있는 운동이잖아요.

4. 승진

1. -도 -고 -도 -는 _____ .

(보기) 가 : 이번 졸업여행지로는 어디가 좋을까요?

나 : 경치도 아름답고 문화재도 많은 곳이 좋겠지요.

가 : 한글 백일장에서 장원을 하셨다면서요?

나 : 글 재주도 없고 한국말 실력도 부족한 제가 큰 상을 받게 되어 부끄럽습니다.

가 : 이번 일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 아직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부족한 제가 큰 일을 맡아서 걱정입니다.

가 : 제 결혼식에 꼭 참석해 주세요.

나 : 성격도 좋고 집안도 좋은 분과 결혼하게 되어서 기쁘시겠어요.

가 : 통역이니까 말을 잘 하는 학생이면 되겠지요?

나 : 말도 잘 하고 쓰기 실력도 우수한 학생을 추천해 주세요.

가 : 어느 학과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나 : 적성에도 맞고 앞으로의 전망도 밝은 과를 선택하세요.

2. -나 _____ .

(보기) 가 : 지금 봐선 비가 안 올 것 같은데요.

나 : 요즘은 날씨가 변덕스러우니 우산을 꼭 가지고 가세요.

가 : 그분에게 괜히 말했나 봐요.

나 : 그분은 입이 무거우니 비밀을 지키실 거예요.

가 : 주식 값이 오르지 않아서 걱정이에요.

나 : 경제 사정이 점점 나아지고 있으니 희망을 가지세요.

가 : 일이 잘 해결될까요?

나 : 최선을 다 했으니 결과를 기다려 봅시다.

가 : 뭘 찾고 계세요?

나 : 열쇠를 잃어 버렸으니 큰 일이에요.

가 : 정 부장님이 이번 일을 잘 하실까요?

나 : 그분은 성격이 꼼꼼하니 일을 빈틈없이 처리하실 거예요.

3. -(으)ㄴ 겠 -(으)ㄴ 겠 _____ .

(보기) 가 : 대개 주말엔 뭘 하세요?

나 : 운동도 할 겠 기분전환도 할 겠 주말엔 등산을 해요.

가 : 이번 휴가엔 어딜 다녀 오셨어요?

나 : 피서도 할 겠 친척분들도 찾아 뵈 겠 고향 근처로 갔다 왔어요.

가 : 꽃가게를 내셨다고요?

나 : 돈도 벌 겠 취미도 살릴 겠 꽃가게를 시작했어요.

가 : 이번 가족 여행에 왜 빠지세요?

나 : 집도 볼 겠 밀린 일도 할 겠 집에 남기로 했어요.

가 : 자동차가 고장도 안 났는데 왜 수리센터에 가세요?

나 : 정기 점검도 받을 겠 엔진 오일도 갈 겠 다녀 오려고 해요.

가 : 해외에 다녀 오셨다면서요?

나 : 새로운 사업 구상도 할 겸 바람도 쉴 겸 며칠 갔다 왔어요.

4. -다니 _____ .

(보기) 가 : 우리 부장님은 서른살이에요.

나 : 그렇게 젊은 사람이 벌써 부장이라니 보통 실력이 아닌가 봐요.

가 : 첫째 아이가 이번에 대학에 들어갔어요.

나 : 그렇게 큰 아이가 있다니 믿어지지 않는데요.

가 : 학생들이 불우 이웃을 돕기 위해서 음악회를 연대요.

나 : 그렇게 좋은 일을 한다니 나도 좀 도와 줘야겠군요.

가 : 영선 씨네는 결혼한 지 3년 만에 집을 장만했대요.

나 : 젊은 부부가 벌써 집을 장만했다니 정말 대단하군요.

가 : 현석 씨가 시작한 일이니 끝까지 책임을 지세요.

나 : 나 혼자 그 일을 다 책임지라니 정말 불공평해요.

가 : 회의는 여기서 끝내는 게 어때요?

나 : 모두를 끝내자니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5. 출국

1. -면야 문제 없겠지만 _____ .

(보기) 가 : 언제쯤 경제 상황이 좋아질까요?

나 : 정부가 좋은 정책을 세우면야 문제 없겠지만 좀 어려울 거예요.

가 : 이번 여행에 같이 갈 수 있어요?

나 : 다행히 그 때 휴가를 받으면야 문제 없겠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가 : 약속 시간에 될 수 있을까요?

나 : 길이 막히지 않으면야 문제 없겠지만 교통 사정을 알 수가 있어야죠.

가 : 올해 농사가 잘 될까요?

나 : 지금처럼 계속 날씨가 좋다면야 문제 없겠지만 안심할 수 없어요.

가 : 올해 안에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을까요?

나 : 계획대로 공사가 끝나면야 문제 없겠지만 장담할 수는 없어요.

가 : 요즘 쓰레기 문제로 정부가 고심하고 있다지요?

나 :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방법이 개발되면야 문제 없겠지만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2. -었더라면 -었었을걸.

(보기) 가 : 수술을 받으셔야 한다면서요?

나 : 초기에 발견했더라면 약으로 고칠 수 있었을걸.

가 : 김 선생님이 아주 섭섭하셨나 봐요.

나 : 우리가 미리 양해를 구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걸.

가 : 어젠 좀 심하게 화를 내신 것 같아요.

나 : 내가 좀 더 참았더라면 일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었을걸.

가 : 이젠 아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나 : 처음에 사실대로 말했더라면 일이 이렇게 심각해지지 않았을걸.

가 : 이 집을 다 어떻게 옮기죠?

나 : 이럴 때 차가 있었더라면 편했을걸.

가 : 경수 씨와 민영 씨는 이제 아는 척도 안 하나 봐요.

나 : 서로 조금씩만 양보했더라면 사이가 그렇게 나빠지지는 않았을걸.

3. -에 의하면 -는대요.

(보기) 가 : 오늘은 좀 따뜻했으면 좋겠네요.

나 : 일기예보에 의하면 오늘도 일교차가 심하대요.

가 :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한대요?

나 : 안내 방송에 의하여 10분 후엔 출발할 수 있대요.

가 : 의사가 뭐래요?

나 : 담당 의사 말에 의하면 3일 후엔 퇴원이 가능하대요.

가 : 새 대통령이 외교에 특별히 관심이 많대요.

나 : 어느 일간지에 의하면 대통령이 다음 달에 새 외교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래요.

가 :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뭘까요?

나 : 경제 전문가에 의하면 수출 증대가 제일 중요하대요.

가 : 그 나라 수상이 요즘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아요.

나 : 소문에 의하면 건강이 악화되어서 사임할 거래요.

문화 해설

진인사 대천명(盡人事 待天命)

우리들은 하루하루 많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며 산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나, 한 달, 일년이 시작되는 첫날에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세운 계획들이 항상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엉뚱한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뜻하지 않았던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이다. 가끔은 계획을 너무 크게 세웠거나 실천하지 못해서 실망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사람은 예로부터 하늘(天)을 섬겨 왔다. 그리고 하늘은 인간의 모든 일을 참되게 이루어 주는 마지막 계획자로 여겨졌다. 그래서 하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사람이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일은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생각에서 '진인사 대천명 : 사람은 단지 열심히 일을 다 하고 그 결과는 하늘에 맡긴다'라는 말이 생겨 났다. 어려운 일이나 큰 일을 앞두고 사람들은 다시 한번 자신의 일을 되돌아보고 정성을 모아 열심히 일을 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좋은 나쁜든 하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인다. 하늘의 뜻에 어긋났다는 것은 계획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노력이 부족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서양 속담에서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했다. 우리들은 일의 결과보다도 그 일을 해 나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다.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 참 큰일났네!

1. 한 치 앞을 모르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가능한 한 지금 이 순간보다 더 나은 삶을 이루어 보려고 미래를 계획하며 삽니다.

1) 지금 당신은 어린 날 당신이 설계했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릴 때 생각했던 모습과 비슷하다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아니라면 왜 생각대로 안 되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2) 앞으로의 나의 삶을 가족, 국가, 지구, 우주의 차원에서 계획해 봅시다.

2. 뜻밖의 고통스러운 일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래에 제시된 경우 중 하나를 골라서 이야기해 봅시다. 또는 당신 스스로가 생각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이야기해 봅시다.

1)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생각하고 고통이 끝나고 좋은 날이 오

기를 조용히 기다린다.

2) 고통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삶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그동안의 나의 생활에 잘못된 점을 찾아 보며 반성한다.

3) 기쁨은 나누면 커지고 고통은 나누면 적어지므로 적당한 상대를 찾아서 이야기를 나눈다.

4) 고통을 쉽게 잊을 수 있는 방법 — 여행, 놀이, 운동 등 — 을 찾는다.

제 33 과

아직도 그런 걸 믿으세요?

1. 미신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무엇인가?”를 묻는다면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그 이유는 사람에게에는 생각하는 능력과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처럼 가장 강하다는 사람도 가장 약해질 때가 있는데 그것은 미래와 만날 때이다.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누구나 불안해 하며, 불안하기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서 무엇인가에 의지하고 싶어진다.

이런 경우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으로 불안한 마음을 이겨 나가고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자연히 미신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만으로는 불안하기 때문에 남의 말이나 미신을 믿게 된다. 일생을 좌우하는 결혼 문제라든지, 사업 문제, 대학 입학 또는 이사 같은 일들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이와 같이, 우리의 생사화복과 관계가 있는 일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신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다.

2 손 없는 날

작은동서 : 일찍 온다는 게 이렇게 늦었어요. 미안해요, 형님. 그런데 주말 같은 날 이사하지 않으시고요.

큰 동 서 : 그랬으면야 나도 결근 안 하고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오늘이 손 없는 날이라고 꼭 오늘 이사해야 한대잖아.

작은동서 : 형님도, 어느 시대 사람인데 아직도 그런 걸 믿으세요?

큰 동 서 : 내가 믿는 건가? 할머니가 그러시니 어찌겠나? 그리고 나쁘다는 것보다 좋다는 게 좋지.

작은동서 : 저희집 가까이로 오시라니까 왜 점점 더 멀리 가세요?

큰 동 서 : 금년에 서쪽으로 이사하면 안 좋대. 그러니 할 수 없지, 뭐.

3. 북향 대문

영희엄마 : 온 식구가 집 보러 가시더니 계약하셨어요?

순이엄마 : 웬걸요. 집 구경만 실컷 하고 그냥 왔어요.

영희엄마 : 그래요? 요즘 집 값이 시세보다 싼 편이라고들 하던데요.

순이엄마 : 예, 집도 새 집이나 다름없고 크기도 우리 식구에겐 안성맞춤이었어요.

영희엄마 : 거긴 동네도 그만하면 좋고, 좋은 조건은 다 갖추었는데, 무슨 흠이라도 있었나요?

순이엄마 : 집은 남향인데 대문이 북향이라고 할머니께서 반대하시니 할 수 없지요.

영희엄마 : 옛날 같으면 큰 흠이지만 요새 그런 것까지 따지면 집 사기 힘들지요.

4. 사주팔자

- 사무실에서 -

철 수 : 요즘은 주말에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시간이 겹치는 수가 많아요.

영 미 : 전에는 결혼 날짜를 택일하느라고 몇 달씩 기다려야 했는데, 이제는 주말에 많이 하니까요.

철 수 : 그건 그렇고 영미 씨는 언제 국수 줄 거예요? 이거 기다리다 늙겠어요.

영 미 : 전 아직 멀었어요. 스물 다섯 살이 지나서 시집가야 잘 산대요.

철 수 : 아니! 달나라까지 가는 세상인데 아직도 그런 걸 믿으세요?

영 미 : 그러시는 이 선생님은 왜 아직 안 하셨어요?

철 수 : 나야 아직 천생연분을 못 만나서 그렇지요.

5. 입학시험장에서

다 나 까 : 시험 공부하는 자녀들과 같이 밤을 새우는 어머니들도 있다면서요?

김 선생 : 많지요. 다른 나라 사람들 눈에는 좀 이상하게 보일 겁니다만.

다 나 까 : 사람들이 교문에다가 무엇을 붙이고 있는데 뭐니까?

김 선생 : 옛이나 찰떡이에요, 미신인 줄 알면서도 잘 붙으라고 옛날부터 그렇게 해 왔어요.

다 나 까 : 자녀들을 위하는 부모의 마음이 참 대단하군요.

김 선생 : 그 뿐만이 아니에요, 시험보는 날엔 미역국 같은 것을 절대로 안 먹인답니다.

다 나 까 : 아, 그래서 떨어지면 미역국을 먹었다고 하는군요. 하여튼 부모님들의 정성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어휘와 문법

1. 미신

1. **옳다** : 일, 생각, 대답 등이 잘못되지 않다.

네 말이 옳다. 올바르다.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을 홍보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2. **그르다** : 옳지 않다. 어떤 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

옳고 그름.

결석이 많아서 진급하기는 그른 것 같다.

3. **지각** : 옳고 그름을 알거나 사물을 이해하는 능력.

지각없는 행동. 몰지각하다.

한 쪽 얘기만 듣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지각없는 행동이다.

4. **의지하다** : 혼자 힘으로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또는 물건에 마음이나 몸을 기대다.

남에게 의지한다. 의타심.

요즘 아이들은 과보호 속에서 자라서 그런지 부모님에게 의지하려는 경향이 심하다.

5. **신앙** : 종교 생활에서 믿고 따르는 일.

신앙의 자유. 신앙심. 무속 신앙.

저는 하느님을 믿지만 그것은 기독교 신앙과는 다른 거예요.

6. 미신 : 종교나 과학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 믿음.

아침에 거울을 깨뜨리면 그 날 재수가 없다는 것은 미신이지요.

7. -만으로(는) _____ : 단독 보조사 '-만'에 '-으로'가 붙은 복합 조사이다. 명사 혹은 명사구에 붙어서 쓰인다.

예 :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아 갈 수가 없지요.

외모만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마세요.

학교 공부만으로는 부족해서 학교 수업 후 학원에 나가요.

자신감만으로는 그 일을 해 내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 세상에는 돈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더 많아요.

8. 좌우하다 : 다른 사람이나 일을 마음대로 하다.

결혼이 일생을 좌우한다.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사람.

순간의 선택이 일생을 좌우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9. -라든지 _____ : 명사에 붙어서 둘 이상의 명사를 나열할 때 쓴다.

예 : 공부라든지 운동이라든지 한 가지 특기만 있으면 되죠.

낚시라든지 수영이라든지 취미생활을 해야겠어요.

추석이라든지 설이라든지 하는 명절은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명절이에요.

TV라든지 라디오라든지 대중매체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의사들은 암이라든지 그 밖의 불치병을 퇴치하기 위한 연구를 끊임 없이 계속하고 있다.

10. 더욱 : 오히려 더. 더 심하게.

더욱 더.

날이 갈수록 그 사람의 병은 더욱 심해졌다.

11. **생사화복** : ‘생’은 삶, ‘사’는 죽음, ‘화’는 불행, ‘복’은 행복을 말한다.

생사의 갈림길.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늘의 뜻이다.

12. **귀를 기울이다** : ‘기울이다’는 물건이나 몸을 비스듬히 하는 것이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해서 잘 듣는다는 뜻이다.

주의를 기울인다.

선생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2. 손 없는 날

1. **-었으면야** _____ : 지난 일에 대한 가정을 나타낼 때 쓴다. 선행문에서는 지난 일에 대한 반대의 사실을 써서 가정을 나타내며, 후행문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일, 즉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를 나타낸다. ‘-야’는 강조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로서 가정의 의미를 더 강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예 : 밤 새워 열심히 공부했으면야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을 거예요.

부모님이 살아 계셨을 때 효도를 다 했으면야 지금 이렇게 후회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많은 돈이 있었으면야 벌써 내 위치가 달라졌겠지요?

낭비를 하지 않고 알뜰하게 살았으면야 지금처럼 빈털털이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모두들 한마음으로 뭉쳤으면야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2. **결근** : 직장에 나가지 않고 빠짐.

결근했다. 출근. 퇴근.

학교에 다닐 때는 결석을 자주 하더니 사회에 나와서는 결근을 자주 하는군.

3. **-는대잖아** : ‘-는다고 하지 않아’의 준말로서 선행문에서는 인용하는 내용을 쓰며 부정의 형태를 사용하여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사실을 강하게 전달할 때 쓴다.

예 : 남을 위해 좋은 일을 해야 복을 받는대잖아요.

글쎄, 이걸 먹으면 병이 금방 낫는대잖아.

우리 농산물을 먹어야 몸에 이롭대잖아요.

한국도 독일처럼 통일될 날이 꼭 온대잖아요.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경제가 활성화된대잖아.

4. **-도 (참), _____** : 의외의 일이나 마음에 언짢은 일을 보았을 때 그 대상에 붙여서 선행문 전체를 감탄사처럼 쓴다. ‘-도’ 대신에 서울, 경기지방이나 구어체에서는 ‘-두’를 쓰기도 한다. ‘참’은 감탄사이다.

예 : 당신도, 지금이 몇 시인데 밖에서 전화해요?

너도, 몇 살인데 아직도 부모님께 용돈을 타고 있니?

학생들도 참, 폭력 시위가 이제는 사라질 때도 됐는데...

날씨도 참, 하루 종일 비가 그칠 줄 모르는군.

하느님도 참, 그 착한 분을 돌아가시게 하다니...

5. **가까이** : 가깝게, 가까운 곳.

10년 가까이 신촌에서 살았어요.

나쁜 친구는 가까이 하지 마라.

3. 복향 대문

1. **-더니 _____** : 회상을 나타내는 어미 ‘-더’와 연결어미 ‘-니’가 결합된 것으로서 동사에 붙어서 쓰인다. 선행문은 화자가 과거에 경험한 것을 회상하여 보고함을 나타내고 후행문은 선행동작의 결과나 변화를 나타낸다. 문장 안에서 실제 주어는 대개 1인칭이 아닌 2, 3인칭이 온다.

예 : 열심히 공부하더니 역시 수석을 차지했군요.

이번 주 내내 기분이 우울하더니 오늘은 한결 좋아졌어요.

어렸을 때는 말을 잘 듣더니 커서는 안 그래요.

하루 종일 밖에서 놀더니 피곤한 모양이군요.

그 애가 뛰어가더니 넘어지고 말았군요.

2. -었더니 _____ : 동작동사에 붙어서 쓰이며, 선행문에서는 과거에 주어의 동작이 완료된 상태를 화자가 회상해서 보고함을 나타내고 후행문에서는 선행문의 결과를 나타낸다. 이 때 선행문의 주어는 대개 1인칭이고 후행문의 주어는 3인칭이 온다. 선행문의 주어가 3인칭일 때는 후행문이 간접 인용문 형태로 끝난다.

예 : 찬 것을 먹었더니 배가 아파요.

늦게 잤더니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더군요.

친구 집에 전화했더니 외출했더군요.

화분에 물을 많이 주었더니 잎이 누래졌습니다.

표를 사러 갔더니 매진되었대요.

3. 계약하다 : 물건을 사고 팔 때나 일을 하기로 할 때 법적으로 약속하다.
계약서. 계약금. 계약 위반.

집을 얼마에 계약하셨어요?

4. 실컷 : 하고 싶은 만큼 다.

마음껏. 힘껏. 정성껏.

휴일을 맞아 모처럼 실컷 잤다.

5. 시세 : 그 때의 물건 값.

시세가 떨어졌다. 증권 시세.

아는 분의 소개로 집을 시세보다 싼 값으로 샀다.

6. 새 집이나 다름없다 : '다름없다'는 다르지 않다는 뜻이다. 이 말은 새 집은 아니지만 새 집과 별로 차이가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좋다는 뜻이다. 틀림없다. 변함없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서 형제나 다름없다.

7. 그만하면 :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이면.
그만하면 잘 했다.

이 물건은 값도 적당하고 질도 그만하면 괜찮다.

8. 갖추다 : 미리 필요한 것을 준비해 놓다.
시설을 갖추었다. 실력을 갖춘 사람.

그 사람은 이 일에 맞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

9. 흠 : 사람이나 물건의 완전하지 못한 부분.
흠 잡을 데 없는 것.

이 세상에 흠 하나 없이 완벽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10. 따지다 : 옳고 그름을 밝히다. 계산하다.
잘잘못을 따졌다. 이익을 따진다.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는 이모저모 잘 따져 봐야 한다.

4. 사주팔자

1. 겹치다 : 여러 가지 일이 같은 때에 생기다.
약속이 겹쳤다. 겹쳐 입는다.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쳐서 휴일이 하루 줄었다.

2. **-는 수가 있다** : '수'는 의존명사로서 '경우'를 뜻한다. 가끔 특별한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일을 나타낼 때 쓴다. 또는 의존명사 '수'가 '방법'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도 있다.

예 :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게 나타나는 수가 있어요.

요즘같이 교통이 복잡할 때는 택시보다 지하철이 더 빠른 수가 있어요.

만원버스 안에서는 잘못해서 다른 사람의 발을 밟는 수가 있어요.

시험볼 때 당황하면 아는 문제도 틀리는 수가 있어요.

요구조건이 많을 때는 모든 사람의 요구를 다 들어주지 못하는 수가 있어요.

일하지 않고 잘 사는 수가 있나요?

시험을 잘 보는 좋은 수가 없을까?

3. **택일하다** : 결혼이나 이사 등을 위해서 좋은 날을 고르다.

결혼 날짜는 신부 쪽에서 택일한다.

4. **그건 그렇고** : 이야기를 끝내지 않고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바꿀 때 쓴다.
그건 그렇다. 그건 그렇지만.

지금까지 하신 말씀은 잘 알겠어요. 그건 그렇고 제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5. **국수를 주다** : 결혼식 후에 국수를 대접하는 풍습에서 나온 말로 앞으로 결혼한다는 뜻이며 상대방에게 결혼 계획에 대해서 질문할 때 쓴다.

국수를 먹다.

언제쯤 국수를 줄 겁니까?

6. **천생연분** : '연분'은 남녀 사이에 부부가 될 수 있는 인연이다. 이 말은 하늘이 정해준 인연처럼 잘 어울리는 사람을 뜻한다.

천생연분이다. 연분이 있다.

저렇게 마음이 잘 맞는 걸 보니 두 사람은 천생연분인 것 같아요.

5. 입학시험장에서

1. -는 날엔 ____ : 동사에 붙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이라는 뜻으로 쓴다.

예 : 네가 장학금을 받는 날엔 네 소원을 다 들어줄게.

그 학생이 오는 날엔 해가 서쪽에서 뜨겠지.

내가 성공하는 날엔 그분의 은혜는 꼭 갚을 거예요.

남북통일이 되는 날엔 제일 먼저 금강산 구경을 하고 싶어요.

세계제3차대전이 일어나는 날엔 핵전쟁이 될 거예요.

2. 미역국을 먹다 : 단순히 반찬으로 미역국을 먹는다는 뜻 이외에 '시험에 떨어지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시험을 보기 전에 미역국을 먹지 않는 습관이 있다.

입학 시험에서 미역국을 먹었다.

3. 하여튼 : 이 말은 말을 끊거나 결론을 내릴 때 쓴다.

어쨌든.

어려움이 많지만 하여튼 해 봅시다.

4. 정성 : 거짓 없고 성실한 마음.

정성스럽다. 정성을 들이다. 정성껏.

선물은 값보다는 정성이 중요하다.

5. 고개가 숙여지다 : 훌륭한 사람이나 행동을 보고 존경하는 마음이 생긴다. 고개를 숙였다.

그분의 희생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문형 연습

1. 미신

1. -는가 -는가를 묻는다면 -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보기) 가 :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까요?

나 : 이 세상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무엇이 제일 필요한가를 묻는다면 돈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가 : 사람들은 가장 즐거웠던 때가 언제라고 생각할까요?

나 : 인생에서 제일 즐거웠던 때가 언제인가 가장 기억에 남는 때가 언제인가를 묻는다면 학창 시절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가 :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나 :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를 묻는다면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가 : 이미 지난 과거인데 역사는 왜 배울까요?

나 : 역사를 왜 배우는가 역사는 왜 필요한가를 묻는다면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배우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가 : 어떤 사람은 일 때문에 가정을 소홀히 한대요.

나 : 가정이 중요한가 일이 중요한가를 묻는다면 일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가 : 요즘 젊은이들은 인내심이 없어요.

나 : 요즘 젊은이들에게 어떤 점이 부족한가 어떤 점이 가장 필요한가를 묻는다면 인내심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2. -(으)ㄹ 때가 있는데 그것은 -(으)ㄹ 때이다.

(보기) 가 : 세월이 쏜 살 같아요.

나 : 세월이 정말 빠르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 그것은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가 : 선생님은 늘 자신감에 차 보여요.

나 : 저도 자신감을 잃을 때가 있는데 그것은 일의 결과가 실망스러울 때입니다.

가 : 가족들에게도 섭섭할 때가 있어요?

나 : 가족에게도 섭섭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가족들이 내 입장을 이해하지 못할 때입니다.

가 : 요즘은 세대차이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나 : 아이들과 세대차이를 느낄 때가 있는데 그것은 이성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입니다.

가 : 저는 요즘 학교 다니기가 싫어요.

나 : 저도 가끔 학교에 오기 싫을 때가 있는데 그것은 숙제를 안 했을 때입니다.

가 : 하시는 일은 잘 되지요?

나 : 가끔 일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것은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입니다.

3. -만으로는 _____ .

(보기) 가 : 이 선생님이 직장을 옮긴다는 게 사실이에요?

나 : 소문만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요.

가 : 이 교수님의 추천서가 있는데 다른 교수님의 추천서도 받아야 돼요?

나 : 한 분의 추천만으로는 부족하대요.

가 : 자연 보호 운동 단체가 점점 늘고 있어요.

나 : 자연 보호는 몇몇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가 : 엑스레이도 찍으세요?

나 : 혈액 검사만으로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대요.

가 : 요즘 가정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요.

나 : 학교 교육만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지요.

가 : 그 사람은 험상궂게 생겨서 성격도 나쁜 거예요.

나 : 외모만으로는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4. 라든지 _____ .

(보기) 가 : 집안일을 잘 도와 주세요?

나 : 청소라든지 설거지 정도는 자주 해요.

가 : 한국말을 할 때 무엇이 가장 문제가 돼요?

나 : 조사라든지 어미를 문법에 맞게 쓰는 게 제일 어려워요.

가 : 요즘 청소년 문제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나 : 가정 환경이라든지 교우 관계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가 : 내무부에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

나 : 치안이라든지 선거등의 일을 맡아서 합니다.

가 : 국악 연주회에서는 무엇을 볼 수 있어요?

나 : 사물 놀이라든지 가야금 같은 전통 음악을 감상할 수 있어요.

가 : 한국 음식 중에서 뭘 즐겨 잡수세요?

나 : 비빔밥이라든지 김치찌개를 자주 먹어요.

2. 손 없는 날

1. -었으면야 _____ .

(보기) 가 : 비행기를 타지 않으시고요.

나 : 비행기를 탔으면야 시간도 절약되고 얼마나 좋겠어요.

가 : 단어 공부는 날마다 조금씩 해야 돼요.

나 : 하루에 두세 개씩 단어를 외웠으면야 지금쯤 단어 박사가 되었을 거예요.

가 : 그 회사는 근무 조건이 좋다면서요?

나 : 근무 조건이 좋았으면야 제가 왜 그만두었겠어요?

가 : 왜 그분께 인사하지 않았어요?

나 : 제가 그분을 알아봤으면야 인사를 했지요.

가 : 이번 화재 사고는 참 안타까워요.

나 : 미리 안전 시설이 되어 있었으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요.

가 : 게시판에 신입사원 모집 광고가 붙어 있었는데 못 보셨어요?

나 : 모집 광고를 봤으면야 지금 이렇게 일자리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는 않겠
죠.

2. -는대잖아.

(보기) 가 : 왜 그렇게 이사를 서두르세요?

나 : 집 주인이 이번 주말까지 집을 비워야 한대잖아.

가 : 왜 퇴근을 안 하시고 저녁을 드세요?

나 : 일이 많아서 야근을 해야 한대잖아.

가 : 왜 물을 받아 놓으셨어요?

나 : 수도 공사 때문에 내일 하루 종일 단수가 된대잖아요.

가 : 최 선생님은 실없는 얘기를 잘 해요.

나 : 원래 키 큰 사람은 싱겁대잖아요.

가 : 그 얘기는 비밀인데 어디서 들었어요?

나 :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대잖아요.

가 : 영어 학원에 등록했어요?

나 : 신청서를 내려 갔는데 벌써 마감됐대잖아요.

3. -도 (참), _____ .

(보기) 가 : 친구가 10분이 지나도록 안 와서 그냥 와 버렸어요.

나 : 너도 참, 참을성이 없어서 큰일이야.

가 : 이 옷이 어떨까?

나 : 너도 참, 학교에 어떻게 이런 옷을 입고 가니?

가 : 그 사람을 좋아하면 먼저 고백해.

나 : 선생님도 참, 여자가 먼저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가 : 김 선생님은 이번에도 친구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대요.

나 : 김 선생님도 참, 마음이 너무 약해서 큰일이에요.

가 : 박 선생님이 과로로 쓰러지셨대요.

나 : 그분도 참, 너무 무리하셨군요.

가 :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

나 : 어머니도 참, 아직도 그런 보수적인 생각을 하세요?

4. -는 건가? -니 어찌겠나?

(보기) 가 : 과장님은 거의 날마다 야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 :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건가? 일이 밀렸으니 어찌겠나?

가 : 선생님은 요즘 약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나 : 내가 좋아서 먹는 건가? 혈압이 높으니 어찌겠나?

가 : 이사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또 이사를 하세요?

나 : 내가 원해서 하는 건가? 집주인이 집을 비우라니 어찌겠나?

가 : 신혼인데 주말 부부라니 참 안됐어요.

나 : 그 사람들이 같이 살기가 싫어서 그러는 건가? 남편 직장이 지방에 있으니 어찌겠나?

가 : 김 군이 이번에 휴학을 하기로 했다는군.

나 : 그 사람이 공부를 하기 싫어서 휴학하는 건가? 생활 형편이 어려우니 어찌

겠나?

가 : 숙제를 안 한 걸 보니 공부할 생각이 없는 모양이군.

나 : 공부할 생각이 없어서 안 한 건가? 어젯밤에 정전이 되었으니 어찌겠나?

5. -는 것보다 -는 게 좋지.

(보기) 가 : 졸업 후에 어떤 직업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 : 혼자서 고민하는 것보다 부모님과 상의해서 결정하는 게 좋지.

가 : 의사의 말로는 수술하는 게 더 낫대요.

나 : 아파서 평생 고생하는 것보다 수술해서 완전히 고치는 게 좋지.

가 : 이 구두는 좀 작고 저 구두는 좀 큰데 어느 걸 살까요?

나 : 작아서 불편한 것보다 좀 넉넉한 게 좋지.

가 : 잠실 야구장에 갔다가 주차를 못해서 고생했어요.

나 : 그런 곳에 갈 때는 자가용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 게 좋지.

가 : 목이 마르는데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

나 : 갈증이 날 때는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보다 시원한 물을 마시는 게 좋지.

가 : 난방비를 아끼려고 하다가 감기에 걸렸어요.

나 : 감기에 걸려 고생하는 것보다 돈이 들어도 난방을 하는 게 좋지.

3. 북향 대문

1. -더니 _____ .

(보기) 가 : 성수가 요즘 연습실에서 보이질 않아요.

나 : 밤낮을 쉬지 않고 연습만 하더니 결국 병이 났대요.

가 : 양 선생님은 여행 중이신데 연락이 되었을까요?

나 : 사무실 직원이 여기 저기 전화하더니 연락이 닿았나 봐요.

가 : 연구원들이 특별 보너스를 받는다는데 무슨 일이에요?

나 : 연구원들이 일년 내내 실험을 하더니 무슨 신제품을 개발한 모양이에요.

가 : 강 선생님이 갑자기 결혼 발표를 하셨대요.

나 : 여기 저기 선을 보더니 드디어 마음에 드는 짝을 만났나 봐요.

가 : 그 애들이 처음 만났는데 어색해하지 않았어요?

나 : 처음엔 말도 못하고 어색해하더니 금방 서로 친해지더군요.

가 : 학생들 간에 실력 차이가 많아요?

나 : 처음 시작할 때는 실력이 비슷비슷하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가 심해 지더군요.

2. 웬걸요. _____.

(보기) 가 : 방학 동안 여행 좀 하셨어요?

나 : 웬걸요. 미루어 온 일들을 한꺼번에 하느라고 정신없이 바빴어요.

가 : 백화점에 가시던데 뭘 좀 사셨어요?

나 : 웬걸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구경도 제대로 못했어요.

가 :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많이 도와 주셨죠?

나 : 웬걸요. 어른이 되었으니까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가 : 지금쯤 영호 씨가 제주도에 도착했겠죠?

나 : 웬걸요. 안개가 짙어서 비행기가 이륙도 못했어요.

가 : 아드님이 결혼하셨죠?

나 : 웬걸요. 서른 살이 넘었는데 사귀는 여자도 없나 봐요.

가 : 이젠 한국 풍습에 익숙해지셨지요?

나 : 웬걸요.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아요.

3. -라고(들) 하던데요.

(보기) 가 : 오 선생님과 최 선생님은 동기생인가요?

나 : 오 선생님이 최 선생님보다 2년 선배라고들 하던데요.

가 : 요즘 물가가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올랐대요.

나 : 다음 달부터는 공공요금도 인상될 거라고 하던데요.

가 :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데 주요인이 뭐예요?

나 :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라고들 하던데요.

가 : 요즘 실업률이 많이 낮아졌대요.

나 : 정부의 고용정책 덕분이라고들 하던데요.

가 : 학생들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나요?

나 : 학교 근처에서 하숙을 하는 학생이 대부분이라고 하던데요.

가 : 요즘 백화점이 한산하더군요.

나 : 경기 침체 탓이라고 하던데요.

4. -나 다름없다.

(보기) 가 : 두 분이 참 친하신 것 같아요.

나 : 아주 오랫동안 사귀어서 우리는 친형제나 다름없어요.

가 : 친부모도 아닌데 모시고 사신다면서요?

나 : 어려서부터 저를 키워 주셨으니 친부모님이나 다름없지요.

가 : 그분이 한번 생각해 보겠대요.

나 : 그분이 그렇게 말한 건 거절한 것이나 다름없어요.

가 : 중고차보다 새 차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나 : 잘 고르면 중고차도 새 차나 다름없이 깨끗하고 튼튼해요.

가 : 앤더슨 씨가 한국 신문사에 취직되었대요.

나 : 그분은 한국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나 다름없이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어요.

가 : 여자친구하고는 정말 헤어지신 거예요?

나 :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안 만나니까 헤어진 것이나 다름없어요.

5. -니 할 수 없지요.

(보기) 가 : 사윗감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면서 결혼을 허락하셨군요.

나 : 본인들이 서로 좋아하니 할 수 없지요.

가 : 비싼데 왜 짐을 항공편으로 부쳐요?

나 : 비싸지만 이게 제일 빠르니 할 수 없지요.

가 : 출근 시간을 앞당기면 일의 능률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나 : 회사 방침이 그러니 할 수 없지요.

가 : 입석표를 끊으셨군요.

나 : 꼭 가야 하는데 이것 밖에 없다니 할 수 없지요.

가 : 도배하는 데 돈을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나 : 그 정도 안 주면 안 한다니 할 수 없지요.

가 : 왜 해외 근무의 기회를 포기하셨어요?

나 : 가고 싶지만 부모님이 말리시니 할 수 없지요.

4. 사주팔자

1. -는 수가 있다.

(보기) 가 : 비행기 도착 시간이 10분이나 지났는데 왜 소식이 없지요?

나 : 기상 상태가 나쁘면 연착되는 수가 있어요.

가 : 지난 번엔 길을 잘못 들어서 아주 고생했어요.

나 : 그 곳은 비슷한 곳이 많아서 주의하지 않으면 길을 잃어 버리는 수가 있어요.

가 : 김 선생님을 찾아 갔다가 헛걸음을 했어요.

나 : 워낙 바쁜 분이라서 미리 약속을 하지 않으면 못 만나는 수가 있어요.

가 : 이 강좌는 꼭 하는 건가요?

나 : 신청자가 너무 적으면 취소되는 수가 있어요.

가 : 이 보약이 몸에 좋다는데 한번 먹어 볼까요?

나 : 체질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해가 되는 수가 있어요.

가 :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나 : 그러다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 수가 있어요.

2. 그건 그렇고 _____ .

(보기) 가 : 학기말 시험은 중간 시험보다 좀 어렵게 나올 거예요.

나 : 그건 그렇고 시험 날짜는 언제예요?

가 : 이 상품은 품질도 좋고 실용적이어서 인기가 많아요.

나 : 그건 그렇고 값은 얼마예요?

가 : 오늘 저녁에 회식이 있습니다.

나 : 그건 그렇고 아까 그 서류는 결재를 받았어요?

가 : 이번 달에는 전화요금이 많이 나왔네요.

나 : 그건 그렇고 저한테 전화 온 거 없어요?

가 : 은행 신용카드를 신청했는데 한 달이 넘도록 안 나와요.

나 : 그건 그렇고 지난 번에 신청한 백화점 카드는 받으셨어요?

가 : 이번에 들어간 회사는 내 적성에 잘 맞는 것 같아요.

나 : 그건 그렇고 대우는 괜찮아요?

3. -어야 -는대요.

(보기) 가 :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대요?

나 : 자세한 내용은 김 과장님을 직접 만나 봐야 알 수 있대요.

가 : 기차까지 짐을 들어 드릴게요.

나 : 따로 입장권을 사야 기차까지 갈 수 있대요.

가 : 그 기숙사는 신청하면 금방 들어갈 수 있어요?

나 : 보통 한 학기쯤 기다려야 자리가 난대요.

가 : 그 회사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나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어야 원서를 낼 수 있대요.

가 : 냉장고를 새로 장만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사면 좋을까요?

나 : 전자제품은 종합 상가에 가서 사야 싸고 좋대요.

가 : 몇 명 이상이라야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나 : 단체 입장은 스무 명이 넘어야 할인을 해 준대요.

4. 그러시는 -은 왜 _____ ?

(보기) 가 : 휴가인데 어디 안 가세요?

나 : 그러시는 선희 씨는 왜 집에만 계세요?

가 :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나 : 그러시는 송 선생님은 왜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를 안 하세요?

가 : 미니 스커트가 발랄하고 예뻐 보일 텐데 한번 입어 보세요.

나 : 그러시는 미선 씨는 왜 긴 치마만 입으세요?

가 : 대학에 진학하는 것보다는 취직하는 편이 낫지 않아요?

나 : 그러시는 영희 씨는 왜 대학에 가셨어요?

가 : 몸에 해롭다는데 담배 좀 끊으세요.

나 : 그러시는 영준 씨는 왜 몸에 해로운 술을 끊지 못해요?

가 : 현대는 정보화 시대라고 할 수 있지요.

나 : 그러는 너는 왜 신문도 안 보니?

5. 입학시험장에서

1. -는다면서요?

(보기) 가 : 미선 씨가 신문사에 들어갔대요.

나 : 신문사는 들어가기 어렵다면서요?

가 : 이번엔 차를 바꾸려고 해요.

나 : 준영 씨 회사에서 나온 차가 성능이 좋다면서요?

가 : 길 건너에 있는 저 중국집 음식이 맛있대요.

나 : 그 집은 중국 사람이 직접 운영한다면서요?

가 : 수정 씨는 3개 국어를 할 수 있대요.

나 : 아버지가 외교관이라서 외국에서 오래 살았다면서요?

가 : 세계적으로 이상 기온이 나타나고 있대요.

나 : 어느 나라에서는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농작물에 피해가 많았다면서요?

가 : 요즘은 고기보다 야채나 과일의 소비가 늘고 있어요.

나 : 고기는 성인병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요?

2. -는 줄 알면서도 _____ .

(보기) 가 : 아이에게는 엄마가 꼭 필요해요.

나 : 엄마가 꼭 필요한 줄 알면서도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같이 지내지 못해요.

가 : 알면서 왜 얘기를 안 했어요?

나 : 모두들 궁금해 하는 줄 알면서도 확실하지 않아서 말을 못했어요.

가 : 여긴 주차 금지 구역이니까 차를 세우시면 안 돼요.

나 :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사정이 너무 급해서 잠깐 세웠어요.

가 : 어린이날엔 대공원이 복잡할 텐데요.

나 : 복잡한 줄 알면서도 아이들이 졸라서 할 수 없이 가기로 했어요.

가 : 시장에 가면 더 쌀 텐데요.

나 : 시장이 더 쌀 줄 알면서도 시간이 없어서 동네 가게에서 샀어요.

가 : 이렇게 늦은 시간에 웬 일이세요?

나 : 실례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어서 찾아 왔어요.

3. -라고 _____ .

(보기) 가 : 졸업생들이 책을 보냈다면서요?

나 : 후배들이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사 보냈대요.

가 : 결혼식 때 시부모님이 신부에게 밤, 대추를 던져 주는데 무슨 뜻이에요?

나 : 아들, 딸을 많이 낳으라고 던져 주는 옛 풍습이에요.

가 : 이 문은 왜 막아 놓으셨어요?

나 : 양쪽 문으로 드나들면 산만해서 한쪽 문만 사용하라고 막았어요.

가 : 벽에 붙여 놓은 게 뭐예요?

나 : 귀신이 들어 오지 말라고 할머니께서 붙여 놓으신 부적이에요.

가 : 정월 대보름에 왜 연을 날려 보내요?

나 : 액운이 사라지고 복이 찾아 오라고 날려 보내는 풍속이에요.

가 : 선생님 회사에서는 사원들에게 해외연수를 시킨다면서요?

나 : 외국에 나가서 경험의 폭을 넓히라고 그런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문화 해설

한국인의 자연관

과학이 발달하고 컴퓨터가 인간의 지식을 대신해 준다고 해도 영원히 밝혀 내기 힘든 일은 사람의 미래에 대한 예측이다. 우리 나라 사람은 예로부터 인간의 일들을 모두 자연에 속한 것으로 여겨 왔다. 그래서 자연의 현상이나 변화를 통해 사람의 일도 알아 내려 했다.

세계는 크게 동양과 서양으로 나뉜다.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동양의 문화와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양의 문화는 서로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이 많다. 우선 자연에 대한 생각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 서양에서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며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파악하고 모든 자연물을 마음대로 이용해야 한다고 여겼다.

반면 동양에서는 인간도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은 '조화'를 최우선으로 삼기 때문에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동양의 자연관은 우리 나라의 인생관에서 더욱 확실히 찾아 볼 수 있다. 우리 조상들은 사계절의 변화에서 인생의 네 단계, 즉 태어나고, 자라고, 결혼을 하여 자식을 기르고, 죽어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 들였다. 또 집을 지을 때에도 '산남수북(山南水北)'이라 하여 산을 등지고 강이 앞 쪽에 있는 곳을 좋은 곳으로 쳤다.

이는 단순한 '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나라의 자연환경을 생각해
서 내려진 올바른 결론이었다. 즉 겨울에 차가운 북풍은 뒤의 산이 막
아주고, 여름에 남쪽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은 쉽게 받아 들일 수
있는 곳에 집을 지어 추위를 막고 더위를 피하고자 한 것이다.

이 밖에도 모든 자연 현상을 관찰하고 거기에서 적절한 원리를 발견하
여 사람의 일에도 적용시키려 했다. 오늘날 우리가 미신이라 여기는 것
들도 실은 옛날의 문화 전통으로 보면 타당하고 합리적인 면이 있다.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달라지면서 우리의 생각도 달라지지만 아직도 근
본적인 것은 자연은 가장 위대한 스승이요, 그 자연에서 인간도 배우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야기해 봅시다.

아직도 그런 걸 믿으세요?

1. 무엇이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편이신가요?
2. 달에 갔다 온 후 종교를 갖게 된 우주 비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살아 가고 있는 현대인들도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자신의 행동이나 무의식적인 생각을 순간순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보는 작은 벌레를 보고 운세를 점쳐 본다든지 꿈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제 34 과

건강이 제일이다.

1. 건강한 몸

사람은 누구나 꿈을 가지고 산다. 자기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꿈, 남을 위해 봉사하려는 꿈,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꿈 등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꿈이 있다. 이 많은 꿈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는 꿈은 역시 부자가 되거나 출세하는 꿈이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조건을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옛부터 많은 사람들은 돈과 명예를 얻으려고 애써 왔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다 얻는다 해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돈이 있으면 뭐하고, 출세를 하면 뭐해요? 건강해야지요.” 이런 말들은 결국 건강이 무엇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말하는 건강이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의미한다.

육체적 건강은 날 때부터 타고난 사람도 있고 노력을 해서 얻는 사람도 있다. 마음의 건강은 건강한 몸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대기오염이나 유해식품들,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의 생활... 이런 여건 속에서 건강을 지키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2. 체력 단련

영희엄마 : 저분들은 아까부터 무슨 이야기를 저렇게 열심히들 하시지요?

순희엄마 : 저 나이의 친구분들이 모였다 하면 으레 건강에 대한 얘기지요.

영희엄마 : 하긴 나이가 들수록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주위 사람들이 쓰러지는 걸 보면요.

순희엄마 : 그러니까 너무 일만 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 체력 단련을 하는 게 필요해요.

영희엄마 : 물론이에요. 건강을 잃은 후에 출세를 하면 뭘 해요?

순희엄마 : 그렇다고 너무 건강 건강하고 사는 것도 보기 안 좋던데요.

3. 장수 마을

김 선생 : 세계적으로 장수 마을이 산골이나 바닷가 근처에 있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나 까 : 의식주만을 생각한다면 도시 사람들이 훨씬 더 오래 살 것 같은데 말이에요.

김 선생 : 그러니까 사람들의 수명은 문명이나 좋은 생활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다 나 까 : 그래요,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근심 걱정 없이 자연 그대로 사는 게 제일이에요.

김 선생 : 거기에 비하면 도시 생활은 공해 속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니 건강을 바랄 수가 있겠어요?

다 나 까 : 말이 나온 김에 장수 마을 한 번 가 보는 게 어때요? 누가 알아요? 갔다 오면 우리도 오래 살게 될지요.

4. 음식

김 선생 : 언제나 건강해 보이시는데 뭐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으세요?

이 선생 : 전 음식은 가리지 않고 다 잘 먹어요. 그리고 아무리 맛 있는 음식이라도 과식은 안 해요.

김 선생 :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되어야지요. 바쁘면 굶고 입에 맞는 음식이 있으면 막 먹게 되어서요.

이 선생 : 음식 조절을 하지 못한다면 건강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김 선생 : 그러니까 저처럼 불규칙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건강하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이겠네요.

이 선생 : 그래도 어른들 말씀이 밥 잘 먹고 잠 잘 자는 게 보약보다 낫다고 하셨지요.

5. 마음

김 선생 : 어떻게 그렇게 항상 즐거우세요? 한 번도 쟁그리거나 화내시는 걸 본 일이 없어요.

이 선생 : 기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 있으니 기쁘고, 일할 수 있으니 기쁘지 않습니까?

김 선생 : 살아 가는 데 아무 어려움도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모든 일이 마음대로 안 되어서 짜증만 나는데요.

이 선생 : 세상만사는 다 마음먹기에 달렸답니다. 같은 일이라도 하기 싫다고 생각하면 힘들고, 웃으면서 하면 쉬운 법이에요.

김 선생 : 그래서 그런지 항상 젊어 보이세요.

이 선생 : 소문만복래라고 웃으면서 살아야지요.

소음

어휘와 문법

1. 건강한 몸

1. **실현** : 꿈 이상 등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실제로 이룸.

꿈을 실현했다. 실현 불가능한 일.

인간이 우주 여행을 하는 것은 실현될 수 없는 꿈이라고 생각했었다.

2. **헌신** : 다른 사람이나 일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침.

헌신했다. 헌신적이다.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것보다 값진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많다.

3. **-고자 하다** : 동작동사와 결합하여 문장 주어의 의도를 나타낼 때 쓴다. 상태동사와 결합하지 못하며 시제를 나타내는 '-었'이나 '-겠'과 결합하지 못한다. 또한, 사람이나 동물 등을 주어로 할 때만 자연스러우며, 후행문에는 명령형, 청유형의 종결어미가 올 수 없다.

예 :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국의 경제 전망에 관한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얻고자 노력하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여러 문화 유적지를 돌아 보고자 했지만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동양 역사에 대해 좀 살펴 보고자 합니다.

작품 사진을 좀 찍고자 동해안으로 여행을 떠날까 합니다.

4. **역시** : 전에 생각하고 기대했던 대로.

일을 잘 처리하더니 이번에도 역시 잘 했다.

듣던 대로 한국의 여름은 역시 덥구나.

5. **출세** :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지거나 유명해짐.

출세한 사람. 출세작

출세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도 있다.

6. **명예** : 세상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좋은 평가와 이에 따르는 영광.

명예롭다. 명예 교수.

그 학생은 전국 체육 대회에서 1등을 해서 학교의 명예를 빛냈다.

7. **얻다** : 주는 것을 받아 가지다.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많다.

이 텔레비전은 산 것이 아니고 친구한테서 공짜로 얻은 것이다.

8. **애쓰다** : 마음과 힘을 다해서 일을 하다.

애써 웃음 지었다.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을 설득하려고 애썼다.

9. **소용** : 쓸 데. 무엇에 쓰임.

소용이 없다.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도와 주겠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10. **결국** : 끝에 이르러서. 결과를 말하거나 이야기의 결론을 내릴 때 쓰는 부사.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11. **가치가 있다** : 의미가 있고 귀중하다.

가치가 있는 인생. 작품의 예술적 가치. 가치관.

학교의 역사를 책으로 내는 것은 가치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12. **건강한 몸에서 비롯되다** : '비롯되다'는 어떤 일의 시작이 된다는 뜻이다.

건전한 정신은 건강한 몸에서 비롯된다.

13. **여간** : 부사로서 부정문에 쓰여 '아주 그렇다'는 뜻을 나타낸다.

김장철이어서 배추가 여간 비싸지 않다.

훌륭한 대통령이 되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2. 체력 단련

1. **체력** : 몸의 힘.

체력이 떨어진다. 체력 검사.

체력은 국력이라고 해서 학교마다 체육 시간을 중시하던 때가 있었다.

2. **단련** : 훈련을 해서 튼튼하게 되거나 익숙해짐.

단련한다. 단련시킨다.

이젠 단련이 되어서 아침에 아무리 일찍 일어나도 힘들지 않다.

3. **아까** : 오늘 중 조금 전에.

그 일은 벌써 아까 다 끝냈다.

4. **-는다 하면** _____ : '-는다고 하면'의 준말로 선행문과 같은 조건 아래서는 으레 후행문의 내용과 같은 일이 따른다는 뜻을 나타낼 때 쓰인다.

예 : 그 학생은 시험만 본다 하면 꼭 밤새워 공부해요.

비가 좀 많이 왔다 하면 이 지역은 피해가 커요.

그 아이는 울기 시작했다 하면 그칠 줄 몰라요.

휴가를 간다 하면 요즘에는 해외로 가는 것 같아.

그 사람은 술을 마셨다 하면 주정을 해요.

5. 하긴 : 자신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인데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맞다는 생각이 들 때 쓰는 부사.

피곤한 모양이군요. 하긴 그렇게 힘든 일을 했으니 지쳤을 거예요.

6. 관리하다 :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보살피거나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하다.
관리하는 사람. 관리 사무소.

운동 선수들은 규칙적인 운동으로 체력을 관리해야 한다.

7. 쓰러지다 : 중심을 잃고 한 쪽으로 넘어지다.

태풍으로 쓰러진 나무.

40대의 회사원들 중에는 과로로 쓰러지는 사람이 많대요.

8. -(으)ㄹ 것이 아니라 _____ : 동작동사와 결합하여 쓰이며, 선행문에서 언급한 사실을 부정하여, '-지 말고'의 뜻을 나타낸다. 후행문에서는 명령형이나 청유형의 종결어미를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예 :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집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산이나 바다로 갑시다.

교실에서만 공부할 것이 아니라 야외 수업을 하는 것이 어때요?

우리끼리만 갈 것이 아니라 선생님도 같이 가시자고 합시다.

고기만 먹을 것이 아니라 채식을 하는 것이 어때요?

그분의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 보세요.

남만 탓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잘못도 생각해 보십시오.

9. 평소 : 보통 때.

평소에 잘 먹는 음식. 평소 성적.

긴장하지 말고 평소처럼 하시면 문제없이 합격할 수 있습니다.

3. 장수 마을

1. 장수 : 오래 사는 것.

장수했다. 장수 마을.

우리 할아버지는 90세까지 장수하셨다.

2. 산골 : 깊은 산속 마을.

꽃 피는 산골.

그 마을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산골이다.

3. 수명 : 사람이 죽거나 물건을 못 쓰게 될 때까지의 시간.

평균 수명. 기계의 수명.

의약품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길어져서 노인 인구가 늘었다.

4. 영향 :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힘이 다른 것에 미치는 결과.

영향을 미친다. 영향력.

태풍의 영향으로 농작물의 피해가 심하다.

5. -는 김에 ____ : 동작동사에 붙어서 쓰이며 선행 동작을 하는 동안에 그 기회를 이용하여 후행문에서 어떤 행위를 하려는 뜻을 나타낼 때 쓰는 연결어미이다.

예 : 한국말을 배우는 김에 한국 문화도 연구해 볼까 해요.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속담이 있어요.

일어선 김에 문 좀 닫아 주시겠어요?

말이 나온 김에 터 놓고 얘기 합시다.

친구의 생일 선물을 사는 김에 내 것도 하나 사 왔어.

6. 누가 알아요 : 혹시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하는 말.

누가 알아요? 게으름뱅이 영수가 일찍 올지...

4. 음식

1. **비결** : 숨겨 놓고 혼자만 쓰는 비밀스러운 방법.

장수의 비결. 젊어지는 비결.

피부가 참 고우신데 비결 좀 가르쳐 주세요.

2. **가리다** : 여럿 가운데서 구별해 내다.

음식을 가려 먹는다. 낮을 가린다.

영수씨는 요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3. **아무리 -라도** _____ : '아무리 -라고 해도'의 준말로 가정의 뜻이 들어있는 양보구분이다.

예 : 아무리 어른이라도 어린이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가까운 부부사이라도 예의를 지켜야 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해낼 수 있어요.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도 노력하지 않으면 뒤떨어지는 법이죠.

아무리 남의 것이라도 아낄 줄 알아야지.

4. **막** : 조심하지 않고 함부로. 한번에 많이.

말을 막 한다. 비가 막 온다.

그 애는 몹시 화가 나서 책상 위의 물건들을 막 던졌다.

5. **조절하다** : 사물을 어느 정도에 맞추어서 알맞게 하다.

체중 조절. 조절 기능.

이 에어컨은 방안의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한다.

6. **불규칙하다** : 정해진 방법이나 순서를 따르지 않다.

불규칙한 식사 습관. 불규칙적이다.

그 사람은 귀가시간이 불규칙해서 오늘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다.

7. **당연하다** : 누구든지 그렇다고 생각하다.

당연한 일. 당연히.

일을 한 만큼 돈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5. **마음**

1. **찡그리다** : 아프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표정을 얼굴에 나타내다.

찡그린 표정. 찡푸린다.

찡그린 얼굴보다 웃는 얼굴이 예쁘다.

2. **-니 -고, -니 _____** : 두 가지의 상반된 행위를 함으로써 나타나는 상반된 결과를 나란히 보일 때 쓴다. 그러나 반드시 상반된 의미의 동작동사가 아니더라도 앞 행위와 다른 의미의 동작동사가 쓰일 때도 있다.

예 : 결혼을 하려고 하니 자유가 없어지는 것 같고 혼자 살려고 하니 외로울 것 같아요.

치마를 입으니 불편하고 바지를 입으니 예의가 없어 보일 것 같아요.

아파트에서 살려고 하니 답답하고 단독 주택에서 살려고 하니 불편한 점이 많아요.

대학 진학을 하려고 하니 가정 형편이 어렵고 취직을 하려고 하니 공부에 미련이 많아요.

문을 여니 시끄럽고 닫으니 덥구나.

3. **짜증나다** : 마음에 들지 않아서 화가 나다.

짜증을 부린다. 짜증을 냈다.

너무 더워서 짜증이 난다.

4. 세상만사 : 세상의 모든 일.

세상만사는 하늘의 뜻이다.

5. 마음먹기에 달렸다 : '마음먹다'는 '결심하다'를 뜻하며 이 말은 마음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뜻이다.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6. 소문만복래 : 웃으면 복이 온다는 뜻의 한자성어이다.

'소문만복래'라고 늘 웃는 사람에게 행운이 옵니다.

문해 연습

1. 건강한 몸

1. -고자 하다.

(보기) 가 : 어떻게 오셨어요?

나 : 김 선생님을 좀 뵙고자 합니다.

가 : 언제쯤 실험 결과가 나오니까?

나 : 이번 주말까지 자료를 분석해서 다음 주 초에 결과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가 : 신입생 환영회를 어디서 하기로 했어요?

나 : 선배들과 의논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가 : 왜 정치학과를 지망하셨어요?

나 : 한국 근대 정치사를 연구해 보고자 해서 지원했습니다.

가 : 늦은 밤에 웬 일로 전화하셨어요?

나 : 회의가 연기된 것을 알려 드리고자 해서 전화했습니다.

가 : 왜 설문 조사를 해요?

나 : 신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을 알아 보고자 해서요.

2. -는다 해도 -면 무슨 _____ ?

(보기) 가 : 피곤해 보이는데 많이 쉬어야겠어요.

나 : 많이 쉬다 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가 : 진희는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시험에 떨어졌대요.

나 : 노력을 한다 해도 결과가 나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가 : 인삼을 많이 먹었는데도 별 효과가 없어요.

나 : 인삼이 건강에 좋다 해도 체질에 맞지 않으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가 : 그 시대는 자유롭지는 못했지만 경제적으로는 가장 많이 발전한 시기였어요.

나 : 아무리 경제가 발전했다 해도 자유가 없는 사회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가 : 한번 더 대화를 시도해 봅시다.

나 : 우리 쪽에서 대화를 시도한다 해도 상대방에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무슨 성과가 있겠어요?

가 : 김 과장님은 일하는 것에 비해서 인정을 못 받는 편이에요.

나 : 회사일을 열심히 한다 해도 상사나 동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무슨 보람이 있겠어요?

3. -면 뭐하고 -면 뭐해요?

(보기) 가 : 영식 씨는 정말 멋있어요.

나 : 성격이 나쁜데 멋있으면 뭐하고 얼굴이 잘 생기면 뭐해요?

가 : 저는 미경 씨가 마음에 들어요.

나 : 벌써 결혼한 사람인데 마음에 들면 뭐하고 좋아하면 뭐해요?

가 : 그분은 요즘 사업이 잘 되어서 좋겠어요.

나 :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는데 사업이 잘 되면 뭐하고 돈이 많으면 뭐해요?

가 : 시험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더라면 좋았을걸.

나 : 이미 시험이 끝났는데 후회하면 뭐하고 남을 탓하면 뭐해요?

가 : 친구가 많아서 좋겠어요.

나 : 정말 어려울 때 도와 주는 사람이 없는데 평소에 친구가 많으면 뭐하고 인기가 많으면 뭐해요?

가 : 그분의 한국말은 정말 정확하더군요.

나 : 한국 문화에 대해서 낯 놓고 ‘ㄱ’자도 모르는데 문법을 잘 알면 뭐하고
발음이 좋으면 뭐해요?

4. -기란 여간 _____ .

(보기) 가 : 차 선생님은 아직 결혼 상대자를 못 찾았나 봐요.

나 : 자기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을 찾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가 : 이번 졸업식에서 학생들이 많이 울었대요.

나 : 정든 친구들과 헤어지기란 여간 섭섭한 일이 아닐 거예요.

가 : 오늘 아침 지하철에선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나 : 복잡한 시간에 지하철을 타기란 여간 괴로운 일이 아니예요.

가 :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단어가 잘 안 외워져요.

나 : 나이가 들어서 외국어를 배우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가 : 서울은 인구 집중으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나 : 대도시의 인구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예요.

가 : 은미 씨의 자동차를 빌렸는데 정말 신경이 쓰이네요.

나 : 남의 물건을 빌려 쓰기란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지요.

2. 체력 단련

1. -었다 하면 으레 _____ .

(보기) 가 : 아까 전화를 했는데 계속 통화 중이더군요.

나 : 우리집 양반은 전화를 했다 하면 으레 한두 시간이에요.

가 : 저기 두 사람이 싸우는 것 같은데요.

나 : 그 두 사람은 만났다 하면 으레 언성을 높이고 싸워요.

가 : 진경 씨가 또 100점을 받았대요.

나 : 진경 씨는 시험만 봤다 하면 으레 100점을 받아요.

가 : 학생들이 선생님 얘기를 많이 하나 봐요.

나 : 학생들은 모였다 하면 으레 선생님이 화제예요.

가 : 어제 술자리에서 장 선생님의 어린 시절 얘기를 들었어요.

나 : 그분은 술만 마셨다 하면 으레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요.

가 : 여자들은 물건 사기를 좋아하지요.

나 : 우리 집사람은 백화점에 갔다 하면 으레 뭔가 한 보따리씩 사 와요.

2. -(으)ㄴ수록 -어야 할 것 같다.

(보기) 가 : 급할 때는 실수가 많아져요.

나 : 급할수록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할 것 같아요.

가 : 이 옷은 저에게 좀 야하지 않아요?

나 : 나이가 들수록 밝은 색을 입어야 할 것 같아요.

가 : 김 부장은 승진을 하더니 거만해진 것 같아요.

나 : 지위가 높을수록 겸손하게 행동해야 할 것 같아요.

가 : 4급에 올라오니깐 단어가 많아졌어요.

나 : 배우는 것이 많을수록 복습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가 : 그분의 외동 아들은 버릇이 없어요.

나 : 자식이 귀할수록 엄하게 가르쳐야 할 것 같아요.

가 : 지난 번에 제가 말실수를 해서 친구의 기분을 상하게 했어요.

나 : 친한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키고 말조심을 해야 할 것 같아요.

3. -어야 할 것 같아요. -는 걸 보면요.

(보기) 가 : 먹구름이 끼었네요.

나 : 우산을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날씨가 흐린 걸 보면요.

가 : 좀 살이 찌신 것 같아요.

나 : 운동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체중이 점점 느는 걸 보면요.

가 : 박 선생님이 혼자 애쓰고 계시던데요.

나 : 우리가 좀 도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혼자 힘들어 하시는 걸 보면요.

가 : 소문 때문에 이 선생님이 괴로워하고 있대요.

나 : 늘 말조심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생기는 걸 보면요.

가 : 순영 씨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후회가 많이 된대요.

나 :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좀 더 효도해야 할 것 같아요. 돌아가신 후에 후회하는 걸 보면요.

가 : 민우 씨가 지갑을 잃어 버렸대요.

나 : 우리 모두 소지품을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요즘 도난 사고가 잦은 걸 보면요.

4. -(으)ㄹ 것이 아니라 _____ .

(보기) 가 : 지하철역이 머니까 버스를 탑시다.

나 : 길이 막히는데 버스를 탈 것이 아니라 지하철을 탑시다.

가 : 공부할 것이 많아서 스트레스가 쌓여요.

나 : 방안에 앉아서 공부만 할 것이 아니라 가끔씩 기분 전환을 하세요.

가 : 그분의 생각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 : 사고 방식이 다르다고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가 : 다 아니까 따로 연습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나 : 다 안다고 자만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해요.

가 : 제 생각은 여러분의 의견과 다른데요.

나 : 각자 자기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회의를 합시다.

가 : 설거지하기도 귀찮은데 일회용 컵을 쓰지요.

나 : 쓰레기 문제도 심각한데 일회용 컵을 쓸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컵을 준비하도록 해요.

5. -(으)ㄴ 후에 -면 뭘 해요?

(보기) 가 : 선풍기를 한 대 살까 해요.

나 : 여름이 다 지난 후에 선풍기를 사면 뭘 해요?

가 : 그 땐 제 말이 너무 지나쳤던 것 같아요.

나 : 실수한 후에 잘못했다고 후회하면 뭘 해요?

가 : 부모님께 좀 더 잘 해 드릴걸.

나 :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효도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 뭘 해요?

가 : 좀 더 열심히 준비했다라면 입사 시험에 당연히 합격했을 텐데.

나 : 버스가 지나간 후에 손을 들면 뭘 해요?

가 : 이번 회의 결과엔 찬성할 수 없어요.

나 : 이미 결정된 후에 반대하면 뭘 해요?

가 : 강도 사건 후에 그 은행은 경비가 철저해졌대요.

나 : 소를 잃어버린 후에 외양간을 고치면 뭘 해요?

3. 장수 마을

1. -(으)ㄴ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은가 봐요.

(보기) 가 : 상우 씨 부부는 오늘 또 싸운 것 같아요.

나 : 두 사람의 성격이 잘 맞을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은가 봐요.

가 : 스미스 씨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대요.

나 : 겉으로 보기엔 돈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은가 봐요.

가 : 시장 물건도 비싸더군요.

나 : 시장이 백화점보다 싼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은가 봐요.

가 : 김 과장님은 성실하신데 이번에도 승진을 못하셨대요.

나 : 성실한 사람이 출세할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은가 봐요.

가 : 철수 씨는 경제적으로는 넉넉해 보이는데 웃는 얼굴을 못 봤어요.

나 :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은가 봐요.

가 : 이 선생님은 아이 둘 잔치를 호텔에서 한다지요?

나 : 호텔에서 하면 아주 비쌀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은가 봐요.

2. -에 비하면

(보기) 가 : 일이 힘들지 않으세요?

나 : 다나까 씨의 일에 비하면 제 일은 누워서 떡 먹기예요.

가 : 그 회사가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대요.

나 : 그 회사에 비하면 우리 회사는 재정이 튼튼한 편이죠.

가 : 이번 회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나 : 지난 번 회의에 비하면 이번 회의는 성과가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가 : 창수 씨는 요즘 아주 여유가 있어 보여요.

나 : 입사 초기에 비하면 요즘은 정신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지요.

가 : 서울은 인구 집중 문제가 심각해요.

나 : 면적에 비하면 인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가 : 이번에 새로 사신 자동차가 어때요?

나 : 값에 비하면 성능이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3. -는 김에

(보기) 가 : 우체국에 가는 길인데요.

나 : 우체국 가시는 김에 제 편지도 좀 부쳐 주세요.

가 : 웬 선물입니까?

나 : 제 것을 사는 김에 선생님 것도 하나 샀어요.

가 : 한국말 공부 이외에 다른 계획이 있으세요?

나 : 한국말을 배우는 김에 한국 역사에 대해서도 공부하려고 합니다.

가 : 어제 친구를 만나셨다고요?

나 : 시내에 나간 김에 친구 사무실에 잠깐 들렀어요.

가 : 오랜만에 모두 만나니까 반갑군요.

나 : 모두 한 자리에 모인 김에 기념 사진을 한 장 찍읍시다.

가 : 여기 공중전화기에 돈이 남아 있네요.

나 :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속담도 있는데 친구한테 전화나 합시다.

4. 말이 나온 김에 _____ .

(보기) 가 : 지금 신촌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영화가 아주 재미있대요.

나 : 말이 나온 김에 오늘 보러 갑시다.

가 : 자동차가 자꾸 고장이 나서 짜증이 나요.

나 : 말이 나온 김에 새 차로 바꾸는 게 어때요?

가 : 요즘 날씨도 좋은데 놀러 갔으면 좋겠어요.

나 : 말이 나온 김에 야유회 계획이나 세워 봅시다.

가 : 요즘 운전 면허증이 필수라는데 저는 아직 따지 못했어요.

나 : 말이 나온 김에 운전 학원에 등록하시지요.

가 : 삼계탕이 참 맛있던데.

나 : 말이 나온 김에 같이 먹으러 갈까요?

가 : 지난 번엔 좀 섭섭했어요.

나 : 말이 나온 김에 서로 불만이 있으면 말해 봅시다.

5. 누가 알아요? -(으)ㄹ 지요.

(보기) 가 : 매주 복권을 사시네요.

나 : 누가 알아요? 운 좋게 1등에 당첨될지요.

가 : 요즘 증권 시세가 좋지 않는데 왜 증권에 투자하세요?

나 : 누가 알아요? 갑자기 주식값이 오를지요.

가 : 최 선생님께는 부탁하지 마세요.

나 : 누가 알아요? 쉽게 부탁을 들어 주실지요.

가 : 승훈이는 말썽꾸러기래요.

나 : 누가 알아요? 그런 아이가 훌륭한 사람이 될지요.

가 : 못 입는 옷은 버리세요.

나 : 누가 알아요? 잘 활용하면 쓸모가 있을지요.

가 : 그 두 사람은 성격이 아주 다른 것 같은데도 잘 지내요.

나 : 누가 알아요? 서로 다른 성격이 잘 맞을지.

4. 음식

1. -는데 뭐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으세요?

(보기) 가 : 김 선생님도 좋다고 하셨어요.

나 : 반대하시던 분의 허락을 받으셨는데 뭐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으세요?

가 : 저 살이 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나 : 많이 날씬해졌는데 뭐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으세요?

가 : 제가 올해 쉰 살이에요.

나 :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이시는데 뭐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으세요?

가 : 이번 시험 성적도 만족스럽게 나왔어요.

나 : 늘 시험 성적이 좋으신데 뭐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으세요?

가 : 내일도 데이트 약속이 있어요.

나 : 여자들에게 인기가 좋으신데 뭐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으세요?

가 : 음식이 입에 맞으셨는지 모르겠군요.

나 : 음식을 맛있게 만드시는데 뭐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으세요?

2. 아무리 -라도 _____ .

(보기) 가 : 이 회의에 어린 아이들은 참석시키지 않는 게 좋겠어요.

나 : 아무리 어린 아이라도 의견을 한번 들어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가 : 영식 씨는 친구들한테 말을 함부로 하는 것 같아요.

나 :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죠.

가 : 박 선생님이 안 계시는데 이 라디오를 틀어도 될까요?

나 : 아무리 작은 물건이라도 허락없이 남의 것에 손대면 안 돼요.

가 : 민 선생님께 좀 심한 농담을 했는데 괜찮을까요?

나 : 아무리 마음이 넓은 분이라도 그렇게 예의없이 행동하면 안 되죠.

가 : 위장병엔 이 약이 좋대요.

나 :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의사의 처방없이 먹으면 안 돼요.

가 : 급한 일인데 제가 먼저 하면 안 될까요?

나 :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순서를 지키세요.

3. -면 -고 -면 _____ .

(보기) 가 : 누가 잘못된 것 같아요?

나 : 이쪽 말을 들으면 이쪽 말이 맞는 것 같고 저쪽 말을 들으면 저쪽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가 : 먹고 싶다고 하면서 왜 안 드세요?

나 :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먹으면 통 소화가 안 돼요.

가 :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적당한데 왜 더 큰 집을 원하세요?

나 : 사람의 욕심이란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갖고 싶고 둘을 가지면 셋을 갖고 싶은 거예요.

가 : 아들을 낳고 싶으세요? 딸을 낳고 싶으세요?

나 : 귀여운 사내 아이를 보면 아들을 낳고 싶고 감쪽한 여자 아이를 보면 딸을 낳고 싶어요.

가 : 결혼 계획 없어요?

나 : 좋은 사람이 생기면 결혼을 하고 맞는 사람이 없으면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가 : 아파트가 좋을까요? 단독주택이 좋을까요?

나 : 아파트에 살면 관리하기가 쉽고 단독주택에 살면 독립성이 있어서 좋지요.

4. -는 게 -보다 낫다고 했나 봐요.

(보기) 가 : 존슨 씨는 말을 잘 하는데 왜 1급부터 시작하신대요?

나 : 선생님께서 기초부터 철저히 하는 게 빨리 진급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나 봐요.

가 : 유럽 여행은 단체 관광이 편할 텐데 스즈끼 씨는 왜 그렇게 안 한대요?

나 : 갔다 온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가는 게 단체로 가는 것보다 더 낫다고 했나 봐요.

가 : 명수 씨는 어머니 환갑 잔치를 왜 집에서 한대요?

나 : 어머님께서 집에서 가족끼리 간소하게 하는 게 밖에서 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셨나 봐요.

가 : 아버님께서 몸도 안 좋으신데 왜 아침마다 운동을 하세요?

나 : 의사 선생님이 조금씩 움직이는 게 가만히 있는 것보다 더 낫다고 하셨나 봐요.

가 : 그 일은 한 사람이 다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나 : 부장님께서 작은 일도 나누어서 하는 게 한 사람이 도맡아서 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셨나 봐요.

가 : 조금만 고치면 될 텐데 왜 집을 다시 짓는대요?

나 : 어른들께서 새로 집을 짓는 게 여기 저기 수리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하셨나 봐요.

5. 마음

1. -니 -고 -니 _____ .

(보기) 가 : 은영 씨는 늘 행복해 보여요.

나 : 가족이 모두 건강하니 다행이고 할 일이 있으니 즐겁잖아요.

가 : 그 반 분위기가 어때요?

나 : 여러 나라 사람이 모여 있으니 배울 것도 많고 서로를 위해 주니 분위기도 좋아요.

가 : 장사가 잘 될까요?

나 : 위치가 좋으니 손님이 많을 것 같고 종업원들도 친절하니 단골 손님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가 : 복잡할 텐데 왜 시내에다가 집을 얻으셨어요?

나 : 회사가 가까우니 시간이 절약되고 상가가 발달되어 있으니 생활도 편리해요.

가 : 자기 일인데 왜 빨리 결정하지 못해요?

나 : 부모님 말씀을 따르려고 생각하니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제 마음대로 하려고 생각하니 부모님이 마음에 걸려요.

가 : 대가족 제도의 장점이 뭘까요?

나 :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니 아이들 교육에 좋고 식구가 많으니 외롭지 않아서 좋잖아요.

2. -기에 달려 있다.

(보기) 가 : 신제품이 얼마나 팔릴까요?

나 : 광고하기에 달려 있지요.

가 : 자동차 10부제 운행이 제대로 될까요?

나 :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에 달려 있어요.

가 : 이번 일이 잘 될까요?

나 : 이번 일의 성공 여부는 우리들이 노력하기에 달려 있어요.

가 : 새 계획안이 회의에서 통과될까요?

나 : 통과 여부는 과장님이 임원들을 설득하기에 달려 있어요.

가 : 어떻게 하면 경제가 회복될까요?

나 : 경제 회복은 정부가 이끌어 나가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가 : 직장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병행할 수 있을까?

나 : 그거야 마음먹기에 달려 있지요.

3. -는다고 _____ .

(보기) 가 : 무엇부터 할까요?

나 :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식사부터 합시다.

가 : 말로만 듣던 유럽에 가 보니까 정말 좋더군요.

나 :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가 보는 게 좋지요.

가 : 우리끼리 한 이야기인데 순영 씨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나 :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고 말조심을 해야 해요.

가 : 존슨 씨는 좀 안다고 너무 나서는 것 같아요.

나 :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배운 사람일수록 겸손해야지요.

가 : 아이들은 보이는 대로 따라 하는 것 같아요.

나 :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어른들이 모범을 보여야지요.

가 : 이젠 지쳐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나 :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조금만 참고 견디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문화 해설

오복(五福)이야기

사람이 살면서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행복일까?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대답이 다를 것이다. 유교 전통을 지켜오던 우리 나라 사람들은 옛부터 오복(五福)이라 하여 다섯 가지를 꼽았다.

첫째는 '수(壽)'라 하여 오래 사는 것을 제일로 쳤다. 병이나 사고로 일찍 죽지 않고 장수하는 것을 모든 복의 처음으로 여겼다.

둘째는 '부(富)'로 부유하고 풍족하게 살기를 바랐다.

셋째가 '강녕(康寧)'으로 일생동안 건강하게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넷째가 '유호덕(攸好德)'으로 이웃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보람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고종명(考終命)'은 다른 곳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일생을 마치는 것이다.

이 다섯 가지를 살펴보면 역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제일 중요하고 가치있는 것으로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이야기해 봅시다.

건강이 제일이다.

1. '돈을 잃으면 한 가지를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평소 건강을 위해 특별히 하는 일이 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2.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마음과 몸이 모두 건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둘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다음 제목 중 하나를 골라 건강과 연결시켜 이야기해 봅시다.
 - 1) 건강식품
 - 2) 스트레스
 - 3) 유해식품
 - 4) 환경오염

제 35 과

그것 참 좋은 생각이군요.

1. 배우면서 산다.

“이 세상에는 단 하루도 아무런 문제에 부딪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은 어떤 아버지가 괴로워하는 아들을 위로하면서 한 말이다. 이보다 더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이 또 있을까?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문제든 문제를 가지고 산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문제 때문에 걱정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다.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대화이다.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생각을 듣고 지혜도 얻고 방법도 배울 수 있다. 대화의 상대는 누구라도 좋다. 나이가 많건 적건, 학식이 있건 없건, 지위가 높건 낮건 상관없다. 옛말에 여든 살이 된 할머니라도 세 살짜리 손자한테서 배울 것이 있다고 했다. 때로는 동물에게서도 해답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다음의 이야기는 바로 그 예이다.

옛날 우리 나라에서는 조선시대에 해마다 동짓달에 중국에 사신을 보냈었다. 그런데 언제나 동짓달에 보냈기 때문에 이 사신을 동지사라고 했다. 이 동지사 일행이 중국에서 임무를 마치고 다시 우리 나라로 되돌아 오는 길에 어느 산중에서 길을 잃어 버리고 말았다. 중국으로 갈

때에는 동짓달이었으므로 나뭇잎이 다 떨어져 앙상하게 가지만 남아 있을 때라 길이 어디서나 환하게 보였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여름에는 나뭇잎이 무성해져 산을 다 덮어 버려서 어디가 어딘지를 알 수가 없었다. 동지사는 일행들을 모아 놓고 어떻게 하면 길을 찾을 수 있는가를 의논하였다. 그 때 한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가 타고 가는 이 말들을 앞장 서게 하면 틀림없이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했다. 그 말대로 했더니 과연 말들은 다니던 길을 쉽게 찾아 갔다는 이야기다.

2. 수학 여행

철 수 : 수학여행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의견들을 나누었으면 해요.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영 미 : 제 생각에는 먼저 책임 맡으신 분의 이야기부터 들어 보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요.

철 수 : 그러지요. 그 동안 제가 알아 보니까 처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교통비와 숙박비가 많이 들 것 같아요.

영 미 : 교통편은 밤 기차를 이용하면 숙박비를 좀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요?

철 수 :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 이번 여행은 수학여행이니만큼 가고 오는 길에 유적지들을 많이 보려고 해요. 그러자면 버스편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영 미 : 그러면 두 가지 의견을 절충해서 다시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지요.

3. 구경

존 슨 : 전 오늘 오후에 남원에 좀 가려고 해요. 내일부터 남원 민속제가 열리거든요.

김 선생 : 그렇군요. 모레가 단오니까 오늘쯤 내려가시면 구경거리가 많을 겁니다.

존 슨 : 민속학을 연구하는 저한테는 더할 수 없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김 선생 : 혹시 어떤 민속놀이는 외국인들 보기에 미신적이거나 좀 이상하게 보이지는 않던가요?

존 슨 : 민속은 옛날 그대로 있어야 그 가치가 있다고 봐요. 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이번 기회에 민박까지 하려는걸요.

김 선생 :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요. 나도 한번 직접 가서 본다 본다 하는 것이 아직 못 보았어요.

4. 송별회

철 수 : 이번 금요일 오후에 시간이 어떠세요? 영미 씨가 사정이 있어서 일찍 귀국해야 한답니다.

숙 회 : 그래요? 그럼 친구들끼리 송별회라도 해야지 그냥 헤어질 순 없지요.

철 수 : 그래서 다른 친구들하고도 이야기해 보았는데 모두 찬성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숙 희 : 재료를 사 가지고 우리 집에 가서 해 먹는 게 어때요?

철 수 : 재미는 있겠지만 너무 번거로울 것 같은데요. 각자가 먹을 것이든 마실 것이든 한 가지씩 가져오면 어떻습니까?

숙 희 :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그럼 여자들은 음식을, 남자들은 마실 것과 과일을 준비하면 되겠네요.

5. 등산 계획

다 나 까 : 이번 공휴일엔 등산이나 갔으면 하는데 하루에 다녀올 만한 곳이 없습니까?

김 선 생 : 좋은 산이야 많지만 등산을 어떻게 하시려군요?
걸어서 올라가실 건지 바위도 타실 건지요?

다 나 까 : 그렇게 험한 산은 말고요. 운동도 되고 기분 전환도 될 만한 곳이면 돼요.

김 선 생 : 서울 근교에 있는 산으로는... 그렇지, 북한산으로 올라가서 백운대를 넘어 도봉산으로 내려오는 것이 하루 거리로는 그만일 거예요.

다 나 까 : 그러면 하루에 북한산과 도봉산을 다 볼 수가 있겠군요. 그것 참 좋은 생각이네요. 그런데 저같은 사람도 갈 수 있는 길이지요.

김 선 생 : 물론이지요. 그런데 옷차림이나 짐은 될 수 있는 대로 간편하게 하셔야 해요.

어휘와 문법

1. 배우면서 산다.

1. **부닥치다** : 몸에 부딪힐 정도로 가까워지다. 고난, 어려움 등을 당하다.
난관에 부닥쳤다.

사업을 하던 그 사람은 요즘 자금 문제로 큰 어려움에 부닥쳤다.

2. **괴롭다** : 마음이나 몸에 아픔을 느끼다.
마음이 괴롭다. 괴로운 나날들. 괴롭히다. 괴로워한다.

밤새 두통으로 한잠도 못 자고 괴로웠다.

3. **위로하다** : 괴로움이나 슬픔을 당한 사람을 따뜻한 말로 편하게 해 주다.
위로의 말. 위로금.

사업에 실패해서 기운을 잃은 친구를 위로했다.

4. **용기** : 무서워하거나 겁내지 않는 씩씩한 마음.
용기를 냈다. 용기있는 사람.

어려운 때일수록 용기를 잃지 마세요.

5. **낙심** :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상함.
낙심했다.

졌다고 낙심하지 말고 용기있게 나아가자.

6. -건 -건 ____ : ‘-건’은 동사에 붙어서 쓰이며 ‘-거나’의 준말로써, 앞뒤 비교 가능한 내용이나 상대적인 내용을 나열하여 궁극적으로는 같은 결과를 초래함을 나타낼 때 쓴다.

예 : 돈이 있건 없건 어떤 생활관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해요.

남자건 여자건 결혼 문제를 결정할 땐 신중하게 결정해야죠.

밋건 곱건 그는 우리 친구잖아요? 좀 도와 줍시다.

예습을 하건 복습을 하건 책상 앞에 좀 앉아 있어라.

그 사람이 사과를 했건 안 했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7. 학식 : 배워서 얻은 지식.

학식이 있다. 박학다식하다.

학자는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다.

8. 상관없다 : 서로 관계가 없다.

상관있다.

탁구는 실내 경기이기 때문에 날씨와 상관없이 할 수 있다.

9. 해답 : 질문이나 문제에 맞는 대답.

해답을 찾았다. 해답을 맞춘다.

연습문제의 해답이 있으면 좀 보여 주세요.

10. 사신 : 왕이나 나라의 명령으로 외국에 심부름 가는 사람을 뜻하는 옛말.

옛날에는 통신 수단이 없어서 다른 나라와 연락할 때 사신을 보냈다.

11. 일행 : 같은 목적으로 함께 가는 사람.

일행이 있다. 일행이 많다.

일행이 몇 분이세요?

12. **임무** : 해야 하는 일. 책임.

임무 수행.

그 사람은 이번에 회사 대표로 뽑혀서 큰 임무를 맡게 되었다.

13. **앙상하다** : 사람이나 나무 등이 보기 좋지 않게 바짝 마르다.

뼈만 앙상하다. 앙상한 가지.

겨울 나무는 가지만 앙상하다.

14. **무성하다** : 풀이나 나무 등이 많이 있다.

나무가 무성한 숲.

주인이 돌보지 않아서 그런지 마당에 잡초만 무성하다.

15. **덮다** : 물건이 겉으로 보이지 않게 넓은 것으로 씌우다.

하늘을 덮은 구름. 덮이다.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뚜껑을 잘 덮으세요.

16. **앞장 서다** : '앞장'은 여럿이 나아갈 때 맨 앞에 서는 사람이며, 이 말은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나서서 한다는 뜻이다.

금연 운동에 앞장 섰다. 앞장 서서 봉사한다.

그분은 고생하던 어린 시절을 생각하고 늘 불우 이웃 돕기에 앞장 선다.

17. **과연** : 정말로. 듣던 것과 같이.

듣던 대로 과연 아름답군요. 네 말이 과연 맞다.

2 수확 여행

1. 구체적으로 : 사실로 보거나 느낄 수 있도록. 내용을 자세히.

구체적인 계획

너무 추상적인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라.

2. 시일 : 정해진 날짜.

시일을 지키다. 시일 내에.

시일이 지난 신청서는 받지 않는다.

3. 예상하다 : 미리 추측하여 생각하다.

예상한 대로. 시험 예상 문제.

이번 여행은 예상한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들었다.

4. -니만큼 ____ : 상태동사나 동작동사와 결합하여 선행문의 내용이 원인이 되어,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후행문에 나타남을 말한다.

예 : 그 회사는 월급이 많으니만큼 근무 시간이 비교적 길어요.

내용이 좋으니만큼 그 책은 금방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이제 너도 한 살 더 먹었으니만큼 철이 좀 들어야지.

남보다 열심히 노력했으니만큼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은 당연해요.

그 집은 번화가에 있으니만큼 집 값이 꽤 비싸다고 해요.

5. 유적지 : 옛날 유물이 있는 곳.

백제의 유적지. 유물.

역사 공부를 하려면 유적지에 직접 가 봐야 한다.

6. -자면 ____ : 동작동사에 붙어서 쓰이며, '-자고 하면'의 준말로써 청유형의 간접화법으로 쓰이는 경우와 의도의 뜻을 나타내는 '-려고 하면'의 뜻으로 쓰

이는 경우가 있다.

예 : 만약에 그 사람이 결혼하자면 어떻게 하겠니?

공원에서 모르는 사람이 같이 사진을 찍자면 찍을 수 있니?

잔치를 하자면 돈이 꽤 많이 들 텐데요.

우리 나라도 선진국이 되자면 노사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죠.

우리 사회에서 범죄를 완전히 없애자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7. **절충하다** : 서로 다른 두 가지의 것을 섞다.

동서양의 절충식 건물. 절충안.

여당과 야당의 의견을 절충해서 결론을 지었다.

3. 구경

1. **-거리** : 물건을 만드는 데 필요하거나 어떤 일의 원인이 되는 것.

반찬거리. 이야기거리. 웃음거리.

얼굴 표정이 어두운 걸 보니까 무슨 걱정거리가 있는 모양이군요.

2. **더할 수 없는** : '더하다'는 '더 심하다'는 뜻이며, 이 말은 '그 이상의 것이 없을 정도로 아주'라는 뜻이다.

더할 수 없는 슬픔. 더할 수 없이 기뻐다.

가족이 건강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나에게서는 더할 수 없는 기쁨이다.

3. **-던가요?** : 회상을 나타내는 '-더'에 '-ㄴ가요'가 붙은 의문형 종결어미이다.

지난 일에 대한 화자의 경험을 회상해서 질문할 때 쓰며 '-더군요', '-던데요', '-더라'로 대답할 수 있다.

예 : 그 영화를 보러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던가요?

EXPO를 보고 와서 뭐라고 하던가요?

그 친구는 이민가서 잘 살던가요?

공사가 많이 진전되었던가요?

설악산에 눈이 많이 왔던가요?

4. 민박 : 호텔이나 여관이 아닌 개인 집에 묵는 것.

민박했다. 민박촌.

호텔보다는 민박을 하는 게 더 재미있을 것 같다.

5. -는다 -는다 하는 것이 ____ : 동일하거나 비슷한 의미의 동작동사를 반복하여
쓰므로써 몇 번이나 계획하고 시도한 일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쓴다.

예 : 가계부를 쓴다 쓴다 하는 것이 아직도 시작하지 못했어요.

영화를 한 편 본다 본다 하는 것이 시간이 통 없군요.

옷장 정리를 한다 한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 미루어 왔어요.

병문안을 간다 간다 하는 것이 시간이 없어서 못 가고 말았군요.

얼마 전부터 편지를 쓴다 전화를 건다 하는 것이 이렇게 늦어졌어요.

4. 송별회

1. 송별회 : 떠나는 사람을 위해서 마련하는 모임.

졸업생 송별회

유학가는 친구를 위해서 송별회를 했다.

2. 사정 : 일의 형편이나 까닭.

경제 사정. 사정이 있다.

영수는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대학 입학을 포기해야 했다.

3. **재료** : 물건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

재료가 없어서 요리를 못했다.

필요한 재료가 뭐뭐인지 적어 주시면 제가 사 오겠습니다.

4. **해 먹다** :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는다는 뜻이다.

만들어 먹다. 삶아 먹다. 끓여 먹다.

이 음식은 요리를 못하는 사람도 쉽게 해 먹을 수 있는 것이다.

5. **번거롭다** : 일이 복잡하고 귀찮다.

번거로운 절차.

버스는 갈아 타기가 번거로우니까 택시를 탑시다.

6. **-든 -든** ____ : ‘-든지 -든지’의 준말이다. ‘-거나 -거나’를 쓰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선택을 해야 하지만, ‘-든지 -든지’를 쓰면 선택의 범위가 넓어진다.

예 : 한식을 먹든 양식을 먹든 일단 밖으로 나가 보자.

내가 결혼을 하든 말든 나는 상관하지 않겠어.

은행에 예금을 하든 주식 투자를 하든 마음대로 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이번 행사는 계획대로 합니다.

참석하든 안 하든 회비는 내야 합니다.

5. 등산 계획

1. **-(으)ㄴ 건지 -(으)ㄹ 건지** : 동작 동사에 붙어서 쓰이며 ‘__(으)ㄴ 것인지’의 준말이다. 상대가 되는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동사를 써서 선택의 뜻을 나타낸다.

예 : 영화를 보러 갈 건지 연극을 보러 갈 건지 알아야지.

영수가 방학 때 한국에 있을 건지 고향으로 돌아갈 건지 잘 모르겠어요.

김 선생이 그 여자를 계속 만날 건지 그만둘 건지는 아무도 몰라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건지 중턱까지만 올라갈 건지 빨리 결정합시다.
이번 휴가 때 집에서 지낼 건지 여행을 떠날 건지 별말이 없더군요.

2. 바위를 타다 : 바위가 덮인 쪽으로 해서 등산하다.

산을 타다. 줄타기.

그 산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500미터쯤 바위를 타야 한다.

3. 험하다 : 쉽게 가기 어렵다.

길이 험하다. 험한 고개.

그 산은 험해서 초보자한테는 어려울 거예요.

4. 하루 거리로는 그만이다 : '그만이다'는 '가장 좋다'는 뜻이며, 이 말은 하루에 갔다 올 수 있는 곳으로는 가장 좋다는 뜻이다.

이 책은 교과서로는 그만이다.

춘천은 경치도 아름답고 하루 코스로는 그만이다.

5. 차림 : 옷을 입은 모양이나 물건을 준비해 놓은 모양.

상차림. 차림표. 차려 입었다.

양복 차림을 한 어떤 남자가 찾아 왔었어요.

6. 간편하다 : 간단하고 편리하다.

간편한 식사.

내일은 대청소를 해야 하니까 간편한 옷을 입고 오세요.

문형 연습

1. 배우면서 산다.

1. -건 -건 _____ .

(보기) 가 : 우리 할아버지가 이번엔 노인대학에 입학하셨습니다.

나 : 나이가 많건 적건 사람은 계속 배워야 해요.

가 : 이번 세미나 주제는 재미없을 것 같아요.

나 : 재미있건 없건 공부가 될 테니까 참석합니다.

가 : 경수 씨는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해요.

나 : 일을 하건 공부를 하건 사람은 최선을 다해야 해요.

가 : 이 일을 꼭 해야 해요.

나 : 맡겨진 책임이니까 싫건 좋건 꼭 해야 해요.

가 : 아직 안 온 학생이 있는데요.

나 : 학생이 다 왔건 안 왔건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해야지요.

가 : 이번 일은 영석 씨 책임인 것 같아요.

나 : 영석 씨가 잘했건 못했건 동료니까 우리가 도와 줘야죠.

2. -고 말았다.

(보기) 가 :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면서요?

나 : 좋다는 약은 다 써 봤는데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가 :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되었어요?

나 : 친구들이 두 사람을 화해시키려고 애썼는데 결국 헤어지고 말았어요.

가 : 회사가 자금난을 겪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나 : 사장님이 돈을 구하려고 여기 저기 뛰어 다녔는데 결국 부도가 나고 말았어요.

가 : 수진 씨는 왜 대학 진학을 포기했대요?

나 : 어렵지만 해 보려고 했는데 생활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말았대요.

가 : 이번 계획이 취소되었다면서요?

나 : 그 일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모두 헛수고가 되고 말았어요.

가 : 어제 축구 시합 어떻게 되었어요?

나 : 모든 선수들이 열심히 했지만 우리 팀이 지고 말았어요.

3. -라 _____ .

(보기) 가 : 물이 안 나오는데요.

나 : 수도 공사 중이라 내일까지 단수래요.

가 : 전주 씨가 왜 오늘 결근했지요?

나 : 감기몸살이라 꿈쩍도 못한대요.

가 : 요즘에 왜 통 연락이 없어요?

나 : 월말이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요.

가 : 요즘 현식이가 유난히 멋을 부리는 것 같아요.

나 : 사춘기라 이성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그런가 봐요.

가 : 오 선생님을 모시고 일하기가 어렵다면서요?

나 : 그분은 좀 까다로운 성격이라 같이 일하기가 어려워요.

가 : 하숙비가 얼마예요?

나 :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은 학교 근처이고 독방이라 다른 곳보다 10만원 좀 비싸요.

4. -었더니 _____ .

(보기) 가 : 영수가 벌을 받지 않았어요?

나 : 영수가 사실을 말했더니 선생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가 : 박 선생님이 맡으신 일은 성공적으로 끝났다면서요?

나 : 이번에는 계획을 철저히 세웠더니 일이 잘 진행되었대요.

가 :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나 : 며칠 동안 결석했더니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가 : 요즘 안색이 좋아지셨어요.

나 : 한동안 보약을 먹었더니 피곤한 줄 모르겠어요.

가 : 사장님께 뭔가 걱정거리가 있나 봐요.

나 : 제가 여쭙 봤더니 자금 문제 때문이라고 하시더군요.

가 : 이거 웬 시계예요?

나 : 자명종 시계가 필요하다고 했더니 어머니께서 사 오셨어요.

2. 수학 여행

1. -었던 것보다 -(으)ㄴ 것 같다.

(보기) 가 : 이번 졸업생 환송회에 학생들이 많이 참석할까요?

나 :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사람이 참석할 것 같아요.

가 : 얼마나 지나면 장마가 끝날까요?

나 : 일기예보에 의하면 예상했던 것보다 장마가 길어질 것 같대요.

가 : 우리 편이 이번 경기에서 잘 할 수 있을까요?

나 : 부상 선수가 많아서 기대했던 것보다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할 것 같아요.

가 : 새 교과서를 읽어 보셨어요?

나 : 단어를 보니까 지난 학기에 배웠던 것보다 훨씬 어려울 것 같아요.

가 : 신입 사원 연수가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나 :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 : 새로 나온 자동차가 잘 팔릴까요?

나 : 성능이 좋아서 지난 번에 나왔던 것보다 반응이 좋을 것 같아요.

2. -니만큼 _____ .

(보기) 가 : 사람들이 빨리 결과를 알고 싶어해요.

나 : 문제가 심각하니만큼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합시다.

가 : 할아버지께서 졸업 선물로 이 만년필을 사 주셨어요.

나 : 할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것이니만큼 소중히 간직하세요.

가 : 남대문 보수 공사를 시작한대요.

나 : 조상에게 물려 받은 문화 유산이니만큼 보존에 힘써야 해요.

가 : 이번 모임에 특별히 주의할 것이 있어요?

나 : 어른들도 참석하시니만큼 옷차림에 신경을 쓰세요.

가 : 기일 안에 제품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나 : 시간이 부족하니만큼 효율적으로 일합시다.

가 : 대도시의 공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나 : 정부와 국민 모두가 최선을 다 하고 있으니만큼 좋은 성과가 있겠지요.

3. -자연 _____ .

(보기) 가 : 요즘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나 : 자연 환경을 보호하자면 먼저 공해의 원인을 찾아야지요.

가 : 여권을 만들려고 해요.

나 : 여권을 신청하자면 여러 가지 서류를 갖춰야 해요.

가 : 그 친구와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나 : 친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면 사소한 일은 참아야 할 거예요.

가 :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어서 한국에 왔어요.

나 : 한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자면 우선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해요.

가 : 승마를 한번 배워 봤으면 좋겠어요.

나 : 승마를 배우자면 시간과 돈을 많이 투자해야 해요.

가 : 요즘 아이들은 다루기가 힘들어요.

나 :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하자면 아이들의 심리를 잘 파악해야 해요.

4. 그러자면 _____ .

(보기) 가 : 다음 학기에 월반 시험을 보고 싶어요.

나 : 그러자면 이번 학기에 모두 90점 이상을 받아야 해요.

가 : 대기업에 입사하고 싶어요.

나 : 그러자면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세요.

가 : 주말에 기차편으로 부산에 가려고 해요.

나 : 그러자면 미리 예매해야지요.

가 : 우리 급이 졸업식을 진행해야 한대요.

나 : 그러자면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좋겠군요.

가 : 저는 외교관이 되고 싶어요.

나 : 그러자면 외국어 실력을 쌓아야 해요.

가 : 대도시의 주택 문제는 빨리 해결되어야 해요.

나 : 그러자면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 문제부터 풀어야 해요.

3. 구경

1. -거든요.

(보기) 가 : 병원에 웬 일이세요.

나 : 친구가 수술을 받고 입원했거든요.

가 : 상진 씨하고 근영 씨는 서로 반말을 하는 사이더군요.

나 : 두 분이 고등학교 동창이거든요.

가 : 오늘은 왜 이렇게 퇴근을 서두르세요?

나 : 오늘이 결혼 기념일이라 외식을 하기로 집사람과 약속을 했거든요.

가 : 이번엔 평균 90점 이상을 받은 학생이 없군요.

나 : 시험도 어려웠고 준비 기간도 부족했거든요.

가 : 이번 주말엔 뭘 하실 거예요?

나 : 인사동에 가 보려고 해요. 제가 좋아하는 화가의 그림 전시회가 있거든요.

가 : 좌담회 주제가 뭐예요?

나 : 공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려고 해요. 우리 모두의 관심사거든요.

2. -던가요?

(보기) 가 : 동대문 시장에 다녀 왔어요.

나 : 좋은 물건이 많던가요?

가 : 친구 결혼식이 있었어요.

나 : 신랑 신부가 잘 어울리던가요?

가 : 이번에는 수학여행 대신 민속 박물관을 견학하기로 했어요.

나 : 학생들이 모두 찬성하던가요?

가 : 어제 음대 학생들의 졸업연주회에 갔다 왔어요.

나 : 학생들의 연주 실력이 어땠던가요?

가 : 어제는 논문 자료를 찾으라고 국립 도서관에 갔었어요.

나 : 거기 사람이 많지 않던가요?

가 : 이 냉장고는 월부로 구입했어요.

나 : 월부로 사면 오히려 귀찮지 않던가요.

3. -는걸요.

(보기) 가 : 여행 경비가 부족하지 않아요?

나 : 이 정도면 충분한걸요.

가 : 그건 비밀인데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나 : 벌써 다 알려진 일인걸요.

가 : 전화로 주문하지 왜 직접 가려고 해요?

나 : 전화가 고장난걸요.

가 : 컴퓨터가 고장이 났는데 좀 봐 주세요.

나 : 저는 컴퓨터에 대해서는 기본 지식도 없는걸요.

가 : 바쁘실 텐데 이렇게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 그동안 저도 도움을 많이 받은걸요.

가 : 피곤하실 텐데 그만 주무시고 내일 하세요.

나 : 이 일을 내일까지 하겠다고 약속한걸요.

4. -는다 -는다 하는 것이 _____ .

(보기) 가 : 충치 치료를 받으셨어요?

나 : 치과에 간다 간다 하는 것이 아직 못 갔어요.

가 : 왜 답장을 안 하세요?

나 : 편지를 부친다 부친다 하는 것이 써 놓기만 하고 아직 못 부쳤어요.

가 : 약은 제시간에 꼭 드세요.

나 : 약을 먹는다 먹는다 하는 것이 바쁘다 보면 자꾸 잊어 버리게 돼요.

가 : 그 여자에게 마음을 털어 놓았어요?

나 : 그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한다 고백한다 하는 것이 용기가 안 나서 아직 못했어요.

가 : 자동차 수리를 끝내셨어요?

나 : 자동차를 정비소에 맡긴다 맡긴다 하는 것이 시간이 없어서 아직 못했어요.

가 : 아직도 집수리를 안 하셨어요?

나 : 매년 봄마다 집수리를 한다 한다 하는 것이 벌써 3년이 지났어요.

4. 송별회

1. -어야지 _____ .

(보기) 가 : 제 숙제 좀 해 주세요.

나 : 자기가 직접해야지 남의 도움을 받으면 안 돼요.

가 : 승훈이는 공부를 잘 해서 좋겠어요.

나 : 몸이 건강해야지 공부만 잘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가 : 민수 씨가 과속을 해서 벌금을 냈대요.

나 : 교통 규칙을 잘 지켜야지 조금만 어겨도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가 : 뒤늦게 공부를 시작하려니까 잘 안 돼요.

나 : 공부도 할 때 해야지 시기를 놓치면 어려워요.

가 : 사장님이 게으르니까 부하 직원들도 일을 열심히 안 해요.

나 : 윗물이 맑아야지 아랫물도 맑아요.

가 : 영수가 먼저 욕을 해서 싸움이 시작되었대요.

나 : 가는 말이 고와야지 오는 말도 곱지요.

2. -어야지 그냥 -(으)ㄴ 순 없지요.

(보기) 가 : 일이 잘 될 것 같지 않은데 그만 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나 : 시작했으니 끝까지 해 봐야지 그냥 포기할 순 없지요.

가 : 나미 씨 얘기를 들어 보니까 영애 씨가 잘못된 것 같아요.

나 :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 봐야지 그냥 잘잘못을 따질 순 없지요.

가 : 시간도 없는데 그냥 갑시다.

나 : 처음 방문하는데 작은 거라도 가지고 가야지 그냥 빈 손으로 갈 순 없지요.

- 가 : 마감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빨리 갖다 내세요.
 나 : 틀린 것이 있는지 검토해야지 그냥 이대로 낼 순 없지요.
 가 : 일정이 빡빡하니까 김 선생님께는 연락하지 맙시다.
 나 : 여기까지 왔는데 선생님께 안부라도 전해야지 그냥 떠날 순 없지요.
 가 : 너무 일러서 그런지 영수가 아무 것도 먹고 싶지 않대요.
 나 : 간단하게 뭐라도 먹여서 보내야지 그냥 보낼 순 없지요.

3. -든 -든 _____ .

- (보기) 가 : 간단한 문제인데 우리가 처리하지요.
 나 : 과장님이든 부장님이든 한 분의 허락을 받아야 해요.
 가 : 입석표 밖에 없다는데 힘들지 않을까요?
 나 : 입석표든 좌석표든 이번 차로 갈 수만 있으면 돼요.
 가 : 출입할 때마다 신분증을 보이는 게 너무 번거로워요.
 나 : 종든 싫든 그 곳의 규칙이니까 따라야지요.
 가 : 부탁을 들어줄 것 같지 않은데요.
 나 : 부탁을 들어주든 거절하든 한번 얘기나 해 봅시다.
 가 : 이번 네 생일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어?
 나 : 다른 친구들을 초대하든 우리끼리만 지내든 난 상관없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가 : 아직 다 못 끝냈는데요.
 나 : 다 했든 못했든 시간이 됐으니까 제출하세요.

4. -은 -를, -은 -를 _____ .

- (보기) 가 : 형제가 취미가 참 다른 것 같아요.
 나 : 우리 형은 운동을, 저는 영화를 좋아해요.

가 : 일을 어떻게 분담할 거예요?

나 : 이진섭 씨는 손님 안내를, 박준범 씨는 전화 받는 일을 맡아 주세요.

가 : 이 집은 신문을 두 가지나 봐요?

나 : 저는 경제 신문을, 남편은 스포츠 신문을 봐요.

가 : 교통 사고가 나면 대개 남의 탓만 하는 것 같아요.

나 : 운전자는 보행자의 입장을, 보행자는 운전자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사고가 줄 텐데요.

가 : 사람들은 결혼 조건으로 뭘 중요하게 생각한대요?

나 : 어떤 조사에 의하면 남자들은 여자들의 외모를, 여자들은 남자들의 능력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대요.

가 : 정치적인 견해도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요?

나 :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은 진보적인 생각을, 기성세대들은 보수적인 생각을 하겠지요.

5. 등산 계획

1. -(으)ㄴ 만하다.

(보기) 가 : 지수 씨가 국가 대표 선수로 선발되었대요.

나 : 지수 씨 정도의 실력이면 국가 대표 선수로 뽑힐 만해요.

가 : 이 책은 우수 아동 도서로 선정되었는데 좀 비싸요.

나 : 그렇게 좋은 책이라면 비싸도 아이들에게 읽힐 만하죠.

가 : 그 식당 음식 어때요?

나 : 아주 맛있는 건 아니지만 먹을 만해요.

가 : 옷을 사셨어요?

나 : 살 만한 것이 없어서 다음에 사기로 하고 그냥 왔어요.

가 : 좋은 사람이 있으면 추천하세요.

나 : 제 주위엔 자신있게 추천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가 : 이 세탁기는 이제 버려야겠어요.

나 : 제가 보기엔 아직 쓸 만한 것 같은데 왜 버리세요?

2. -(으)ㄴ 건지 -(으)ㄹ 건지 _____ .

(보기) 가 : 오늘 회비도 내야 돼요?

나 : 모임에 가입할 건지 안 할 건지 말씀만 하시면 돼요.

가 : 그 식당은 어떻게 예약하면 돼요?

나 : 식당에 전화를 걸어서 몇 명이 갈 건지 몇 시쯤 도착할 건지 얘기하면 돼요.

가 : 계획을 세워서 여행하는 게 좋겠죠.

나 : 먼저 어디 어디에 갈 건지 교통편은 무엇을 이용할 건지 정합시다.

가 : 시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 보세요.

나 : 시험을 언제 볼 건지 범위는 어디까지로 할 건지 말씀해 주세요.

가 : 존슨 씨 나라에서는 초대장에도 답을 해야 된다면데요?

나 : 그래야 누가 올 건지 몇 명이나 올 건지 알 수 있잖아요.

가 : 계약 문제는 저 혼자 결정할 수 없어요.

나 : 그럼 의논해 보시고 계약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번 주 중으로 연락을 해 주세요.

3. -로는 그만이다.

(보기) 가 : 영화 씨 어때요?

나 : 안전하고 성격이 좋아서 신부감으로는 그만이죠.

가 : 취미로 붓글씨를 배우려고 해요.

나 : 붓글씨는 비용도 적게 들고 재미도 있으니까 취미로는 그만일 거예요.

가 : 수진 씨 고향은 어떤 곳이에요?

나 : 제 고향은 경치도 아름답고 한적해서 휴양지로는 그만이에요.

가 : 모시 옷을 즐겨 입으시는 모양이에요.

나 : 모시가 바람도 잘 통하고 촉감도 좋아서 여름 옷으로는 그만이에요.

가 : 애완용으로 무슨 동물이 좋을까요?

나 : 주인에게 충실하고 영리해서 강아지가 애완용으로는 그만인데 아파트에
선 기르기가 어려울 거예요.

가 : 날마다 뉴스를 꼭 보고 있어요.

나 : 듣기연습으로는 텔레비전 뉴스가 그만이죠.

문화 해설

스승과 제자

우리 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 하여 스승을 아버지, 나랏님(임금)과 똑같은 분으로 존경하고 따랐다.

스승은 단지 제자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전해 주고 가르쳐 주는 분이 아니다.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올바르게 행동하고 살아 가는 법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한 글자의 지식이나 한 가지 기술을 가르쳐 주기 전에, 먼저 마음을 다스리고 올바르게 생각하는 정신을 일깨워 주는 것을 스승의 할 일로 여겼다. 아무리 아는 것이 많고 뛰어난 재주가 있더라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나쁜 것이기 때문이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한 인간을 올바른 사람으로 이끄시는 스승이기에 그분의 그림자조차 밟을 수 없을 정도로 조심하고 공경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 스승에 그 제자'라는 말도 있다.

좋은 스승을 만나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천리 길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 갔던 옛사람의 정성을 오늘날에도 본받아야 하겠다.

이야기해 봅시다.

그것 참 좋은 생각이군요.

1.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는 데도 기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잘 하기 위해서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서로 의견이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1) 아주 친한 사이(부모 자식 사이, 부부, 형제, 친구, 연인 사이)일 때
- 2) 모르는 사람(어른, 아이, 동년배)일 때
- 3) 별로 친하지 않은 사이일 때

2. 지혜로운 동물이 인간을 돕는 이야기나 영화가 많습니다. 이런 애기나 영화를 찾아 발표해 봅시다.

예: '프란더스의 개', '은혜 값은 까치'

3. 자신이 만난 지혜로운 사람 또는 자신이 경험한, 지혜롭게 해결한 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제 36 과

속 담

1. 생활양식과 속담

속담은 먼 옛날부터 전해 오는 말 중의 하나이며 그 말 속에는 여러 가지 경험에서 얻은 교훈이 담겨 있다. 특히 뜻이 분명하면서도 간결하기 때문에 외우기도 쉽고 쓰기도 쉽다.

어릴 때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무릎에 앉아 그분들이 살아 오신 옛날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 속에서 들은 속담을 통해 어떤 교훈을 깨닫게 된다. 사람이 바르게 살아야 하는 까닭이며, 크고 작은 사회를 평화롭고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이며, 슬기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교훈들이다. 그러므로 속담을 통한 가르침이 인간 교육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겠다.

속담은 한 민족의 생활양식이나 사고방식 또는 민속신앙을 나타내기도 한다. 속담에서 표현되거나 비유되는 것은 바로 그 민족의 사고방식에 의해 쓰여진 것이므로 그 나라의 민족성이 잘 나타나 있다. 그래서 대화 속에 속담을 섞어서 말하는 경우가 여간 많지 않다. 가령 직접적으로 거절하기 곤란할 때, 상대방을 놀리거나 칭찬할 때, 설명하기에는 너무 길 때, 잘못하다가는 오해 받기 쉬운 경우에는 속담으로 대신한

다. 그러므로 속담을 안다는 것은 한국을 배우고 아는 데 지름길이 될 것이다.

2.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회사원 1 : 어제 축구시합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전반전에서는 우리가 이기는 걸 보고 갔는데, 보나마나 우리가 이겼겠지요?

회사원 2 : 이기는 게 다 뭐예요. 후반전에는 형편없었어요. 저쪽 노장선수들이 서서히 실력을 발휘하니까 꼼짝 못하고 졌어요.

회사원 1 : 그래요? 우리편 선수들이 젊어서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몰랐군요.

회사원 2 : 역시 경쟁이란 젊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 모양이죠? 우리가 그분들을 너무 과소평가했어요.

회사원 1 : 그것 보세요. 할 수 없지요. 뭐. 우리가 졌으니 점심을 사야

회사원 2 : 이럴 줄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내기를 하지 말걸.

3. 첫 술에 배부르랴?

영 미 : 대학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제 걱정거리가 없어져서 마음놓고 놀 수 있겠어요.

철 수 :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부터 시작인걸요. 그런데 대학 생활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것 같아요.

영 미 : 혹시 고등학교 교육의 연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떤지 말해 봐요.

철 수 : 글쎄, 뭐랄까? 처음이라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강의만 해도 내용이 딱딱하고 또 교수님과도 거리감이 느껴져요.

영 미 : 이제 첫 학기인데, 첫 술에 배 부르겠어요? 대학은 대학대로 특성이 있어요.

철 수 : 꿈을 가지고 도전해 봐지요.

4.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후 배 : 오늘 첫 월급을 받았으니까 제가 한턱 낼게요.

선 배 : 아이구! 그 쥐꼬리만한 걸 가지고 뭘 한다고? 내가 사지. 사회 일년생이 된 걸 축하도 할 겸.

후 배 : 이래봐도 야망은 대단하답니다. 두고 보세요. 꼭 일인자가 될 테니까요.

선 배 : 그래야지.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니까. 역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만!

후 배 :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법은 아닌가요?

선 배 : 그래서 옛부터 피는 못 속인다고 했거든. 자! 가세. 우리의 앞날을 위해 만세를 불러야지.

5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김 선생 : 가야금을 배우신다는 말을 들었는데, 벌써 연주까지 하시게 된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시작이 반이군요.

다 나 까 : 연주랄 수가 있나요? 그 동안 배운 민요 몇 곡을 연습해 보는 정도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시고 오셨어요?

김 선생 : 발 없는 말이 천리 가지 않습니까? 사실은 부산에 계시는 박 선생님이 전화해 주셔서 알았어요.

다 나 까 : 잘 하지도 못하는 데다가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처음이라서 떨리기만 해요.

김 선생 : 가야금은 배우기가 어렵다던데, 참 대단하십니다.

다 나 까 : 전 이걸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이제 가야금 소리를 들으면 한국의 멋을 좀 알 것 같아요.

어휘와 문법

1. 생활양식과 속담

1. **담다** : 작품이나 말, 글, 표정 속에 어떤 뜻이나 정신이나 감정을 나타내다.

‘담기다’는 ‘담다’의 피동형.

입가에 웃음을 담다.

화폭에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다.

그런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나?

기분 나쁜 말을 마음에 담지 않는 게 좋아요.

2. **간결하다** : 주로 말이나 글이 간단하면서도 짜임새가 있다.

간결한 문체, 표현이 간결하다.

3. **깨달다** : 느끼거나 알게 되다.

깨달음.

그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

부처님은 보리수 밑에서 진리를 깨달았다.

4. **슬기롭다** :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분별하는 능력이 있다.

자유롭다. 향기롭다. 지혜롭다.

슬기로운 솔로몬 왕. 그 일을 슬기롭게 해결했다.

5. **몫** : 하나를 여럿으로 나누었을 때 각자의 분량이나 역할.

맡은 몫을 다하다. 내 몫이다.

사람이 더 와서 내 몫이 적어졌다. 그는 그 일에서 중요한 몫을 했다.

6. 차지하다 : 전체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을 가지다. 자기 것으로 만들다.

바다가 전세계의 70%를 차지한다. 노력 끝에 일등을 차지했다.

7. -어지다 : 동사에 붙어서 쓰이며, 동작동사의 경우에는 그 동작이 파동적으로 이루어짐을 나타낸다. 상태동사에 붙어서 쓰이는 경우에는 그 상태가 변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예 : 우리 생활에 쓰여지는 석유는 모두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것이에요.

고장이 났는지 문이 잘 안 닫혀지는데요.

시멘트가 굳어져서 쓸 수가 없어요.

불이 꺼지고 영화가 곧 시작되었다.

잘 써지는 볼펜 있으면 좀 빌려 주세요.

8. -므로 ____ : 선행문에서 이유를 나타내고 후행문에서는 결과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니까'에서와 같이 강한 원인을 나타내지는 않으며 문어체에서 주로 쓰인다.

예 : 오늘은 시간이 늦었으므로 이만 이야기를 끝냅니다.

최선을 다했으므로 후회는 없어요.

기상상태가 나쁘므로 모든 항공기의 착륙이 늦어지겠습니다.

비행기가 연착되었으므로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했어요.

환경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므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9. -다가는 ____ : 선행문의 내용과 같은 이미 일어난 사실이 계속되면, 후행문의 내용과 같이 원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을 나타낼 때 쓴다. 그러므로 보통 후행문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내용이 쓰이며 청자를 경계하거나 충고할 때 쓴다. 선행문에서 결합되는 동사는 이미 일어난 사실이거나 진행중인 사실이기 때문에 '겠'과는 결합하지 못하며, 선행문에서 '이렇게', '그렇게', '저렇게'라는 부사어를 같이 쓰면 더욱 자연스럽다. 앞뒤의 주어는 같아야 한다.

예 :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다가는 후회하는 날이 꼭 올 거야.

편식만 하다가는 몸이 허약해져.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다가는 병이 나고 말겠어요.

그렇게 놀기만 하다가는 남한테 뒤떨어지기가 쉬워.

그 사람만 믿다가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꼴이 될 거야.

10. 지름길 :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 또는 이를 수 있는 방법.

이 길이 거기 가는 지름길이다. 공부에는 지름길이 없다.

2.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1. -나마나 ____ : 결합되는 동사의 의미와 관계없이 선행문의 내용으로 보아 어떤 결과가 올지 확실한 추측을 할 수 있을 때 쓰는 연결어미이다. '마나'는 부정동사 '말다'의 연결형이다.

예 : 그렇게 놀기만 하는 걸 보니 이번 시험도 보나마나 떨어질 거예요.

그렇게 자꾸 휴지를 버리면 청소를 하나마나 또 더러워져요.

하나마나한 노력을 왜 자꾸 하세요?

김 선생님이 만드신 음식은 먹어 보나마나 맛이 기가 막혀요.

그 사람한테는 충고하나마나야.

2. 형편없다 : 일의 결과나 내용 등이 대단히 좋지 못하다. 살림살이의 정도. 성적이 형편없다. 형편없이.

요즘 형편이 어렵다. 그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이다.

3. 서서히 :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4. 발휘하다 :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 힘 등을 밖으로 나타내다.

숨은 실력을 발휘해 보세요.

올림픽 경기에서 선수들은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했다.

5.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다** : 하룻강아지는 난 지 얼마 안 되는 어린 강아지라는 뜻이며, 이 표현은 경험이 없고 철없는 사람이 사리를 분간하지 못하고 생각없이 함부로 덤빌 때 쓰는 말이다.

그 사람은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그 노인 앞에서 버릇없이 굴었다.

6. **경쟁** : 서로 이기거나 앞서려고 다툼.

실력 경쟁. 경쟁자. 경쟁심.

장학금을 받고 싶지만 경쟁자가 너무 많다.

철수와는 경쟁이 되지 않는다.

7. **-만 가지고는 ___** : 다른 것 없이 어느 것 하나만으로는 안 된다는 뜻.

돈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

학벌만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어요.

8. **과소평가** : 어떤 것을 사실보다 너무 낮추어 생각하다.

과대평가. 과식. 과음. 과로.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9. **내기하다** : 어떤 조건을 걸고 서로 이기려고 경쟁하다.

친구하고 점심내기 바둑을 두었다. 누가 빨리 뛰는지 내기할까?

3. 첫 술에 배부르랴?

1. **연속** : 끊어지지 않고 계속됨.

연속극. 연속하다. 연속되다.

오늘 연속 실수를 하는데,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어요?

2. **구체적으로** : 구체적 사물이 머리 속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로 뚜렷한 모양이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추상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다.

3. **-라서 (그런지)** ____ : 명사에 붙어서 선행문이 후행문의 근거나 이유가 될 만함을 나타낼 때 쓴다.

예 : 휴가철이라서 그런지 시내에 자동차들이 많이 줄었어요.

이번 여름은 날씨가 시원한 편이라서 그런지 에어컨이 잘 안 팔린대요.

그 살람은 막내라서 그런지 자기 중심적이에요.

환절기라서 그런지 병원에 감기 환자가 많이 늘었다는군요.

그 아이는 아버지가 운동선수라서 그런지 운동에 대한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4. **딱딱하다** : 물체가 부드럽지 않고 단단하다는 뜻으로 태도나 말씨 또는 분위기에도 쓰인다.

딱딱한 분위기.

그 사람의 행동이 너무 딱딱했다. 떡이 오래 되어서 딱딱해졌다.

5. **거리감** : 서로 사귀는 사이가 먼 느낌.

거리감을 없애다. 거리감이 있다.

그에게서 거리감을 느꼈다.

6. **첫 술에 배부르랴?** : '첫 술'은 첫번째 떠 먹는 밥 숟가락이며, 이 말은 무슨 일든지 단 한번으로는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뜻이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라.

7. -대로 _____ : 명사에 붙어서, '각각' '따로 따로' 의 의미로 쓰이며 앞에서 언급한 것 외에 다시 반복해서 쓸 때가 많다.

예 : 집안에 수험생이 있으면 아이는 아이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마음이 초조하죠.

네 일 때문에 나는 나대로 한잠도 못 잤어.

책은 책대로 옷은 옷대로 따로 싸 놓았어요.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앉았으니 재미가 있겠어요?

불경기가 계속되는데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월급을 더 올려 달라고 야단이에요.

8. 특성 : 특별한 성질.

한민족의 특성은 끈기와 인내이다.

다른 동물과 달리 인간은 생각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9. 도전하다 : 자신보다 힘이나 세력이 센 상대에게 싸움을 걸다.

도전자. 도전과 응전.

인간은 자연에 끊임없이 도전해 문명을 발전시켰다.

수많은 등산가들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도전하려는 꿈을 가지고 있다.

4.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1. 쥐꼬리만한 : 매우 보잘 것 없이 적은.

쥐꼬리만한 월급을 주면서 일은 많이 시킨다.

2. 이래봬도 : '이렇게 보여도' 라는 뜻으로 실재는 보이는 것보다 낫다는 뜻.

이래봬도 내가 옛날에는 꽤 잘 살았어.

이래봬도 우리 아버지가 사장이야.

3. **야망** : 그 사람의 능력이나 처지를 보아서 이룰 수 없는 큰 희망 또는 큰 목표를 이루어 보려고 가지고 있는 마음.

위대한 가수가 되는 것이 나의 야망이다.

야망이 없는 사람은 발전이 없다.

4. **일인자** : 어떤 전문분야에서 제일 가는 사람.

김 박사님은 국내에서는 암치료의 일인자이다.

광고계의 일인자가 되는 것이 나의 꿈이다.

5. **속이다** : 거짓을 진짜로 알게 하다.

속임수.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나이를 속였다.

5.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1. **연주** : 남 앞에서 악기를 다루어 음악을 들려 주는 일.

연주자. 연주회. 연주곡.

그의 피아노 연주는 정말 감동적이었다.

음악대학 학생들은 졸업 때 누구나 졸업연주회를 가져야 한다.

2. **-랄 수가 있나요?** : '-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의 준말로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표현을 의문형으로 나타내어 역설적인 방법으로 강조하는 것이다.

예 : 결혼을 해도 아직 철이 들지 않았는데 어른이랄 수가 있나요?

일요일에도 교회에 가지 않는 사람을 보고 기독교 신자랄 수가 있나요?

물건을 산 지 1주일만에 고장이 났는데 좋은 물건이랄 수 있나요?

질서 의식이 없는데 선진국 국민이랄 수 있나요?

여론을 무시하는 대통령을 진정한 대통령이랄 수 있나요?

3. -라서 ____ : '-라고 해서'의 준말. 이유를 나타내며 구어체에서 많이 쓰인다.

예 : 생일이라서 친한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여기는 시장 근처라서 매우 시끄러워요.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가게문이 닫혔을 거예요.

방학이라서 고향에 다녀 오려고 해요.

그 사람은 장남이라서 결혼 후에 부모님을 모셔야 한대요.

4. 떨리다 : 두려움, 추위, 화 등으로 몸이 계속해서 흔들리다.

너무 무서워서 다리가 떨렸다.

나는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 가슴이 떨려요.

5. -는다던데 ____ : '-는다고 하던데'의 준말로서 과거에 간접적으로 들은 사실 회상하여 말할 때 쓴다. 반말 형태의 종결형으로도 쓰인다.

예 :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온다던데 어디로 가려고 하니?

박 선생님이 결혼을 한다던데 배우자가 어떤 사람이래요?

김 선생님은 방학 때 여행을 간다던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군요.

한국에는 설날에 세배를 하는 풍습이 있다던데 저도 한번 해 보고 싶군요.

올림픽대로는 공사중이라던데 다른 길로 갑시다.

6. 한국의 멋 : 한국만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경주를 여행하면서 한국의 멋을 느낄 수 있었다.

말로만 듣던 한국의 멋을 고궁에서 찾게 되었다.

문형 연습

1. 생활양식과 속담

1. -며 -며 _____ .

(보기) 가 : 결혼식에 누구누구가 참석했어요?

나 : 친척이며 친구들이며 다 참석했어요.

가 : 지갑 안에 뭐가 있었어요?

나 : 주민등록증이며 면허증이며 다 있었어요.

가 : 영환 씨는 무슨 운동을 잘 하신대요?

나 : 그분은 골프며 태권도며 못하는 게 없대요.

가 : 누가 도와 주었어요?

나 : 친구며 친척이며 친지들이 모두 도와 주셨어요.

가 : 그런 음악을 어디에서 들었어요?

나 : 학교에 오며 가며 길에서 들었어요.

가 : 그 식당에 자주 가시나 봐요?

나 : 예, 실내장식이며 음식 맛이며 다 마음에 들어서 자주 가는 편이죠.

2. -어지다.

(보기) 가 : 여기 있던 시험지가 어디 갔지요?

나 : 바람이 불어서 떨어졌어요.

가 : 한글은 언제 생겨났어요?

나 : 조선시대 때 만들어졌어요.

가 : 연세대학교가 언제 세워졌어요?

나 : 1885년에 언더우드라는 선교사에 의해 세워졌어요.

가 : 티셔츠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나 : 학교 티셔츠인데 오래 되어서 글씨가 다 지워졌어요.

가 : 어디에서 모자를 잃어 버리셨어요?

나 : 모르겠어요. 지하철 안에서 벗겨졌나 봐요.

가 : 이 책은 언제 쓰여진 책이에요?

나 : 이 책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쓰여진 것이에요.

3. -기에는 _____ .

(보기) 가 : 방이 참 넓군요.

나 : 예, 저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큰 것 같아요.

가 : 아침마다 간단한 운동이라도 하고 싶은데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나 : 간단히 하기에는 조깅이 좋은 것 같은데요.

가 : 우리 가족이 탈 만한 자동차로는 어떤 게 좋을까요?

나 : 네 식구가 타기에는 소형 자동차가 좋을 겁니다.

가 : 집이 가까운데 버스를 타고 다니세요?

나 : 예, 가까워도 걸어 다니기에는 좀 먼 거예요.

가 : 별로 많지도 않은데 혼자 드세요.

나 : 혼자 먹기에는 양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가 : 이 책을 아이에게 읽어 주세요.

나 : 그렇지만 이건 국민학생이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4. -다가는 _____ .

(보기) 가 : 고향으로 돌아가신다고요?

나 : 예, 조금 더 있다가는 돌아가기가 싫어질 것 같아요.

가 : 술을 끊으셨다고요?

나 : 예, 이렇게 날마다 술을 마시다가는 건강이 나빠질 것 같아서요.

가 : 왜 식사를 조금씩만 하세요?

나 : 계속해서 많이 먹다가는 똥똥해질 것 같아서요.

가 : 왜 여기서 TV를 보면 안 돼요?

나 : 그렇게 가까이에서 TV를 보다가는 눈이 나빠질 테니까요.

가 : 왜 갑자기 컴퓨터를 배우려고 하세요?

나 : 컴퓨터를 몰랐다가는 뒤떨어질 것 같아서요.

가 : 늦을 때마다 집에 연락하세요?

나 : 그럼요. 전화하지 않았다가는 야단을 맞는걸요.

5. -므로 _____ .

(보기) 가 : 내부 수리중입니다. / 오늘은 쉽니다.

나 : 내부 수리중이므로 오늘은 쉽니다.

가 : 교실 안에서 수업중입니다. /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나 : 교실 안에서 수업중이므로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가 :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 / 담배를 피우실 분은 흡연실을 이용하십시오.

나 : 여기는 금연구역이므로 담배를 피우실 분은 흡연실을 이용하십시오.

가 : 위 사람은 타의 모범이 됩니다. / 이 상을 드립니다.

나 : 위 사람은 타의 모범이 되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가 :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드립니다.

나 :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드립니다.

가 : 내일은 눈이 많이 오겠습니다. / 운전애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 내일은 눈이 많이 오겠으므로 운전애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1. -나마나 _____ .

(보기) 가 : 정말 고장이 났는지 다시 한번 해 봅시다.

나 : 해 보나마나 고장난 게 틀림없어요.

가 : 오늘이 합격자 발표날인데 안 가 보실 거예요?

나 : 가 보나마나 떨어졌을 텐데요. 뭐.

가 : 약속 시간이 지났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죠.

나 : 기다리나마나 그 사람은 안 올 거예요.

가 : 애인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 볼까요?

나 : 물어 보나마나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가 : 이 색깔이 저한테 어울릴까요? 한번 입어 봅시다.

나 : 입어 보나마나 잘 어울리세요.

가 : 왜 늦었는지 이야기를 들어 봅시다.

나 : 들으나마나 뻔한 이야기예요.

2. -는 게 다 뭐예요.

(보기) 가 : 친구가 도와 주었다고요?

나 : 도와 주는 게 다 뭐예요. 와서 방해만 하던데요.

가 : 어제 데이트 즐거웠어요?

나 : 즐거운 게 다 뭐예요. 바람맞았어요.

가 : 할아버님께 자주 가 보시지요?

나 : 자주 가는 게 다 뭐예요. 전화도 한번 못 드렸는데요.

가 : 그 영화 재미있었지요?

나 : 재미있는 게 다 뭐예요. 지루해서 잠만 잤어요.

가 :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나 : 여행 다녀온 게 다 뭐예요. 아파서 꿈쩍도 못했어요.

가 : 그 사람하고 당구를 치니까 재미있지요?

나 : 재미있는 게 다 뭐예요. 당구장이 문을 닫아서 치지도 못했는데요.

3. 그것 보세요.

(보기) 가 : 선생님 말씀대로 정말 영화가 재미있던데요.

나 : 그것 보세요. 제가 재미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가 : 다나까 씨가 장학금을 받게 되었대요.

나 : 그것 보세요. 제가 그럴 거라고 했지요?

가 : 김영미씨가 결혼해서 벌써 아이가 있대요.

나 : 그것 보세요. 제 말이 맞지요?

가 : 갑자기 비가 오는군요. 어떻게 하지요?

나 : 그것 보세요. 제가 오늘은 외출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가 : 오늘 본 시험이 너무 어려웠어요.

나 : 그것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공부하라고 했잖아요.

가 :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재미가 붙어요.

나 : 그것 보세요. 시작이 힘들지 조금만 하면 재미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4. -(으)ㄹ 줄 알았더라면 -(으)ㄹ걸.

(보기) 가 : 야구시합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나 : 그렇게 재미있을 줄 알았더라면 나도 갈걸.

가 : 달러 값이 자꾸 올라간대요.

나 :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더라면 좀 더 기다렸다가 바꿀걸.

가 : 이번 겨울은 유난히 춥대요.

나 : 이렇게 추울 줄 알았더라면 겨울 옷을 많이 준비해 둘걸.

가 : 아무리 기다려도 약속한 친구가 오지 않는군요.

나 :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 친구 전화번호나 알아둘걸.

가 : 오늘부터 백화점들이 바겐세일을 한대요.

나 : 바겐세일을 할 줄 알았더라면 어제 구두를 사지 말걸.

가 : 아이가 새 자전거를 너무 좋아해요.

나 : 그렇게 좋아할 줄 알았더라면 좀 더 일찍 사 줄걸.

3. 첫 술에 배부르랴?

1. -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는걸요.

(보기) 가 : 사모님은 왜 안 오셨어요?

나 : 같이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몸이 아픈걸요.

가 : 시험 끝나셨죠?

나 :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일부터 시작인걸요.

가 : 요리를 잘 하실 것 같아요.

나 : 요리를 잘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라면도 못 끓이는걸요.

가 : 자동차 운전 잘 하세요?

나 : 잘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면허증도 아직 못 땀걸요.

가 : 집안일은 다 하셨어요?

나 : 다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 일이 산더미인걸요.

가 : 아들이 있으시죠?

나 :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딸만 다섯인걸요.

2. 글썸, 뭐랄까?

(보기) 가 : 아버지가 되니까 기분이 어때요?

나 : 글썸, 뭐랄까?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가 : 어제 회의 분위기가 어땠어요?

나 : 글썄, 뭐랄까? 이번 사업에 성공을 해서 그런지 회의가 아니라 축제 분위기 같았어요.

가 : 영화가 어떤 것 같아요?

나 : 글썄, 뭐랄까? E.T.와 Ghost를 합쳐 놓은 것 같더군요.

가 : 한국에서 살아 보니까 어때요?

나 : 글썄, 뭐랄까? 어떤 때는 고향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영원한 타국 같기도 하고 아직 잘 모르겠어요.

가 : 김 선생님 부인이 정말 예쁘시지요?

나 : 글썄, 뭐랄까? 한국여자의 고전적인 미와 서구적인 미가 합쳐진 것 같아요.

가 : 사랑을 해 보니까 어때요?

나 : 글썄, 뭐랄까? 달콤한 사탕과 시큼한 레몬을 같이 먹는 것 같아요.

3. -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_____ .

(보기) 가 : 피곤하시지요?

나 : 글썄요. 아직 젊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별로 힘들지 않아요.

가 : 요즘 가수들의 노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 : 세대가 틀려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너무 시끄럽고 가벼운 것 같아요.

가 : 최 선생님 부부의 이혼에 누구의 잘못이 더 큰 것 같아요?

나 : 제가 여자라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남편의 잘못이 더 큰 것 같아요.

가 : 어제 한 연대와 고대의 농구경기를 어떻게 보셨어요?

나 : 제가 연대 출신이라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연대 선수들이 훨씬 잘 했다고 봐요.

가 : 앞으로의 국제정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나 : 내가 동양인이라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동양이 세계의 중심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 : 우리 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 중 특히 심각한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 : 제 전공이 경제학이라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경제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4. -는 -대로 _____ .

(보기) 가 : 그런 문제까지 아이들과 상의를 하나요?

나 : 물론이지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원하는 게 있으니까요.

가 : 쇠고기는 먹는 데 쓰지만 가죽은 뭐에 쓰나요?

나 : 가죽은 가죽대로 쓰이는 데가 많아요.

가 : 어른들이 집안 청소를 할 때 아이들은 뭘 하나요?

나 :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자기 방 청소를 하지요.

가 : 양말은 어디에 넣을까요?

나 : 어른 양말은 어른 양말대로 아이들 것은 아이들 것대로 서랍에 넣으세요.

가 : 저도 서양 여자처럼 눈도 크고 코도 높았으면 좋겠어요.

나 : 아니에요. 한국 여자는 한국 여자대로 아름다움이 있어요.

가 : 요즘 기업 사정이 어렵지요?

나 : 예, 경영자는 경영자대로 직원은 직원대로 자기 권리만 생각하거든요.

4.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1. -(으)르게요.

(보기) 가 : 내일은 꼭 일찍 오세요.

나 : 예, 늦지 않도록 할게요.

가 : 누가 저를 좀 도와 주시겠어요?

나 : 제가 도와 드릴게요.

가 : 또 이렇게 나쁜 짓 할 거야?

나 :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가 : 이 가방 너무 무거운데요.

나 : 제가 들어 드릴게요.

가 : 한국에 가면 김 선생님께 꼭 안부 전해 주세요.

나 : 예, 그럴게요.

가 : 내일 영민 씨에게 연락하는 거 잊지 마세요.

나 : 예, 안 잊어 버릴게요.

2. -(으)ㄴ 겸.

(보기) 가 : 잠깐 나가서 설까요?

나 : 예, 친구에게 전화도 할 겸.

가 : 이번 휴가에 어디로 갈까?

나 : 설악산에 가는 게 어때요? 근처에 있는 척산온천에서 목욕도 할 겸.

가 : 영자 씨에게 이 책을 좀 갖다 주시겠어요?

나 : 그러죠. 한동안 못 봤으니까 얼굴도 볼 겸.

가 :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실 거예요?

나 : 하와이로 갈까 해요. 거기서 사는 친구도 만날 겸.

가 : 제주도에 뭘 타고 갈 거예요?

나 : 배로 갈까 해요. 바다 구경도 할 겸.

가 : 영화보러 갈까요?

나 : 그러지요. 영화관은 시원하니까 더위도 피할 겸.

3. -이래봐도 _____ .

(보기) 가 : 회사가 별로 크지 않군요.

나 : 이래봐도 작년에 수출상을 받은걸요.

가 : 몸이 약해 보이시는데 운동을 좀 하셔야겠어요.

나 : 이래봐도 태권도 4단이에요.

가 : 키가 좀 작으신 편인데 무슨 운동을 잘 하세요?

나 : 이래봐도 제가 고등학교 때는 농구선수였어요.

가 : 아드님이 조용하고 말이 없으신 것 같아요.

나 : 이래봐도 애가 학생회장이예요.

가 : 이 사진에서 보니까 어머님께서 연세가 많으신가 봐요.

나 : 이래봐도 날마다 약수물을 뜨러 산에 올라 가시는데요.

가 : 차가 너무 오래 되지 않았어요? 새 차로 바꾸세요.

나 : 이래봐도 이 차가 고장 한번 없는걸요.

4. 두고 보세요. -(으)ㄹ 테니까요.

(보기) 가 : 이렇게 작은 차에 어떻게 그 많은 짐을 다 실어요?

나 : 두고 보세요. 다 실을 수 있을 테니까요.

가 : 그 여자가 너를 좋아하게 될까?

나 : 두고 보세요. 틀림없이 저를 좋아하게 될 테니까요.

가 : 이 요리가 맛있게 될까요?

나 : 두고 보세요. 너무 맛이 있어서 음식이 모자랄 테니까요.

가 : 이 아이가 이 다음에 예뻐질까?

나 : 두고 보세요. 틀림없이 미인이 될 테니까요.

가 : 나도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나 : 두고 보세요. 10년 후에는 큰 부자가 될 테니까요.

가 : 남북통일이 정말 될까요?

나 : 두고 보세요. 30년 안에는 꼭 될 테니까요.

5.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1. -는다는 말은 들었는데, -(으)ㄴ 줄은 몰랐습니다.

(보기) 가 : 그 영화가 어땠어요?

나 : 영화가 재미없다는 말은 들었는데, 이렇게까지 재미없는 줄은 몰랐습니다.

가 : 연세대학교의 최 교수님께서 돌아가셨대요.

나 : 그래요? 편찮으시다는 말은 들었는데, 돌아가신 줄은 몰랐습니다.

가 : 박경철 씨가 결국 이혼을 했지요?

나 : 그렇군요. 부부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 이혼한 줄은 몰랐습니다.

가 : 오늘 아침 신문에 무궁화기업의 신입사원 합격자 발표가 났더군요.

나 : 사원을 모집한다는 말은 들었는데, 합격자 발표까지 난 줄은 몰랐습니다.

가 : 김장수 씨가 지난 학기에 연대 교수로 채용되었대요.

나 : 박사학위를 받으셨다는 말은 들었는데, 교수가 되신 줄은 몰랐습니다.

가 : 집사람이 지난 달에 아들을 낳았어요.

나 : 임신하셨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벌써 낳으신 줄은 몰랐습니다.

2. -랄 수가 있나요?

(보기) 가 : 탁구선수시지요?

나 : 선수랄 수가 있나요? 한 번 시합에 나간 것 뿐인데요.

가 : 이 그림을 직접 그리셨다고요? 훌륭한 작품인데요.

나 : 작품이랄 수가 있나요? 그냥 연습으로 그려 본 것 뿐인데요.

가 : 정원이 아주 아름답군요.

나 : 정원이랄 수가 있나요? 그저 작은 뜰이지요.

가 : 이제는 사진의 전문가가 다 되었군요.

나 : 전문가랄 수가 있나요? 취미로 하는 것 뿐인데요.

가 : 이젠 방학이라 쉴 수 있으니 참 좋겠군요.

나 : 방학이랄 수가 있나요? 제출해야 할 보고서가 산더미인걸요.

가 : 문학 작가라면서요?

나 : 작가랄 수가 있나요? 글쓰기를 좋아할 뿐인걸요.

3. -는 데다가 _____ .

(보기) 가 : 비가 와서 소풍은 다음 주에 가는 게 좋겠어요.

나 : 예, 비가 오는 데다가 바람까지 부는데요.

가 : 왜 그렇게 얼굴을 찡그리고 있어요?

나 : 배가 아픈 데다가 머리까지 아파서 참을 수가 없어요.

가 : 한국말이 서양 사람들에게 특히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나 : 문장 구조가 전혀 다른 데다가 한자 단어가 많아서 그래요.

가 : 날로 교통문제가 복잡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나 : 길은 좁은 데다가 자동차 수는 자꾸 늘기 때문이죠.

가 : 철민 씨를 선생님 여동생에게 소개시켜 주는 게 어때요?

나 : 철민 씨는 아직 직업도 없는 데다가 벌써 사귀는 사람도 있대요.

가 : 이번에 상을 받은 '서편제'는 어떤 영화예요?

나 : 작품성이 아주 뛰어난 데다가 감동을 주는 영화예요.

4. -기만 해요.

(보기) 가 : 그 영화 어때요?

나 : 지루하기만 해요.

가 : 그 여자 어때요?

나 : 예쁘기만 해요. 다른 매력은 없는 것 같던데요.

가 : 결혼할 때 기분이 어땠어요?

나 : 떨리기만 했어요.

가 : 처음 운전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어요?

나 : 아무 생각도 안 들고 그저 무섭기만 했어요.

가 : 어제 회의의 분위기가 어땠어요?

나 : 의견들이 달라서 서로 싸우기만 했어요.

가 : 장학금을 받으셨는데 기쁘시죠?

나 : 저보다 잘 하는 분이 많은데도 제가 받게 되어 부끄럽기만 해요.

5. -라서 -기만 해요.

(보기) 가 : 시내 운전을 직접 해 보니까 어때요?

나 : 처음이라서 무섭기만 했어요.

가 : 새로 산 집이 마음에 드세요?

나 : 처음 가지는 내 집이라서 좋기만 해요.

가 : 방문 판매원 일이 재미있어요?

나 : 이제 시작이라서 선배를 따라다니기만 해요.

가 : 한국말 배우기가 힘들지요?

나 : 한국말로 하는 수업이라서 얼떨떨하기만 해요.

가 : 어제 본 영화 재미있었어요?

나 : 아니요, 너무 지루한 얘기라서 졸리기만 했어요.

가 : 김인수 씨가 그 일을 잘 하던가요?

나 : 처음 하는 사회생활이라서 재미있기만 한가 봐요.

6. -는다던데, _____ .

(보기) 가 : 김 선생님 댁에 갈까요?

나 : 손님이 계시다던데, 내일 갑시다.

가 : 3박 4일로 중국 여행을 갈까 해요.

나 : 중국은 굉장히 넓다던데, 3박 4일로 될까요?

가 : 제 동생이 이번에 신라무역에 입사했어요.

나 : 그 회사 들어가기가 무척 어렵다던데, 동생이 실력이 있는 모양이군요.

가 : 감기에 걸린 모양이에요. 자꾸 열이 나고 기침도 해요.

나 : 감기에는 쌍화차가 좋다던데, 한번 들어 보세요.

가 : 이번에 이미선 씨가 결혼한다던데, 상대가 어떤 분인지 아세요?

나 :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던데,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가 : 요즘 강경민 씨 만나 봤어요?

나 : 종로에서 피자집을 개업했다던데, 아직 못 가 봤어요.

문화 해설

우리말 사랑

한국에는 말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말조심을 강조하는 속담, 시조 같은 것이 많다. 그 외에 새해나 경사가 있을 때 좋은 말을 하여 장래를 기원하거나 행복을 비는 덕담이 있다.

속담이란 옛날 사람들이 오랜 경험을 통해 얻은 진리와의 같은 것이기 때문에 실생활에 잘 들어 맞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면, ‘말 한 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 ‘말이란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와 같은 것이 있다.

시조 역시 시의 형식을 빌어 인생의 경험이나 교훈적인 내용을 표현 하고 있다. 다음은 말조심을 강조하는 내용의 시조이다.

말하기 좋다하고 남의 말을 말을 것이

남의 말 내 하면 남도 내 말 하는 것을

말로써 말 많으니 말 말을까 하노라

또 설날이나 돌같은 경사에는 덕담을 하는 풍습이 있다. 즉, 일 년이 시작되는 첫 날에 세배를 하면서 한 해의 복과 평안을 빌어 주는 덕담을 나눈다. 그리고 태어난 지 한 돌이 된 아이에게 다음과 같은 덕담을 해 준다. “훌륭한 장군감이군”, 또는 “자라서 큰 인물이 되거라”라고 하며 아이의 장래가 멋있고 훌륭한 것이 되기를 모인 이들 모두가 기원한다. 이처럼 한국인들은 어떻게 얘기하는가에 따라 일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믿어 왔다. 그러므로 늘 말조심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야기해 봅시다.

속담

1. 우리 나라 사람은 옛 것을 소중히 여기는 편입니다. 다음과 같은 속담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형 만한 아우 없다
- 2) 찬 물도 위, 아래가 있다
- 3) 술과 친구는 오래 될수록 좋다

2. 나라마다 옛날부터 지켜 오는 여러 가지 규칙이나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1) 아이의 탄생

예 : 우리 나라는 아이가 태어나면 대문에 금줄을 걸어 놓음으로써 낯선 사람의 출입을 막았다.

2) 결혼

3) 제사(조상 숭배)

제 37 과

명절과 풍습

1. 절기와 민속

우리나라는 네 계절의 변화가 뚜렷하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이 네 계절에 맞는 농경생활을 하며 살아 왔다. 이러한 생활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농경문화는 음력과 깊은 관계가 있다.

음력은 일년을 24절기로 나누어 날씨의 변화를 기록하고 그 것을 관찰하여 만든 달력이다. 우리나라의 연중 행사나 풍속도 모두 이 음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농업과 어업을 생업으로 하는 우리 민족은 절기마다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다. 제사를 올린 뒤에는 온 마을이 하나가 되어 잔치를 벌여 흥겨운 놀이도 하고 춤도 추며 마을의 번영을 빌었다. 이러한 세시풍속이 전해 내려 오면서 풍습이 된 것이다. 민간의 풍속을 민속이라고 한다. 우리 민속은 명절과 계절에 따라 행해지는 세시풍속과 민간신앙, 그리고 민속놀이에 잘 나타나 있다. 민속의 가지 수는 180가지나 있는데 그 중에서 70가지가 정월에 들어 있다고 한다. 옛날부터 1년 운수는 새해 첫 날부터 시작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월에는 풍년과 건강을 비는 제사와 놀이가 가장 많다.

2. 설날

작은아들 : 차례가 끝났으니까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세배 드려야지요.
형님네부터 하세요.

할 머 니 : 영희가 설빔을 곱게 차려 입으니까 아주 어른스럽게 보이는
구나. 그래 어서들 세배하렴.

큰 아 들 :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세요.

할아버지 : 오냐, 너희들도 소원 성취하고 복 많이 받아라. 금년은 소의
해니 피 부리지 말고 무슨 일이나 소처럼 성실히 하거라.

큰 아 들 : 예, 명심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할아버지 : 너희들만 건강하고 잘 된다면야 나야 더 바랄 게 없지.

3. 대보름

- 사무실에서 -

박 미 숙 : 여기 부럼이 있어요. 부럼들 잡수세요. 잣, 호두, 밤, 땅콩
다 있으니까 골고루 잡수세요.

이 선 생 : 나는 아침에 오곡밥을 먹어서 안 먹어도 돼요.

박 미 숙 : 오곡밥이야 오곡밥이고, 부럼은 1년 내내 건강하게 지내자
는 거니까 뜻이 다르지요.

김 선 생 : 부럼은 나이 수대로 깨물어야 한다니까 내가 제일 많이 먹
어야겠어요.

이 선 생 : 부럼도 부럼이지만, 오늘 저녁에는 김 형 같은 노총각은 꼭 달맞이부터 하세요. 대보름날 달을 보고 비는 소원은 모두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김 선 생 :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작년에도 해 봤지만 헛일이었어요. 이제 그런 거 안 믿기로 했습니다.

4. 단오

부 인 1 : 단오날이라고 쑥떡을 다 하셨군요. 햇쑥이라 아주 향기로운데요.

부 인 2 : 흥내만 났어요. 시골 같으면 초여름 명절로는 단오날이 제일이지요. 서울에 사니까 명절을 다 잊어 버리게 돼요.

부 인 1 : 음력 5월에는 농사일도 좀 틈이 있을 때고 해서 단오날 남자들은 씨름하고 여자들은 그네 뛰면서 즐겁게 지내지요.

부 인 2 : 우리 명절은 참 재미있어요. 3월 3일, 5월 5일, 7월 7일처럼 달과 날의 수가 홀수이면서 겹치는 날을 명절로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부 인 1 : 어디 그 뿐인가요? 9월 9일도 있지요. 1년 열두 달 크고 작은 명절이 없는 달이 없어요.

부 인 2 : 그래요. 우리 나라만큼 명절이 많은 나라도 드물 거예요.

5. 팔월 한가위

딸 : 송편을 예쁘게 빚으면 예쁜 딸을 낳는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어머니 : 글썄,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고 조상 차례에 쓸 음식이니까 정성껏 만들라는 말씀이겠지.

딸 : 그런데, 추석은 언제부터 시작된 명절이에요?

어머니 : 전해 오는 말로는 신라시대(3대 유리왕 때)부터 내려오는 풍습이라더라, 송편 속을 골고루 많이 넣어라.

딸 : 우리 명절 중에 추석이 제일 좋은 때인것 같아요.

어머니 :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했잖니?

어휘와 문법

1. 절기와 민속

1. 뚜렷하다 : 흐리지 않고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다.

희미하다

그 사람은 이목구비가 뚜렷하다. 안경을 쓰니까 뚜렷이 보였다.

2. 바탕 : 어떤 사물이나 일, 현상의 근본.

밀바탕. 바탕색.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새 이론이 만들어졌다.

흰색 바탕의 까만 줄무늬 옷을 입었다.

3. 절기 : 한 해를 24로 나눈 철(계절).

절기 음식.

한국 사람들은 절기에 따라 특별한 음식을 먹는다.

떡은 절기의 구분 없이 항상 즐기는 음식이다.

4. 생업 : 생활비를 벌기 위한 작업.

주업. 부업.

생업에 종사하느라고 아이들을 돌볼 겨를이 없다.

농사를 생업으로 삼고 살아 가려는 사람들이 줄고 있다.

5. 기원하다 :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게 빌다.

축원.

빨리 완쾌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업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6. **별이다** : 놀이나 어떤 자리를 차려 놓다.
술자리를 별이다. 잔치를 별이다. 논쟁을 별이다.

사업을 벌인 지 3년 만에 회사가 두 배로 커졌다.
저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 두 아이가 우리 아이 아닙니까?

7. **흥겹다** : 신이 나고 즐겁다.
흥겨운 잔치, 흥겨운 기분.

그 음악은 아주 흥겨웠다. 한국 사람들은 흥겨우면 어깨춤을 춘다.

8. **번영** : 일이 잘 되어 커지고 좋아짐.
기업의 번영. 번영하다.

우수한 인재들이 한국의 번영을 가져 왔다.
경제 번영을 위하여 국민 모두가 노력한다.

9. **운수** : 사람의 의지로 바꿀 수 없는 하늘의 운이나 재수.
운명. 운수대통.

토정비결을 보니까 올해는 운수가 좋을 거라고 한다.
나는 결혼할 운수가 없나 보다.

2. 설날

1. **차례** : 음력 매달 1일과 15일, 명절, 조상의 생일 등에 낮에 지내는 간단한 제사를 말한다. 그러나 보통은 설날과 추석에 올리는 제사를 의미한다.
차례를 지내다. 차례상.

차례를 지낼 때는 멀리 사는 친척들이 장손의 집에 모인다.
설이나 추석에는 차례 음식으로 밥 대신 떡국이나 송편을 차린다.

2. -네 : '집안' 이나 '가족' 전체.

어제 동생네 집에 놀러 갔다. 거기 옥경이네 집이죠?

3. -렴 : '-려무나'의 준말로서 '해라'체 종결어미이다. 동작동사와 결합하여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허락이나 권유를 나타내며, 과거나 미래시제는 사용하지 않는다.

예 : 할 일이 없으면 집안일이나 하렴.

볼펜이 없으면 내 볼펜을 쓰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한테 부탁하렴.

일요일에는 집에만 있지 말고 데이트나 좀 하렴.

4. 소원 : 바라고 원하는 일.

소원성취. 소원을 이룬다.

한국 사람의 가장 큰 소원은 통일이다. 부모님의 소원을 풀어 드렸다.

5. 성취하다 : 원하던 것을 이룬다.

성취욕. 성취감.

그 사람은 일을 성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소원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6. 꺾 부리다 : 머리를 써서 하기 싫은 일을 잘 피하다.

꺾병. 꺾가 많다.

꺾 부리지 말고 성실하게 맡은 일을 하세요.

시키는 일을 안 하고 꺾만 부린다.

7. 성실하다 : 자기의 힘을 다 하고 거짓이 없다.

불성실하다. 성실성.

그는 똑똑하지는 않아도 성실해서윗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결혼상대자의 조건으로 성실성을 제일로 꼽는다.

8. 명심하다 : 마음에 새기어 두다.

제 말을 명심하세요. 선생님의 가르침을 명심하겠습니다.

9. -는다면야 _____ : 선행 사실이 조건 혹은 가정이 되면 후행문과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뜻이고 '-야'는 강조를 나타낸다.

예 : 대우만 좋다면야 그 회사에 들어 가겠어.

능력이 있다면야 취직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

남북 통일이 된다면야 죽어도 한이 없겠다.

경제만 안정된다면야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관계 없다고 해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면야 누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3. 대보름

1. 부럼 : 일 년 내내 부스럼을 앓지 않기 위해서 정월 대보름에 먹는 밤, 호도, 잣, 땅콩 등을 말한다.

대보름이 가까워서인지 시장에 부럼이 많이 나왔어요.

2. 골고루 :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여럿이 다 고르게. 고루고루.

음식은 골고루 먹어야 한다. 그것을 골고루 나누어 가졌다.

3. �곡밥 : 찹쌀에 기장, 수수, 검정콩, 붉은 팥, 차조 등 다섯 가지 곡식을 넣어서 지은 밥을 말하며 대개 음력 정월 대보름에 먹는다.

대보름에는 �곡밥과 아홉 가지 나물을 먹는다.

4. **내내** :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하여.

일 주일 내내. 한 달 내내.

한 시간 내내 아무 말도 없었다.

한 학기 내내 숙제를 안 내는 사람도 있다.

5. **깨물다** : 아랫니와 윗니로 세게 힘주어 물다.

아이가 너무 귀여워서 깨물고 싶다.

그 사람은 사탕을 빨아 먹지 않고 늘 깨물어 먹는다.

6. **달맞이** : 달이 뜨는 것을 구경하거나 맞는 것. 음력 정월 대보름날이나 추석 날 저녁에 햇불을 켜 들고 산이나 들에 나가 달구경을 하는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풍습 중 하나.

달맞이를 하면서 금년에는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 달라고 빌었다.

올해는 구름이 끼어서 달맞이를 못했다.

7. **빌다** :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해 달라고 간절히 청하다.

용서를 빌다. 행운을 빌다.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다.

건강하시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

8. **-는다기에** _____ : ‘-는다고 하기에’의 준말로써 ‘-기에’는 선행문의 원인에 대한 결과를 후행문에 나타낼 때 쓴다. 선행문과 후행문의 주어는 다르며, 후행문에 명령형이나 청유형 종결어미가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못하다.

예 : 네가 바쁘다기에 도와 주러 왔어.

친구가 아주 떠난다기에 공항까지 배웅 나갔다 왔습니다.

내일까지 이 일을 끝내라기에 밤을 꼬박 새웠어요.

박 선생님이 쓰신 책이라기에 읽어 봤어요.

백화점에서 할인 대매출을 한다기에 구경 갔다 왔어요.

4. 단오

1. 향기롭다 : 좋은 냄새가 나다.

향기가 나다. 악취가 나다. 향수. 향내

향기로운 꽃냄새를 맡으며 그 길을 걸었다. 비누 냄새가 향기롭다.

2. 홀수 : 둘로 나누어 1이 남는 수.

짝수.

동양사람들은 예로부터 홀수를 행운의 수라고 믿었다.

3. 겹치다 : 둘 이상이 서로 같이 놓이거나 포개어지다.

여러 겹. 겹겹이.

약속이 겹쳐서 하나를 취소해야겠다.

요즘 티셔츠 두 장을 겹쳐 있는 것이 유행이다.

4. 일 년 열두 달 없는 달이 없다 : 일 년 내내 매달 있다.

종가에는 제사가 일 년 열두 달 없는 달이 없다.

그들은 1년 365일 싸우지 않는 날이 없다.

5. 드물다 : 많지 않아서 보기 힘들다.

흔하다.

요즘 초가집이 드물다. 텔레비전이 없는 집이 드물다.

5. 팔월 한가위

1. 빚다 : 가루를 반죽하여 떡이나 만두 같은 음식이나, 도자기 같은 미술품을

만들어 내다.

하나님이 흙을 빚어 인간을 만들었다.
송편을 예쁘게 빚어야 예쁜 딸을 낳는다고 한다.

2. **손이 많이 가다** : 여기서 '손'은 힘이나 도움을 뜻하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이다.

한국 음식은 다른 나라 음식에 비해 손이 많이 간다.
아들보다는 딸을 키우는 일이 손이 많이 간다.

3. **정성껏** : '정성'은 힘을 다 하려는 참되고 성실한 마음인데 거기에 '가장 높은 한도에 이르도록'의 뜻을 가진 '-껏'이 붙은 것이다.
힘껏. 마음껏. 실컷.

가족을 위하여 정성껏 음식을 만드는 모습이 아름답다.
정성껏 선물을 포장했다.

4. **-라더라** : '-라고 하더라'의 준말로 명사에 붙어서 쓰이며, 과거에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를 회상하여 청자에게 알릴 때 쓰는 반말 형태의 서술형 종결어미이다. 동사에 붙어서 쓰일 때는 간접화법의 4가지 형식에 따라 구분된다.

예 : 그 소문을 낸 사람은 바로 이 선생이라더라.
입시 경쟁율이 높은 대학은 중위권 대학이라더라.
거기가 어디라더라? 어쨌든 경기도래요.
수입품이라고 모두 좋은 것이 아니라더라.
환절기라서 그런지 병원을 찾는 이들이 대부분 감기 환자라더라.

5.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 한가위는 음력 8월 15일 즉, 추석 을 말하며, 이 때는 날씨도 좋고 먹을 것도 많아서 살기가 좋기 때문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언제나 추석 같았으면 좋겠다는 뜻이다.

문형 연습

1. 절기와 민속

1. -어 오다.

(보기) 가 : 부모님이 안 계신데 그동안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나 :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지금까지 공부해 왔어요.

가 : 전설이 뭐예요?

나 : 옛날부터 입에서 입을 통해 전해 내려 오는 이야기예요.

가 : 부인과 정말 이혼할 생각이세요?

나 : 예, 오랫동안 참아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가 : 따님이 결혼을 하셔서 기쁘기도 하지만 좀 섭섭하시겠어요.

나 : 예, 저 혼자 힘으로 어렵게 키워 왔는데 이제 제 곁을 떠난다니 섭섭해요.

가 : 그분과 결혼하기로 결정하셨어요?

나 : 예, 한 1년동안 가까이에서 봐 왔는데, 마음이 착하고 성격이 좋은 것 같아서요.

가 : 새로 사업을 시작하시려고요?

나 : 예, 한 10년 직장생활을 하면서 계획해 온 게 있어서요.

2. -를 바탕으로 하여 _____.

(보기) 가 :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게 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 정신력을 바탕으로 하여 열심히 연습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가 : 합격하게 된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나 : 선생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여 열심히 노력한 덕이지요.

가 : 어떻게 젊은 사람이 큰 회사에 사장이 될 수 있었지요?

나 : 부모님의 재산을 바탕으로 하여 사업을 시작했으니까요.

가 :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해 보세요.

나 : 이번의 실패를 바탕으로 하여 꼭 목적을 이루겠어요.

가 : 그 나라가 어떻게 짧은 기간에 선진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나 : 대통령의 강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하여 온 국민이 합심해 일한 결과지요.

가 : 어떻게 이런 훌륭한 연구를 하셨어요?

나 : 선배 학자들이 해 놓은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조금 발전시켰을 뿐인데요.

3. -에 의해서 _____.

(보기) 가 : 무슨 일로 예약을 취소하게 되었어요?

나 : 회사 사정에 의해서 출장이 연기되었어요.

가 : 사람의 성격은 어떻게 형성되지요?

나 : 대개 환경과 유전에 의해서 형성되지요.

가 : TV에서 6시에 야구중계를 한다고 신문에 나와 있는데, 왜 안 할까요?

나 : 방송국 사정에 의해서 취소되었다고 조금 전에 안내 방송을 했어요.

가 : 좋은 책과 나쁜 책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나 : 그건 독자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가 : 한국에서 대통령은 어떻게 선출돼요?

나 : 대통령은 국민투표에 의해서 선출됩니다.

가 : 사장님은 분명히 내일 가라고 하셨는데요.

나 : 저는 부장님 명령에 의해서 오늘 간 것 뿐이에요.

4. -도 하고 -도 하며 _____.

(보기) 가 :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세요?

나 : 산책도 하고 가벼운 운동도 하며 하루를 시작해요.

가 : 주말에는 뭘 하세요?

나 : 독서도 하고 음악감상도 하며 지내요.

가 : 교수님들께서는 방학동안 뭘 하시나요?

나 : 새 학기 강의 준비도 하시고 개인 연구도 하시며 방학을 보내세요.

가 :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비행청소년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나요?

나 : 때론 충고도 하고 때론 야단도 치며 바른 길로 인도하지요.

가 : 회사에서 어떤 일을 맡아서 하세요?

나 : 구매자 상담도 하고 시장조사도 하며 판매에 관한 일들을 하지요.

가 : 국회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요?

나 : 법을 개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부에 대한 비판도 하며, 국정 전반에 관한 일을 하지요.

5. -은 -에 잘 나타나 있다.

(보기) 가 :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아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 : 세종대왕의 백성들에 대한 생각은 훈민정음에 잘 나타나 있어요.

가 : 한국인들이 숨씨가 좋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 : 그건 박물관에 있는 유물들 하나하나에 잘 나타나 있어요.

가 : 이 집을 보니 어머니의 손길이 느껴지는군요.

나 : 예, 어머니의 손길은 집안 구석구석에 잘 나타나 있어요.

가 : 그 회사는 소비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나 : 그럼요. 소비자를 중시하는 정성은 제품 하나하나에 잘 나타나 있어요.

가 : 그 영화에서 감독이 말하려는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나 : 그 감독의 의도는 영화의 끝 부분에 잘 나타나 있지 않아요?

가 : 이 책을 보니 저자가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지극한 것 같아요.

나 : 예, 부모님에 대한 사랑은 특히 그의 편지에 잘 나타나 있어요.

2. 설날

1. -렴.

(보기) 가 : 오늘은 이 옷을 입으려고 하는데, 보시기에 어때요?

나 : 네 마음대로 하렴.

가 : 집에 일이 있어서 일찍 좀 가 봐야겠어요.

나 : 여기 일은 걱정 말고 빨리 가 보렴.

가 : 시험 결과가 궁금해서 다음 주까지 못 기다리겠어요.

나 : 이젠 좀 느긋하게 결과를 기다리렴.

가 :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나 : 그래, 조심해서 다녀오렴.

가 : 아버님, 저희들 신혼여행은 하와이로 갈까 합니다.

나 : 그래, 너희들 좋을 대로 하렴.

가 : 이 기쁜 소식을 모두에게 전해야겠어요.

나 : 그래, 미국에 계시는 큰아버지께도 알려 드리렴.

2. -면야 _____.

(보기) 가 : 제가 미국에 여행 가면 안내해 주시겠어요?

나 : 미국에 오시면야 제가 여기 저기 안내해 드리지요.

가 : 아버지, 제게 하신 약속 잊지 마세요.

나 : 그럼 네가 1등을 하면야 자전거를 사 주고 말고.

가 : 제가 그 일을 도와 드릴 테니까, 한잔 사세요.

나 : 도와 주시기만 하면야 뭐든지 해 드릴게요.

가 : 장학금을 받으면 꼭 한턱 내세요.

나 : 장학금만 받으면야 한턱 아니라 두턱도 내지요.

가 : 남편이 회사 끝나면 곧바로 집에 돌아오세요?

나 : 그렇게만 하면야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가 : 날씨가 흐린데 비행기가 뜰 수 있을까요?

나 : 비만 오지 않는다면야 문제가 없을 거예요.

3. 대보름

1. -야 -고 _____.

(보기) 가 : 동생은 키가 크고 날씬한데 선영 씨는 키가 작군요.

나 : 동생이야 동생이고 저는 저니까 비교하지 마세요.

가 : 조금 전에 저녁을 먹었는데 아이스크림을 또 먹어요?

나 : 저녁이야 저녁이고 아이스크림은 후식이니까 먹어야죠.

가 : 3급은 숙제가 별로 없었는데 4급은 왜 이렇게 많아요?

나 : 3급이야 3급이고 4급은 어려우니까 숙제를 많이 해야 해요.

가 : 아버지가 부자니까 돈 걱정은 없지요?

나 : 아버지야 아버지고 저는 가난하니까 걱정이 많아요.

가 : 내일이 시험이라면서 이렇게 일찍 자요?

나 : 시험이야 시험이고 건강을 위해선 일찍 자야 되지요.

가 : 어제 점심을 사 주신다는 말씀 잊지 않으셨죠?

나 : 어제야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죠. 전 벌써 잊어 버렸어요.

2. -도 -지만 _____.

(보기) 가 : 건강이 나빠져서 운동을 해야겠어요.

나 : 운동도 운동이지만 술부터 끊으세요.

가 : 영화 내용이 정말 좋지요?

나 : 내용도 내용이지만 배경음악도 정말 좋은데요.

가 : 마음이 중요하니까 선물은 값이 싼 것도 괜찮겠지요?

나 : 마음도 마음이지만 너무 싼 것은 곤란한데요.

가 : 이번 시험 성적을 잘 받으려고 며칠 밤을 새웠어요.

나 : 성적도 성적이지만 건강을 생각해야지요.

가 : 오늘 날씨가 나쁘니까 소풍가는 것은 다음 날로 미루시다.

나 : 날씨도 날씨지만 오늘은 제가 좀 할 일이 있어요.

가 : 싸우는 아이들이 나빠요.

나 : 싸우는 아이도 아이지만 그냥 보고 있는 어른도 나빠요.

3. -는다지 않아요.

(보기) 가 : 여기 있는 걸 모르고 그렇게 멀리까지 찾으러 다니셨군요.

나 : 그래서 등잔 밑이 어둡다지 않아요.

가 : 국민학교 때부터 책상에만 앉으면 잠이 오는데 그 버릇이 없어지질 않아요.

나 : 원래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지 않아요.

가 : 박영철 씨는 박사학위가 4개라는데 참 겸손하세요.

나 :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지 않아요.

가 : 김 선생님이 도와 주셔서 아주 쉽게 일을 끝냈어요.

나 :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지 않아요.

가 : 아버지는 유명한 스키 선수였는데 아들은 스케이트 선수로 유명해요.

나 : 그래서 부전자전이라지 않아요.

가 : 가을이 되니까 왜 이렇게 식욕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나 : 그래서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지 않아요.

4. -는다기에 _____.

(보기) 가 : 텔레비전을 많이 보시는군요.

나 : 듣기 연습에 좋다기에 시간 있을 때마다 봐요.

가 : 오늘은 방안이 아주 깨끗한데요.

나 : 손님이 오신다기에 좀 치웠지요.

가 : 바쁘실 텐데 극장엘 다 오셨군요.

나 : 영화가 재미있다기에 한번 보려고요.

가 : 국민학생인데 영어까지 가르치세요?

나 : 다른 집 아이들도 배운다기에 우리도 가르쳐요.

가 : 할머니께 드리는 선물인데 너무 색이 야하지 않아요?

나 : 신식 할머니시라기에 이런 색을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가 : 생일 선물로는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나 : 스무번 짜 생일이라기에 좀 특별한 것을 하고 싶어서요.

5. -기로 했다.

(보기) 가 : 한국어 테이프를 사셨군요.

나 : 예, 이제부터 아침마다 1시간씩 테이프를 듣기로 했습니다.

가 : 이번 학기에 휴학을 하신다고요?

나 : 이번 학기는 좀 쉬면서 여기 저기 여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가 : 다음 주말에 결혼하신다고요?

나 : 약혼식은 생략하고 바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가 : 무슨 내용으로 연극을 할 거예요?

나 : 저희는 학교 생활을 연극으로 꾸며 보기로 했습니다.

가 : 휴가때 가족들과 어디 갈 거예요?

나 : 작년에는 산으로 갔으니까 이번에는 바다로 가기로 했습니다.

가 : 이번 주 좌담회 주제는 뭐예요?

나 : 두 나라의 교육제도를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4. 단오

1. -라고 -를 다 _____.

(보기) 가 : 뭘 받으셨어요?

나 : 오늘이 어버이날이라고 결혼한 큰 딸이 선물하고 카드를 다 보내 주었어요.

가 : 웬 케익이에요?

나 : 글썄, 옆집 아주머니가 오늘이 제 생일이라고 케익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가 : 누가 준 꽃이에요?

나 : 친구들이 제 졸업식이라고 꽃을 다 가지고 왔군요.

가 : 초콜릿이 왜 이렇게 많아요?

나 : 발렌타인 데이라고 여자 친구가 초콜릿을 다 주는군요.

가 : 스웨터가 참 예쁘군요.

나 : 어머니께서 제 생일이라고 스웨터를 다 짜 주셨어요.

가 : 참 예쁜 목걸이군요.

나 : 예, 결혼 10주년이라고 남편이 목걸이를 다 사 주었어요.

2. -로는 -가 제일이다.

(보기) 가 : 친구가 새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뭘 사다 주면 좋을까요?

나 : 집들이 선물로는 세탁 비누가 제일이에요.

가 : 신혼여행지로는 어디가 적당할까요?

나 : 신혼여행지로는 제주도가 제일이에요.

가 : 신랑감으로 어떤 직업의 남자가 제일 인기가 있어요?

나 : 신랑감으로는 의사가 제일이지요.

가 : 결혼기념일에는 어떤 선물이 좋을까?

나 : 결혼기념 선물로는 꽃다발이 제일이지 않아요?

가 : 어디에 가면 옷을 싸게 살 수 있어요?

나 : 옷이 싸기로는 남대문 시장이 제일이지요.

가 : 냉면 맛있게 하는 식당 아세요?

나 : 값은 좀 비싸지만 맛이 있기로는 신촌냉면이 제일이지요.

3. -도 -고 해서 _____.

(보기) 가 : 하숙집을 옮기셨군요.

나 : 지난 번 집은 방도 좁고 해서 조금 더 큰 방이 있는 집으로 옮겼어요.

가 : 벌써 그 일을 다 끝냈어요?

나 : 시간도 없고 해서 대강 일을 끝냈어요.

가 : 저녁에 일찍 들어오실 거죠?

나 : 친구하고 약속도 있고 해서 오늘은 늦을 것 같은데요.

가 : 주말인데 집에만 계실 거예요?

나 : 다음 주에 해외출장도 있고 해서 이번 주말은 좀 설까 합니다.

가 : 왜 아직 사장님께 보고 안 드렸어요?

나 : 지금 회의도 시작했고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려고요.

가 : 아이가 이렇게 아플 때까지 몰랐어요?

나 : 아프다는 말도 안 하고 해서 큰 병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지요.

4. 어디 _____ 뿐인가요?

(보기) 가 : 요즘 텔레비전에 그 회사 광고를 많이 하던데요.

나 : 어디 텔레비전 뿐인가요. 라디오, 신문, 잡지에서까지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가 : 그 아이 성적이 말이 아니에요.

나 : 어디 성적 뿐인가요? 생활 태도도 엉망이에요.

가 : 한국말 문법이 어렵지요?

나 : 어디 문법 뿐인가요? 단어도 얼마나 어려운데요.

가 : 설악산이 아름답지요?

나 : 어디 설악산 뿐인가요? 한국의 산들은 다 아름다운 것 같아요.

가 : 그 여자가 참 친절하지요?

나 : 어디 친절하다 뿐인가요? 얼마나 상냥한데요.

가 : 사장님의 사업 경영술이 대단하신데요.

나 : 어디 사업 경영 뿐인가요? 인사 관리술도 대단하시지요.

5. -만큼 -(으)ㄴ -도 -(으)ㄹ 거예요.

(보기) 가 : 저는 슈바이처 박사를 존경해요.

나 : 역사상 그분만큼 훌륭한 의사도 없을 거예요.

가 : 하숙집 아주머니가 인정이 많으시다면서요?

나 : 예, 정말 그 아주머니만큼 인정 많은 분도 드물 거예요.

가 : '서편제' 재미있었어요?

나 : 예, 정말 그 영화만큼 좋은 영화도 많지 않을 거예요.

가 : 김영규 씨는 요즘도 열심히 일하시죠?

나 : 예, 그분만큼 성실한 사람도 찾기 쉽지 않을 거예요.

가 : 그 할머니 아들이 그렇게 효자라면서요?

나 : 정말 그 할머니만큼 복이 많은 분도 없을 거예요.

가 : 김 박사님 따님이 참하다고요?

나 : 예, 요즘 그 따님만큼 암전하고 참한 아가씨도 보기 힘들 거예요.

5. 팔월 한가위

1. -(으)면 -다던데 그게 사실이에요?

(보기) 가 : 어제 결혼식에 갔었는데 신부가 좋아서 계속 웃더군요.

나 : 결혼식날 신부가 웃으면 첫 딸을 낳는다던데 그게 사실이에요?

가 : 오늘 아침에 까치가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나 :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던데 그게 사실이에요?

가 : 요즘 신촌백화점에서 세일을 하는데 같이 가실래요?

나 : 그 백화점에서는 3만원 이상 물건을 사면 사은품을 준다던데 그게 사실이에요?

가 : 학교 오다가 영구차를 보았어요.

나 : 아침에 영구차를 보면 그 날은 재수가 좋다던데 그게 사실이에요?

가 : 다음 주 일요일이 정월 대보름이지요?

나 : 예, 정월 대보름날 달을 보고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에요?

가 : 이번 일요일쯤 이사를 갈까 해요.

나 : 손이 없는 날 이사를 가면 재수가 좋다던데 그게 사실이에요?

2. 글썄 -다는 말(씀)이겠지.

(보기) 가 : 할머니께서 임신 중에는 장례식에도 가지 말고 음식도 예쁜 것만 먹어야 한대요.

나 : 글썄, 매사에 조심하라는 말씀이겠지.

가 : 아들이 있으면 제주도 여행, 딸이 있으면 해외 여행을 한대요.

나 : 글썄, 아들이 없다고 실망하지 말라는 말이겠지.

가 : 우리 어머니께서 이사한 집에 집들이로 가루 비누를 가져 가는 게 좋다는데 왜 그럴까요?

나 : 글썄, 가루 비누의 거품이 일어나는 것처럼 재산이 많아지라는 말쑤이겠지.

가 :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기만큼 어렵대요.

나 : 글썄,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와 주라는 말(쑤)이겠지.

가 : 옛날에는 여자들이 결혼해서 3년은 병어리, 3년은 귀머거리, 3년은 장님으로 살라고 했대요.

나 : 글썄, 그만큼 시집살이가 어려우니까 많이 참아야 한다는 말이겠지.

가 : 훌륭한 남자의 뒤에는 반드시 훌륭한 여자가 있다는 말이 있대요.

나 : 글썄, 그만큼 여자의 영향력이 강하다는 말이겠지.

3. 전해 오는 말로는 -다더라.

(보기) 가 : 왜 이사를 가면 팔죽이나 팔떡을 해요?

나 : 전해 오는 말로는 팔의 붉은 색이 귀신을 쫓는 의미가 있다더라.

가 : 우리 나라를 만든 단군은 어떤 분이셨어요?

나 : 전해 오는 말로는 단군은 곰히 변해서 된 웅녀의 아들이라더라.

가 : 왜 단오날에는 창포물에 머리를 감아요?

나 : 전해 오는 말로는 창포물에 머리를 감으면 머리가 까맣고 윤이 난다더라.

가 : 정월 대보름이 가까워 오니까 땅콩, 호두, 잣 등이 많이 팔린다는데 왜 그래요?

나 : 전해 오는 말로는 땅콩, 호두, 잣 등의 부럼을 정월 대보름에 먹으면 1년 내내 부스럼이 안 난다더라.

가 : 어머니께서 선달 그믐날 밤에 잠을 자면 안 된다는데 왜 그래요?

나 : 전해 오는 말로는 선달 그믐날 잠을 자면 눈썹이 하얗게 센다더라.

가 : 한글을 만들기 전에는 우리 나라 글자가 없었어요?

나 : 전해 오는 말로는 중국의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만든 이두라는 글자가 있었다더라.

4. _____ 중에 -가 제일 -(으)ㄴ 것 같아요.

(보기) 가 : 한국 사람들의 사망 원인 중에 제일 많은 것이 뭐예요?

나 : 사망 원인 중에 교통사고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가 : 요즘 서울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나 :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환경 문제가 제일 심각한 것 같아요.

가 : 아이의 성격 형성에 제일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 : 여러 요인 중에 가정 환경이 아이의 성격 형성에 제일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가 : 육상 경기 중에 제일 힘든 경기가 뭐라고 생각해요?

나 : 육상 경기 중에 인내심을 요구하는 마라톤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가 : 일간지 중에 어느 신문이 외국인들이 읽기가 제일 쉬워요?

나 : 일간지 중에 한겨레 신문이 한자가 없어서 외국인들이 읽기가 제일 쉬운 것 같아요.

가 : 한국인의 사고방식 중에서 이해하기 힘든 것이 있어요?

나 : 한국인의 사고방식 중에서 '한'이라는 개념이 제일 이해하기 힘든 것 같아요.

5.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만 _____ .

(보기) 가 : 어떤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나 :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 어머니만 같았으면 좋겠어요.

가 : 오늘은 날씨가 정말 화창하죠?

나 :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날씨가 언제나 오늘날만 같았으면 좋겠어요.

가 : 이번 시험은 잘 볼 자신 있어요?

나 :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난 번 성적만큼만 되었으면 해요.

가 : 이번에 과장님이 바뀐다는데 어떤 사람이 올까?

나 :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전임 과장님만 같았으면 좋겠어요.

가 : 월급은 얼마나 받고 싶어요?

나 :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제가 일한 만큼만 주세요.

가 : 자녀는 몇 명이나 낳을 계획이에요?

나 :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아들 하나 딸 하나만 낳고 싶어요.

문화 해설

한국인이 홀수를 좋아한다?

한국인이 홀수를 좋아하는 것은 한국인의 생각 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음양사상 때문이다. 수에 있어서 홀수는 양수(陽數)이고 짝수는 음수(陰數)이다. 양(陽)은 겉으로 드러난 것, 강한 것, 능동적인 것을 뜻하고, 음(陰)은 숨어 있는 것, 약한 것, 수동적인 것을 뜻한다. 따라서 수의 선택에 있어서도 0, 2, 4, 6, 8보다 1, 3, 5, 7, 9를 즐겨 사용하였다. 그 중에서도 양수가 두 번 겹쳐진 설날(1.1), 삼짇날(3.3), 단오(5.5), 칠석(7.7), 중양절(9.9) 등과 같은 날은 '기운이 짝 찬 날', '생명력이 가득한 날'이라 하여 특별한 명절로 삼았다.

한국에는 이러한 양수를 선택하여 불길한 기운을 막고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하는 여러 풍습이 있다. 죽은 사람에게는 두 번 절하지만 산 사람에게는 한 번만 절을 하는 것이다. 또한 식생활에서도 기본 음식에 곁들이는 반찬 수에 따라 음식상을 분류하는데, 이 때에 그 수를 홀수로 정하여 3첩, 5첩, 7첩, 9첩 반상이라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건축에서도 집의 칸 수를 3칸, 5칸, 7칸, 9칸, 11칸 등 양수를 주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한국인은 짝수보다 홀수인 양수를 행운의 수로 여겨 즐겨 사용하였다.

이야기해 봅시다.

명절과 풍습

1. 세계 여러 나라마다 독특한 풍습이 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풍습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2. 우리 나라는 명절이면 먹는 특별한 음식이 있습니다. 다음 음식들은 어떤 것들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 1) 떡국
 - 2) 송편
 - 3) 오곡밥
 - 4) 팔죽
 - 5) 자기 나라의 특별한 음식

제 38 과

그건 다 옛날 이야기지요.

1. 생활과 변화

옛말에 “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이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또는 “십 년이란 긴 세월이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자연도 변한다” 또는 “강산이 변하려면 십 년만큼 지나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유교사상을 생활의 뿌리로 삼고 살았던 옛날 사람들에게는 십 년이란 참으로 긴 세월이었다. 다른 나라들과 교류도 별로 없고 또 남의 것을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오로지 우리의 것만을 지키며 살았던 변화가 없는 사회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많은 변화 속에서 살고 있나? 세계는 하나라는 생각 아래 국제화의 물결을 타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끝없는 변화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 그 중에는 바람직한 변화도 많으나 때로는 우리의 뿌리까지 흔들어 놓는 듯한 위험을 느끼게 하는 것도 있다. 그리하여 너무 빨리 변하는 것을 싫어하는 기성세대와 하루라도 빨리 새롭게 변하고 싶어하는 젊은 세대 간의 마찰도 생기게 된다. 기성세대는 과거의 추억 속에서 살고 젊은이는 현재에 살기 때문이다. 기성세대가 살아 온 과거가 아무리 시대적으로 뒤떨어지고 제도에 얽매어 힘들게 살았다고 해도 모두가 잊을 수 없는 시간들이다. 텔레비전이 없던 시대의

아이들은 으레 할아버지, 할머니를 졸라서 조상들의 이야기며 할머니가 시집 오시던 이야기나 아버지, 어머니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곤 했다. 그럴 때마다 식구들은 한자리에 모였으며, 그 속에는 대화가 있었고 웃음과 사랑이 있었다. 그것은 가정의 산 교육이요 본보기가 되었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옛날 이야기가 되어 버렸다.

2. 솜씨

손녀 : 할머니 이 옷감 좀 보세요. 제 설빔이래요. 빨리 입어 보았으면... 언제 지어 주실 거예요?

할머니 : 무슨 소리. 한복집에 갔다 맡겨야지. 내가 어떻게 그 예쁜 옷을 짓겠니?

손녀 : 옛날부터 음식 솜씨하고 바느질 솜씨는 우리 할머니를 따를 사람이 없었다던데요?

할머니 : 그건 다 옛날 이야기지. 지금이야 시력도 전만 못하지만 그보다도 옷 모양들이 예전 같지가 않아서 지을 수가 없단다.

손녀 : 그래도 사람들이 우리 할머니 한복 입으신 맵시가 제일이라던데... 한복 모양까지 왜 자꾸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할머니 : 시대에 따라 모든 것이 변하게 마련이지. 변하는 것이 꼭 나쁘달 수야 없잖나?

3. 남녀 칠세 부동산

존 슨 : 아직도 한국에는 남녀 칠세 부동산이라는 사상이 많이 남아 있다고 봐요.

김 선생 : 그건 유교사상에서 나온 옛날 이야기지요.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됐지요?

존 슨 : 여기서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 결혼을 축하하러 오신 분들인데 이렇게 남녀가 딱 갈라 앉아 있으니까요.

김 선생 : 그러고 보니 정말 그렇군요. 오랜만에 만나는 분들이 서로 지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남녀의 화제가 달라서 그럴 거예요.

존 슨 : 결혼식장만이 아니에요. 어떤 땐 부부동반으로 초대받아 가 보아도 남녀의 자리를 따로 준비해 놓은 데도 있어요.

김 선생 : 그런 것이 꼭 유교사상 때문이랄 것까지는 없겠지만 남녀가 유별하다는 오랜 생활습관이 아직 남아 있나 봅니다.

4. 사농공상

존 슨 : 해마다 대학 졸업 실업자들이 늘어난다는데 왜 모두 대학교에만 가려고들 할까요? 사농공상의 직업관 때문인가요?

김 선생 : 직업에 대한 그런 개념은 농업을 생업으로 하던 계급사회 시대의 이야기지요. 요즘 직업관은 옛날과 정반대 아닙니까?

존 슨 : 그래도 좋은 직장과 좋은 결혼 상대자를 얻으려면 대학교를 나와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던데요.

김 선생 : 우리나라도 계속 공업국으로 성장, 발전해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사고방식도 달라질 겁니다.

존 슨 : 물론 고급 실업자들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럼 앞으로는 기술 인력을 필요로 하겠군요.

김 선생 : 그럼요, 금년도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률이 100% 라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지요.

5. 아들 선호

존 슨 : 이 바위 이름이 아들 바위라던데, 정말 옛날 부인들이 아들을 낳기 위해서 이 곳에서 백일 동안이나 기도를 했을까요?

김 선생 : 아들만 낳는다면야 무슨 일인들 못했겠어요? 아마 우리나라만큼 아들 선호사상이 강한 나라도 없을 겁니다.

존 슨 : 요즘도 아들을 못 낳으면 이혼을 당하는 경우가 있나요?

김 선생 : 그건 가문의 혈통을 잇는다는지 제사를 드린다는지 하는 일은 반드시 아들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옛날 이야기예요.

존 슨 : 요즘 국민학교에서는 여자 아이들보다 남자 아이들이 더 많아서 짝이 없는 남자 아이들이 많다던데, 그 문제를 어떻게 보세요?

김 선생 : 1970년대만 해도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고 하던 구호가 이제는 '사랑모아 하나 낳고 정성모아 잘 키우자'로 변했답니다. 앞으로는 달라질 겁니다.

어휘와 문법

1. 생활과 변화

1. **기나긴** : 길다, 멀다, 크다와 같은 상태동사의 어간에 ‘-나’를 붙이고 같은 동사를 겹쳐 쓰는 게 보통인데, 그 상태를 강조하기 위해 쓴다.

예 : 기나긴 장마가 끝나고 오랜만에 날씨가 갓다.
 크나크신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머나먼 외국 땅에서 고생이 심하지 않은지?
 기나긴 세월을 한숨으로만 지낼 수가 있을까요?
 젊으나 젊은 나이에 놀고 먹다니!

2. **생활의 뿌리로 삼다** : 생활의 기본 정신으로 생각하다.

조선시대에는 충효를 생활의 뿌리로 삼았다.
 근검절약하는 정신을 생활의 뿌리로 삼아야 한다.

3. **교류** : 문화나 사상 등이 서로 오가며 섞임.

문화 교류. 경제 교류

날로 국제 간의 교류가 많아지고 있다.
 통일을 위해서는 정부 간의 교류는 물론 민간 교류도 필요하다.

4. **오로지** : 오직. 다른 어느 것도 아닌 그 한 가지만.

오로지 자식만을 위하여 살아 오신 한국의 어머니들!
 오로지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5. **물결을 타다** : '물결'은 물이 흔들려서 생기는 작은 파도를 가리키며, 이 표현은 시대의 형편이나 상황에 맞추어 행동한다는 뜻이다.

개방의 물결을 타고 새로운 문화가 마구 들어오고 있다.

6. **허덕이다** : 힘들어서 괴로워하거나 숨이 차도록 애쓴다.
허덕거리다.

요즘 주부들이 물가고에 허덕이고 있다.

경영난에 허덕이던 회사를 살려 냈다.

7. **흔들리다** : 어떤 것에 의해 좌우나 앞뒤로 움직이다. '흔들다'의 피동형.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가 흔들린다.

담배 광고를 보고 금연하기로 한 결심이 흔들렸다.

8. **하루라도 빨리** :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빨리'라는 뜻이다.

더 늦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병원에 가 보세요.

하루라도 빨리 부모님을 만나 뵙고 싶어서 막차를 타고 고향에 갔다.

9. **마찰** : 두 물체가 서로 닿거나 무엇에 대고 문지름.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아 충돌함.

마찰이 생긴다. 마찰을 일으키다.

둘 사이의 마찰을 피하려면 서로 양보해야 한다.

양국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무역마찰이 생겼다.

10. **추억** : 지나간 과거의 일을 다시 생각해 봄.

추억은 항상 아름다운 법이다.

학교 앞을 지날 때마다 학창시절의 추억이 되살아난다.

11. **얹매이다** : 어떤 것에 이리저리 관계되어서 벗어나거나 빠져 나오지 못하게 되다.

그 사람의 사고방식은 낡은 인습에 얹매여 있다.
회사일에 얹매여서 가족과 지낼 시간이 부족하다.

2. 솜씨

1. **-감** : 어떤 일의 바탕이 되거나 물건의 재료가 되는 것.
신랑감. 안주감. 옷감.

이 장난감은 아이의 지능개발에 좋은 것이다.
요즘 일감이 없어서 쉬는 공장이 많다.

2. **짓다** : 재료를 가지고 만들거나 모양이 나타나도록 만들다.
밥을 짓다. 집을 짓다. 농사를 짓다. 이름을 짓다. 미소를 짓다.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은 할머니께서 손수 지어 주신 한복이다.

3. **솜씨** : 손으로 물건을 만드는 재주.
음식 솜씨. 바느질 솜씨. 글 솜씨. 말 솜씨.

옷 만드는 솜씨가 대단하시군요.
옛날에는 여자를 고를 때 맵시, 솜씨, 말씨를 보았다고 한다.

4. **따를 사람이 없다** : 그 사람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된장찌개를 맛있게 끓이기로는 우리 어머니를 따를 사람이 없다.
그 분야에서는 강 선생님을 따를 사람이 없다.

5. **시력** : 일정한 거리에서 사물을 볼 수 있는 능력의 정도.

시력이 약하다. 시력이 나빠지다. 시력이 좋다. 청력.

어제 안과에서 시력검사를 했다.

요즘 시력이 나빠서 안경을 끼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6. -만 못하다 : -보다 부족하다.

형이 아우만 못하다. 이 집 냉면이 저 집 냉면만 못하다.

아무리 비싼 호텔이라도 내 집만 못하다.

7. 맵시 : 곱게 가꾼 모양.

한복을 맵시있게 입었다.

바지보다 치마를 입은 모습이 훨씬 맵시가 난다.

8. -게 마련이다 : 동작동사나 상태동사와 결합하여 어떤 결과나 상태가 당연하다는 뜻을 나타낼 때 쓴다. '마련이다'는 주로 '-게', '-기' 또는 '-도록'과 같이 쓰인다.

예 :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마련이죠.

손님들은 같은 값이면 주인이 친절한 가게를 찾아가게 마련이죠.

나쁜 마음을 먹고 남을 괴롭히면 벌을 받게 마련이에요.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더 논리적인 사고를 갖게 마련이죠.

사람은 어차피 나이를 먹으면 늙게 마련인데, 뭘.

3. 남녀 칠세 부동산

1. 남녀 칠세 부동산 : 일곱 살만 되면 그 때부터 남자와 여자가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말.

요즘은 남녀 칠세 부동산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있다.

2. **사상** : 판단, 추리 등을 거쳐 생긴 생각이나 의견.
사상가, 사상범, 자본주의 사상.

그의 사상은 남과 다른 데가 있다.

공산주의 사상과 자본주의 사상은 공존하기가 어렵다.

3. **딱** : 딱딱한 것이 부딪칠 때 나는 소리, 또는 어떤 일에서 분명하고 굳세게 버티는 모양.

뭔가 단단한 것이 머리를 딱 때렸다. 지난 주부터 담배를 딱 끊었다.

빔장이가 집 앞에 딱 버티고 서서 비켜 주지 않았다.

4. **가르다** : 구별해서 나누다.

갈라지다. 갈라 먹다.

편을 갈라서 시험을 했다. 사과를 반으로 갈랐다.

5. **-고 보니** ____ : 동작동사와 결합하며, 어떤 행위를 한 후에 결과로 생각한 것
이나 관찰한 내용을 후행문에 쓴다. 시제를 나타내는 형태소와는 직접 결합할
수 없다.

예 : 졸업을 맞이하고 보니 그동안 고마웠던 분들이 생각나는군요.

그 사람을 만나고 보니 소문과는 다르게 매우 성실한 사람이더군요.

그 옷을 사고 보니 나한테는 잘 안 어울리는 것이었어요.

시장해서 계속 먹고 보니 과식을 한 것 같아요.

야단을 치고 보니 내가 너무했나 봐요.

6. **화제** : 이야기할 만한 주제.

그 사람은 화제가 풍부해서 만나면 지루하지 않다.

요즘 서편제가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다.

7. **부부동반** : 어떤 모임에 배우자를 데리고 감.

동반자. 동반하다. 동반자살.

한국에서는 부부동반으로 가는 모임이 별로 많지 않다.

지난 주말에 부부동반 등산대회가 열렸다.

8. -(으)ㄹ 것까지야 없겠지만 : ‘그럴 정도까지는 필요없겠지만’의 뜻이다.

직접 찾아갈 것까지야 없겠지만 전화는 드려야겠지요.

등산화를 신을 것까지야 없겠지만 운동화는 신어야겠지요.

9. 유별하다 : 다르다. 구별이 있다.

유교에서는 부부유별이라 하여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구분한다.

남녀가 유별한데 어떻게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냐고 할머니께서 걱정하셨다.

4. 사농공상

1. 늘어나다 : 원래보다 커지거나 길어지거나 많아지다.

줄어들다.

처음에는 2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학생이 5명으로 늘어났다.

거짓말을 할 때마다 피노키오의 코가 늘어났다.

2. -관 : 어떤 추상적인 것에 대한 생각이나 의견 또는 견해.

인생관. 세계관. 직업관.

요즘 젊은 여성들의 결혼관이 옛날과는 많이 달라졌다.

뚜렷한 교육관이 없이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부모가 많다.

3. 개념 : 같은 종류의 사물이나 추상적인 대상들에서 공통적으로 뽑아 내어 종합한 생각.

기본 개념. 개념적.

신학은 신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 사람은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늘 약속시간을 안 지킨다.

4. **계급사회** :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신분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는 사회.
계급주의. 계급투쟁.

조선시대까지는 양반과 평민이 구별된 계급사회였다.

인도의 간디는 계급사회를 없애려고 노력했다.

5. **정반대** : 완전히 반대됨.

정가운데. 정사각형.

형과 동생이 외모는 비슷하지만 성격이 정반대이다.

한국과 호주는 계절이 정반대이다.

6. **-는 것 같던데요** : '-는 것 같다'에 '-던데요'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문형이다.
확실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과거의 사실을 회상하여 듣는 이에게 말할 때 쓴다.

예 : 그 학생은 오늘 뿐만 아니라 자주 결석을 하는 것 같던데요.

김 선생님은 우리가 방문하여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요.

다른 시장보다 남대문 시장에 물건이 더 많은 것 같던데요.

다나가 씨는 한국에 오기 전에 일본에서 한국말을 좀 배운 것 같던데요.

공직자의 재산공개법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는 것 같던데요.

7. **성장** : 자라서 커짐.

성장기. 경제 성장.

인간은 보통 20세 전후에 신체적 성장이 끝난다.

그 아이는 영양 부족으로 성장발육이 늦다.

8. **인력** : 사람의 힘 또는 인적 자원.

인력 개발. 인력난.

인간의 죽음은 인력으로 막을 수 없다.
일거리는 많은데 인력이 부족하다.

9. **-를 필요로 하다** : ‘꼭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 필요하다’와 뜻이 같다.

아이는 어머니의 사랑을 필요로 한다.
식물은 물, 공기, 햇빛을 필요로 한다.

10. **실업계** : 실제 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농업, 상업, 공업 등의 분야.
인문계. 자연계. 예체능계.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주로 취업에 관계된 과목을 배운다.
요즘은 실업계를 지원하는 학생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11. **취업률** : 직장을 얻어 일을 하는 사람의 비율.
인구증가율. 실업률.

요즘 고학력자의 취업률이 낮아지고 있다.
여성의 취업률은 남성의 취업률에 비해 낮다.

5. 아들 선호

1. **선호** : 어떤 것을 가려 특별히 좋아함.
선호사상. 선호도.

한국 사람들은 소형차보다는 중형차를 선호한다.
젊은 주부들은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 같다.

2. **-(이)ㄴ들** _____ : 명사에 붙어 쓰이며, 양보를 나타내는 말로서 기대하지 않았거나 수준 이하의 것이라도 할 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동사에는 ‘-(으)ㄴ들’을 붙여서 사용한다.

예 :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면 1등인들 못하겠어요?
 인사말 정도라면 1급 학생인들 못하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일을 난들 못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무슨 일인들 못하겠어요?
 과로에 과음까지 겹쳤으니 누군들 병이 안 나겠어요?
 10년씩이나 다닌 직장을 그만두려니 마음인들 오죽하겠어요?

3. **당하다** : 동작을 나타내는 명사에 붙어 그 동작이 수동적임을 표현하는 말.
 대개 부정적인 경우에 많이 쓰인다.
 창피당하다. 사고를 당하다.

어제 버스 안에서 소매치기를 당했다.
 큰 일을 당했을 때 도와 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4. **가문** : 대대로 내려오는 그 집안의 신분이나 지위, 또는 그 집안 자체,
 가문을 잇다. 양반가문.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욕심을 버렸다.
 우리 가문은 옛날부터 학자가 많기로 유명하다.

5. **혈통** : 같은 핏줄을 타고 난 민족의 계통.
 혈통을 잇다. 혈통이 좋다.

족보란 그 집안의 혈통을 기록한 책이다.
 이 개는 좋은 혈통을 가지고 있다.

6. **잇다** : 연결하여 앞뒤가 끊어지지 않게 서로 붙이다.
 이어받다. 끝말 잇기. 이음새.

점과 점을 이으면 선이 된다.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한다.

7. 짹 : 한 쌍 가운데 하나를 이르는 말.

짹짹. 짹사랑. 단짹.

10년만에 초등학교 때 짹을 만났어요.

짹 잃은 기러기가 슬피 울며 날아간다.

8. 구호 : 연설의 끝에서나 시위할 때 외치는 간단한 문구.

시청 앞에 사람들이 모여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멀리서 학생들의 구호소리가 들렸다.

문형 연습

1. 생활과 변화

1. -는다 해도 _____.

(보기) 가 : 오늘도 일해야 해요.

나 : 아무리 바쁘다 해도 결혼기념일까지 일해야 합니까?

가 : 아이가 거짓말을 해서 심하게 때렸대요.

나 : 아무리 아이가 잘못했다 해도 그렇게 심하게 때릴 수가 있어요?

가 : 세상이 내일 끝난다면 오늘 무엇을 하시겠어요?

나 : 만약 이 세상이 내일 끝난다 해도 저는 오늘을 포기하지 않겠어요.

가 : 수술을 해서 예뻐진다면 수술을 할 마음이 있어요?

나 : 수술을 해서 아무리 예뻐진다 해도 저는 제 얼굴을 고치고 싶지 않아요.

가 : 이인수 씨가 요즘 바쁜 것 같은데 맡은 일을 다 할 수 있을까요?

나 : 이인수 씨가 아무리 바쁘다 해도 사장님이 맡기신 일은 다 하겠지요.

가 : 내일 날씨가 굉장히 춥대요. 엄마, 안 가면 안 돼요?

나 : 날씨가 아무리 춥다 해도 학교는 가야 돼.

2. -곤 했다.

(보기) 가 : 두 분이 연애하실 때 보통 어디에서 만나셨어요?

나 : 우리는 학림이라는 다방에서 만나곤 했지요.

가 : 옛날에 북한산 근처에 사셨다고요?

나 : 예, 그래서 어렸을 때는 날마다 북한산에 놀러 가곤 했어요.

가 : 어떻게 이렇게 음식을 잘 만드세요?

나 : 결혼 전에 어머니와 주말마다 음식을 만들곤 했어요.

가 : 스키를 아주 잘 타시는군요.

나 : 방학 때마다 친구들과 스키장에 가곤 했어요.

가 : 언제 그렇게 많은 영화를 보셨어요?

나 : 시간만 있으면 영화관에 가곤 했지요.

가 : 이 노래를 좋아하시나 봐요.

나 :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즐겨 부르곤 했어요.

3. -요 _____.

(보기) 가 : 부부란 어떤 관계일까요?

나 : 가장 가까운 친구요 인생의 동반자지요.

가 : 냉면 맛이 아주 시원하군요.

나 : 우리 집 전통이요 자랑이에요.

가 : 경선 씨 아버님이 아주 훌륭한 분이셨다면서요?

나 : 예, 우리 나라의 유명한 시인이요 음악가셨어요.

가 : 언더우드 씨에 대해서 아세요?

나 : 선교사요 연세대학교의 설립자입니다.

가 : 한국 친구들과 식당에 가면 늘 친구들이 돈을 내려고 해요.

나 : 그것이 한국의 풍습이요 손님에 대한 대접이니깐요.

가 : 판소리가 뭐예요?

나 : 한국의 전통적인 노래요 연극이랍니다.

2. 솜씨

1. -어 보았으면 _____.

(보기) 가 : 내일 고향에서 가족들이 온다면서요?

나 : 예, 빨리 만나 보았으면 좋겠어요.

가 : 경미 씨 소원이 뭐예요?

나 : 빨리 남북통일이 되어서 금강산을 구경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가 : 어제 그 가수 정말 노래를 잘 부르지요?

나 : 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노래를 잘 불러 봤으면 좋겠어요.

가 : 그 가수는 바닷가에 별장이 있는데 경치가 너무 아름답대요.

나 : 저도 그런 집에서 한번 살아 보았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가 : 민속박물관에 가 보셨어요?

나 : 저도 가 보았으면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아직 못 가 봤어요.

가 : 바이올린을 켤 줄 아세요?

나 : 옛날부터 한번 배워 봤으면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아직까지 배우지 못했어요.

2. -어야지(요).

(보기) 가 : 일요일인데 교회 안 가요?

나 : 가야지요.

가 : 이제부터는 일 주일에 한번씩 꼭 부모님께 편지를 쓸 거예요.

나 : 그럼요. 그래야지요. 잘 생각하셨어요.

가 : 결혼 안 하실 생각이세요?

나 : 해야지요. 그런데 적당한 사람이 없어서...

가 : 2시인데 아직까지 점심을 안 드셨어요?

나 : 곧 먹어야지요. 너무 바빠서 점심 먹을 시간도 없군요.

가 : 영혜 씨한테 빨리 연락 안 할 거야?

나 : 해야지. 자꾸 잊어 버려서 못했어.

가 : 지금 사는 하숙집이 좁아서 이사간다더니 안 가요?

나 : 가야지요. 그런데 아직 새 하숙집을 못 찾았어요.

3. -은 -를 따를 -가 없다던데요.

(보기) 가 : 박지원 씨가 정말 노래를 잘 한대요.

나 : 노래는 그 사람을 따를 사람이 없다던데요.

가 : 누구에게 타자를 부탁하면 좋겠어요?

나 : 타자는 우리 사무실의 경미 씨를 따를 사람이 없다던데요.

가 : 그 반에서 누가 수학을 잘 한대요?

나 : 수학은 영진이를 따를 사람이 없다던데요.

가 : 한국이 또 양궁에서 금메달을 땀대요.

나 : 양궁은 한국을 따를 나라가 없다던데요.

가 : 한국에서 제일 큰 자동차 회사는 어디예요?

나 : 자동차는 현대를 따를 회사가 없다던데요.

가 : 날씨가 추워져서 겨울 옷을 샀으면 좋겠는데 뭐가 좋을까요?

나 : 겨울에는 가죽을 따를 옷이 없다던데요.

4. -만 못하다.

(보기) 가 : 외국에서 생활하기가 어때요?

나 : 고향만 못하지만 여기도 살 만해요.

가 : 하숙집 아주머니가 잘 해 주세요?

나 : 어머니만 못하지만 하숙집 아주머니도 잘 해 주세요.

가 : 최 선생님의 따님이 아주 미인이더군요.

나 : 예, 그래도 최 선생님 젊었을 때만 못해요.

가 : 박형준 씨 동생이 그렇게 똑똑하대요.

나 : 그래요? 그렇지만 인물은 형만 못하던데요.

가 : 새로 나온 자동차 타 보셨어요?

나 : 예, 성능은 좋은데 디자인은 옛날 것만 못한 것 같아요.

가 : 여행 가서 묵은 호텔이 어땠어요?

나 : 시설은 좋았지만 마음이 편하기로는 내 집만 못했어요.

5. -게 마련이다.

(보기) 가 : 민수 씨가 아까 화를 냈는데 너무 일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나 : 피곤하면 짜증이 나게 마련이지요.

가 : 어젯밤에 고향 생각이 나서 잠을 통 못 잤어요.

나 : 오랫동안 객지 생활을 하면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하게 마련이에요.

가 : 그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아무 걱정도 없겠지요?

나 : 돈이 많으면 걱정도 많게 마련이에요.

가 : 그분은 유명해졌어도 늘 겸손해요.

나 : 정말 그래요. 보통 유명해지면 거만해지게 마련인데...

가 : 우리 집 아이가 말을 안 들어서 걱정이예요.

나 : 아이들은 크면서 철이 들게 마련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가 : 오늘은 비가 많이 오는군요.

나 : 가을에는 비가 온 후에 추워지게 마련이니까 이제 월동 준비를 해야겠어요.

3. 남녀 칠세 부동산

1. -다고 봐요.

(보기) 가 :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 :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봐요.

가 :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나 : 아이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부모의 사랑이라고 봐요.

가 : 두 나라의 관계가 나쁜 것은 어느 쪽의 잘못일까요?

나 : 저는 양쪽 다 잘못이 있다고 봐요.

가 : 도시생활과 시골생활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좋을까요?

나 : 둘 다 장단점이 있다고 봐요.

가 : 배우자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 : 외모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중요한 것은 마음씨지요.

가 : 교통이 너무 복잡해요.

나 : 모두 편하려면 사람들이 서로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고 봐요.

2. -고 보니 _____.

(보기) 가 : 그 교수님이 한국 사람이 아니래요.

나 : 그러고 보니 발음이 좀 이상한 것 같았어요.

가 : 이해영 씨 아버지가 유명한 영화감독 이만희 씨래요.

나 : 그러고 보니 좀 닮은 데가 있군요.

가 : 추석이 벌써 다음 주예요.

나 : 그러고 보니 정말 그렇군요.

가 : 기영 씨가 지난 주에 애인과 헤어졌대요.

나 : 그러고 보니 오늘 기영 씨가 기운도 없고 말도 안 하더군요.

가 : 그 사람하고 잘 아는 사이예요?

나 : 처음에는 잘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 동생 친구였어요.

가 : 두 사람의 이야기 중에서 어느 쪽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나 : 듣고 보니 이범준 씨 말이 맞는 것 같아요.

3. -다 보면 _____.

(보기) 가 : 약속을 다 수첩에 쓰세요?

나 : 예, 바쁘게 지내다 보면 잊어 버릴 때가 많아서요.

가 : 아내 생일을 깜박 잊어 버렸어요.

나 : 정신없이 살다 보면 잊어 버릴 수도 있죠.

가 : 저는 아무리 해도 반말이 잘 안 돼요.

나 : 한국에서 오래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가 : 어제 제가 너무 술이 취해서 실례가 많았습니다.

나 : 괜찮아요. 술을 마시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요.

가 : 어제 회사에서 큰 실수를 했는데 어떻게 하죠?

나 : 너무 걱정마세요.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실수할 때가 있어요.

가 : 같은 방 친구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싸웠어요.

나 : 오랜 시간 같이 지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4. -만이 아니에요.

(보기) 가 : 남대문 시장에 가면 구두가 싸다지요?

나 : 구두만이 아니에요. 옷도 가방도 다 싸요.

가 : 요즘 경제 문제가 심각하대지요?

나 : 경제 문제만이 아니에요. 정치도 문제지요.

가 : 민정 씨는 공부도 잘 하지만 운동도 잘 하신다고요?

나 : 운동 뿐만이 아니에요. 노래도 그림도 못하는 것이 없어요.

가 : 그 식당 비빔밥이 참 맛있어요.

나 : 비빔밥만이 아니에요. 냉면, 불고기가 다 맛이 있어요.

가 : 요즘 아이들 교육비가 올라서 힘들어 죽겠어요.

나 : 교육비만이 아니에요. 교통비, 식비 등 안 오른 게 없어요.

가 : 아이들이 만화를 좋아하나 봐요.

나 : 아이들만이 아니에요. 제 남편도 좋아하는걸요.

5. -랄 것까지야 없다.

(보기) 가 : 집에 정원도 있으세요?

나 : 정원이랄 것까지야 없지만 작은 마당이 하나 있어요.

가 : 손수 그리신 작품이에요?

나 : 작품이랄 것까지야 없지요.

가 : 영화광이라고요?

나 : 영화광이랄 것까지야 없겠지만 영화를 좋아하는 편이지요.

가 : 아이가 천재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나 : 천재랄 것까지야 없고 그냥 머리가 좀 좋은 편이에요.

가 : 권 선생이 팔방미인이라면서요?

나 : 팔방미인이랄 것까지야 없겠지만 몇 가지 재주가 있지요.

가 : 민호 씨가 달리기 선수라면서요?

나 : 선수랄 것까지야 없지요. 상당히 빨리 달리기는 하지만요.

4. 사농공상

1. -다는데 왜 -(으)ㄹ까요?

(보기) 가 : 어제 음주운전한 사람이 구속되었대요.

나 : 음주운전은 위험하다는데 왜 술을 마시고들 운전할까?

가 : 친구들이 자꾸 전화를 해서 할 수 없이 나갔어요.

나 : 내일 모레가 바로 시험이라는데 왜 자꾸들 방해할까요?

가 : 부모님이 빨리 결혼하라고 하세요?

나 : 예, 저는 아직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데 왜 자꾸 결혼하라고들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가 : 학생들이 또 지각을 많이 했군요.

나 : 지각하지 말라는데 왜 날마다 늦게들 올까요?

가 :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서 폐가 안 좋대요.

나 : 담배는 건강에 안 좋다는데 왜 그렇게들 담배를 피울까요?

가 : 요즘 사람들은 소형차보다 중형차를 더 좋아하죠.

나 : 큰 차는 기름이 더 많이 든다는데 왜 다들 큰 차를 사고 싶어할까요?

2. 그건 ____ 시대의 이야기죠.

(보기) 가 : 아직도 남녀 칠세 부동산이라는 사상이 남아 있나요?

나 : 그건 유교 사상이 중심이었던 시대의 이야기죠.

가 : 옛날엔 부모님이 늙으시면 산에 버렸다면서요?

나 : 그건 고려시대의 이야기죠.

가 : 우리가 어렸을 때는 사과를 껍질째 먹었는데요.

나 : 그건 농약을 안 쓰던 시대의 이야기죠.

가 : 옛날에는 백일 전에 죽는 아이가 많았대요.

나 : 그건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의 이야기죠.

가 : 스승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면서요?

나 : 그건 스승을 하늘같이 여기던 시대의 이야기죠.

가 : 그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말을 타고 다닌다고 들었어요.

나 : 그건 자동차가 별로 없던 시대의 이야기죠.

3. -는 것 같던데요.

(보기) 가 : 유진 씨 못 봤어요?

나 : 아까 집에 가는 것 같던데요.

가 : 김 선생님 사무실에 계세요?

나 : 안 계시는 것 같던데요.

가 : 김진희 씨 아버님께서 무슨 일을 하세요?

나 : 글썄요. 잘 모르지만 회사에 다니시는 것 같던데요.

가 : 은영 씨는 대학교를 졸업하면 뭘 한대요?

나 : 글썄요. 기자가 되었으면 하는 것 같던데요.

가 : 박 사장님 아들은 결혼하셨대요?

나 : 예, 벌써 아이가 있다는 것 같던데요.

가 : 박종철 씨는 전공이 뭐래요?

나 : 철학을 공부하는 것 같던데요.

4. -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보기) 가 : 건강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나 : 꼭 건강만의 문제는 아니지요.

가 : 한국에서는 남녀 차별이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나 : 예, 그렇지만 그건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지요.

가 : 데모하는 학생들이 나쁘다고 생각해요.

나 : 그건 학생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가 : 두 분이 성격 차이로 헤어지셨나요?

나 : 성격 차이만의 문제는 아니지요.

가 : 요즘 아이들은 정말 버릇이 없어요.

나 : 그건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지요.

5. -만 보아도 알 수 있지요.

(보기) 가 : 그 아가씨가 부산 사람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나 : 말씨만 보아도 알 수 있지요.

가 : 선생님이 화가 나셨는지 어떻게 아셨어요?

나 : 표정만 보아도 알 수 있지요.

가 : 그분이 예술가인지 어떻게 아셨어요?

나 : 옷차림만 보아도 알 수 있지요.

가 : 그 두 사람이 사랑하는 사이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나 : 눈빛만 보아도 알 수 있지요.

가 : 그 영화를 보지도 않고 재미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나 : 그야 예고편만 보아도 알 수 있지요.

가 : 그분이 꼼꼼한 분인지 어떻게 알지요?

나 : 책상 정리해 놓은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지요.

5. 아들 선호

1. -다던데, 정말 -(으)ㄴ 까요?.

(보기) 가 : 요즘 여자아이보다 남자아이가 더 많다던데, 정말 그럴까요?

나 : 예, 그렇대요.

가 : 우리 나라 40대 남자 사망률이 세계 1위라던데, 정말 그럴까요?

나 : 예, 아마 스트레스 때문일 거예요.

가 : 시험보는 날 아침에 미역국을 먹으면 시험에 떨어진다는데, 정말 그럴까요?

나 : 그렇지야 않겠지요.

가 : 늦어도 2010년까지는 남북이 통일될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던데, 정말 그렇게 될까요?

나 : 정말이었으면 좋겠군요.

가 : 단추만 누르면 목적지까지 저절로 가는 자동차를 만든다던데, 정말 가능할까요?

나 : 과학이 발달하면 가능하지요.

가 : 이번 축구시합만 이기면 월드컵에 나갈 수 있다던데,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나 :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2. -만 -면야 무슨 일인들 못하겠어요?

(보기) 가 : 입학시험에 합격하려면 백일기도를 드려야 해요.

나 : 합격만 된다면야 무슨 일인들 못하겠어요?

가 : 자식 교육을 위해서 이민을 가는 사람들이 많대요.

나 : 자녀들만 잘 된다면야 무슨 일인들 못하겠어요?

가 : 경민 씨 아버님이 암을 고치러 미국에 가신대요.

나 : 병만 고칠 수 있다면야 무슨 일인들 못하겠어요?

가 : 아버지 눈을 뜨게 하려면 부처님께 쌀 삼백 석을 바쳐야 합니다.

나 : 아버님 눈만 뜨시게 된다면야 무슨 일인들 못하겠어요?

가 : 외국에 있는 친척들을 만나시려면 절차가 복잡한대요.

나 : 친척들을 만날 수만 있다면야 무슨 일인들 못하겠어요?

가 : 저와 결혼하시면 집안일을 경민 씨가 해 주셔야 해요.

나 : 결혼만 해 주신다면야 무슨 일인들 못하겠어요?

3. -는다든지 하는 일은 _____.

(보기) 가 : 이번 주말에 무엇을 하실 거예요?

나 : 영화를 본다든지 하는 일은 재미없을 것 같아요.

가 : 이 선생님은 집안일을 많이 도와 주세요?

나 :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하는 일은 제가 하지요.

가 : 다른 사람과 식사할 때 주의할 점을 가르쳐 주세요.

나 : 소리를 내면서 음식을 먹는다든지 하는 일은 실례가 됩니다.

가 : 한국 생활에서 어려운 게 뭐예요?

나 : 온돌방에서 잔다든지 매운 음식을 먹는다든지 하는 일은 외국인으로서 어려운 것 같아요.

가 : 오늘은 좀 새로운 것을 해 봅시다.

나 : 예, 오늘은 영화를 본다든지 테니스를 친다든지 하는 일은 하지 맙시다.

가 : 요즘도 주말마다 등산을 하세요?

나 : 등산을 한다든지 낚시를 한다든지 하는 일은 시간이 많을 때 애기죠.

4. -는다던데, 그 문제를 어떻게 보세요?

(보기) 가 : 머리를 길게 기르는 게 유행이라던데,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 저는 머리를 짧게 자르는 게 단정해 보여서 보기 좋던데요.

가 : 요즘 젊은 사람들은 중매보다 연애결혼을 선호한다던데, 그 문제를 어떻게 보세요?

나 : 저도 중매결혼보다는 연애결혼이 좋은 것 같아요.

가 : 환경오염 때문에 지구가 멸망할지도 모른다던데, 그 문제를 어떻게 보세요?

나 : 다 같이 지구를 깨끗이 하기 위해 노력해야겠지요.

가 : 요즘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던데, 그 문제를 어떻게 보세요?

나 : 글썄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 : 세계 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있다던데, 그 문제를 어떻게 보세요?

나 : 저는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가 : 한국이 태평양시대의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던데, 그 문제를 어떻게 보세요?

나 : 지리적으로는 충분히 한국이 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문화 해설

인간이 알아야 할 다섯 가지 윤리

20세기 초 조선은 ‘유교’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던 나라였다. 특히 사람들은 유교의 기본 윤리인 오륜(五倫)을 양반은 물론 백성 모두가 지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를 모르면 인간이 아닌 짐승이라고까지 생각했다. 이렇게 조선은 예법을 중시하는 사회였으므로 여러 가지 예의의 형식은 발달했으나 인간의 자유로운 감정이나 생각을 억압하게 하는 단점도 있었다. 그러나 오륜은 본래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얘기한 것이다.

오륜은 다섯 가지 윤리로서 다음과 같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친함이 있어야 한다. (부자유친 父子有親)

임금과 신하 사이에 의리가 있어야 한다. (군신유의 君臣有義)

부부 사이에 구별이 있어야 한다. (부부유별 夫婦有別)

어른과 어린 사람 사이에 순서가 있어야 한다. (장유유서 長幼有序)

친구 사이에 믿음이 있어야 한다. (붕우유신 朋友有信)

오륜의 내용 중 ‘부자유친, 군신유의, 장유유서, 붕우유신’은 어느 시대에나 맞는 기본 윤리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부부 사이에 구별이 있다는 부부유별은 오늘날처럼 남녀가 동등하게 활동하는 사회에는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과거 전통사회에서 여성의 삶이 매우 심한

차별을 받았음을 생각하면 이런 윤리는 없애야 할 악습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부부유별의 본래의 뜻은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 있다는 것이다. 남자와 여자가 다름을 인정하고 각각의 성에 맞는 역할과 기능이 있으므로 서로 그 영역을 침범하지 말자는 얘기다. 남자로서, 여자로서 태어났음을 인정하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해서, 한국에서는 바깥 일을 하며 바깥(사랑채)에 사는 사나이 대장부의 삶과 집안일을 하며 안(안채)에 사는 아녀자의 삶이 달랐다. 물론 대가족 제도였던 옛날처럼 여자들이 쫓기며 머리를 써서 해야 할 집안일이 없어진 지 이미 오래다. 여자들도 적극적으로 바깥일을 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여자로서의 삶, 즉 아내 또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남편, 아버지로서의 역할과 다름을 볼 때, 부부유별이나 남녀유별이라는 말이 시대에 뒤진 얘기라고만 할 수는 없겠다.

이야기해 봅시다.

그전 다 옛날 이야기지요.

1. 우리들은 모두 어릴 적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어릴 때 놀던 놀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2.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을 이해하고 오늘날에는 어떻게 변했는지 생각해 봅시다.
3.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1) 복잡한 버스 안에서 할머니가 자리를 못 잡고 서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볼 때
- 2) 길거리에서 우연히 초등학교 선생님을 만났을 때

제 39 과

신문 보고 알았어요.

1. 생활과 신문

이 지구상에는 45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있으므로 크고 작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과 자연 사이에서 하루에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변화해 간다. 밥을 먹거나 옷을 입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일에서부터 충격적이거나 흥미를 가지게 하는 일까지,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사람들은 모든 변화를 알고 싶어한다. 나와 관계가 있는 일은 물론 나와 관계가 없는 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알고 싶어한다.

신문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환경 변화에 대한 정보를 주는 일을 한다. 신문은 항상 새로움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문을 통하여 세상 돌아가는 지식을 얻고 생활의 지혜도 배우게 된다. 이와 같이 신문은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만일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인데도 신문이 그것을 머릿기사로 냈다면 사람들은 그 기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틀림없이 그 날의 화제거리로 삼을 것이다. 더욱이 그 내용이 내 가정이나 이웃과 관계가 있다면 그 관심도가 높을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이 굶는다는 소식

보다는 동네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 더 가깝게 와 닿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1주일을 신문을 읽지 않으니까 지구가 멈춘 것 같더라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단 며칠만이라도 신문이 없는 곳에 가서 쉬고 싶다고 했다. 두 사람의 표현은 달라도 두 사람 다 신문의 영향을 받는다는 말임에는 틀림없다.

2. 인기있는 지면

김 선생 : 신문을 펴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보십니까?

존 슨 : 먼저 1면 머릿기사를 보고 대강 내용을 훑어 본 다음에 사회면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문화면을 보지요.

김 선생 : 저는 만화를 제일 먼저 보는데요. 만화만큼 시사성이 풍부한 것도 없거든요. 그 다음에 1면을 봐요.

존 슨 : 시사성이 많기로는 사설을 따를 게 있겠습니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때도 있기는 하지만요.

김 선생 : 젊은이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은 뭐니뭐니 해도 스포츠면인 것 같습니다.

존 슨 : 한국 신문은 외국사람들에게는 좀 문제예요. 아무리 한글을 잘 알아도 한자를 모르고서는 신문을 읽을 수조차 없으니까요.

3. 한글과 한자 병용

존 슨 : 한국 신문이 한글과 한자를 같이 써야 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한글로만 쓴다면 외국인도 읽을 수 있을 텐데요.

김 선생 : 우리 언어생활의 특수성 때문이지요. 기성세대는 한자사용에 익숙하지만 신세대는 그렇지 않아요.

존 슨 : 무슨 말씀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 선생 : 한자를 아는 기성세대는 한글로만 읽으면 개념 이해가 어렵다고 하고, 신세대는 한자가 많으면 읽기가 힘들다고들 한답니다.

존 슨 : 그럼 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나요?

김 선생 : 지금 형편으로 보아서는 어렵지만 차차 한글로만 쓰는 신문이 많아질 겁니다. 기사 제목이나 사람 이름, 지명은 다 한자로 쓰지만 그 밖의 것들은 순 우리말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4. 신문의 힘

김 선생 : 언제 귀국하셨어요? 아직 시카고에서 개인전을 하고 계신 줄 알았는데요.

이 화백 : 다 끝내고 엿그제 돌아왔습니다만, 어떻게 아셨어요?

김 선생 : 신문에서 읽었어요. 조선일보 '사람들'이라는 난에 났던데요.

이 화백 : 아! 그랬군요. 신문의 힘이란 참 큰 거군요. 신문 한쪽 구석

에 조그맣게 실려도 많은 분들이 보고 아시니까요.

김 선생 : 유명 인사들의 움직임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큰 관심거리가 되지요.

이 화백 : 저도 유명한 축에 드나요? 감사합니다.

5. 미답

이 선생 : 김 선생님, 오늘 아침 조간 신문 보셨습니까? 사회면에서 난 기사를 읽고 얼마나 가슴이 뻘뻘했는지 모릅니다.

김 선생 : 사회면에는 우울한 기사들이 많이 실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아침에는 안 읽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선생 : 어떤 택시 운전기사 손님이 차 안에다 놓고 내린 현금 천만 원을 가지고 방송국에 찾아와 주인을 찾아 달라고 했대요.

김 선생 : 현금으로 천만 원이나요? 그래, 주인은 찾았대요?

이 선생 : 네, 어느 회사 직원이 은행에서 직원들 월급을 찾아 가다가 돈뭉치 하나를 흘린 거래요.

김 선생 : 요즘같이 각박한 세상에 정말 복 받을 사람이군요.

어휘와 문법

1. 생활과 신문

1. **붐비다** : 사람이 많아서 복잡하다.
한산하다.

감기가 유행일 때는 사람이 붐비는 곳에 가지 마라.
서울역에 사람들이 붐벼서 아이를 찾기가 힘들었다.

2. **충격적** : 충격은 갑자기 무엇과 무엇이 맞부딪치는 것을 말하며, 충격적은 새롭고 놀라운 일을 당하여 당황하게 되는 것을 가리킨다.
충격 요법. 충격사. 충격을 주다(받다).

대통령이 총에 맞아 살해당한 것은 국민들에게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그녀는 정신을 잃었다.

3. **흥미** : 어떤 것에 마음이 끌리어 느끼는 재미나 관심.
흥미있다. 흥미를 끌다. 흥미롭다.

우리 아이는 공부에 흥미가 없나 봐요.
요즘 인기있는 주말 연속극이 어떻게 결론지어질지 무척 흥미롭다.

4. **-(으)ㄴ** : 동작동사나 상태동사와 결합하여 명사형을 만드는 어미다. 동사를 주어나 목적어로 만들 때, 문장을 간략하고 분명하게 끝맺고자 할 때 쓴다.

예 : 그 사람이 범인임에 틀림이 없다.
그 일이 잘 해결되었음을 전화로 들었어요.
우리들의 만남을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전화 기다리겠음. 연락하기 바람.

5. **미치다** : 어떠한 곳이나 일정한 수준에 이르다. '영향을 미치다'는 '영향을 주다'와 같은 뜻이다.

저는 선생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부모의 말과 행동이 아이의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6. **-ㅅ-** : 명사와 명사가 결합하여 합성명사를 만들 때 두 명사 사이에 '-ㅅ-(사이 시옷)'을 쓴다.

예 : 고유어로 된 합성명사로서 앞 명사가 모음으로 끝난 경우 'ㅅ'을 쓴다.

나룻배. 조갯살. 나룻가지. 아랫니. 깻묵.

한자어에 고유어가 결합된 명사나 고유어에 한자어가 결합된 명사에도 'ㅅ'을 붙인다.

제삿날. 훗날. 머릿방. 컷병. 깻발.

한자어와 한자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명사는 다음의 6가지 경우에 만 'ㅅ'을 붙인다.

곳간. 셋방. 숫자. 횃수. 찻간. 뒷간.

7. **단** : 오직. 다만. 단지. 특히 그것만.

단신. 단독. 단작.

담배를 단 하루만이라도 끊어 보라는 날이 바로 금연의 날이다.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 단 한 척으로 적의 배들을 물리쳤다.

8. **-임에는 틀림이 없다** : -인 것이 분명하다. 틀림없이.

저렇게 잘 놀면서도 공부를 잘 하는 걸 보면 똑똑한 아이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 책이 나온 지 2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에게 읽혀지는 걸 보니 명작임에는 틀림이 없다.

2. 인기있는 지면

1. 대강 : 꼼꼼하지 않게 또는 거의 다.

대충. 대부분. 대체로.

오늘은 친구가 와서 숙제만 대강하고 시내로 나가야겠다.

어제 부탁하신 일은 대강 다 끝냈습니다.

2. 훑어 보다 : '훑다'는 물건을 무슨 틈에 끼워서 잡아 당긴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어 보다'와 결합하여 '위 아래로 자세히 눈여겨 보다'의 뜻을 나타낸다. 훑어 내다.

신촌 근처를 살살이 훑어 보았지만, 영희 씨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시험시간 바로 전에 잠깐 훑어 본 것이 시험에 그대로 나와서 너무 기뻐다.

3. 시사성 : '시사'는 '그 당시에 생긴 여러 가지 세상 일'이란 뜻으로 '시사성'은 시사가 내포하고 있는 그 때의 사회적 성격을 말함.

시사성이 있다/없다. 시사만평.

신문에서는 시사성이 생명이다.

시사성이 없는 기사는 독자들이 읽지 않는다.

4. 풍부하다 : 넉넉하고 많다.

풍성하다. 풍요롭다.

우유는 여러 가지 영양이 풍부하다.

남북통일되면 한반도는 더 발전할 것이다.

5. -기로는 : 명사형 어미 '-기'와 조사 '-로'와 '-는'이 결합한 것으로 동작 동사나 상태동사에 붙어서 쓰이며, 그 동작이나 상태를 강조하거나 구분짓는다.

예 : 달리기를 잘 하기로는 그 선수를 따를 사람이 없어.

말이 빠르기로는 최 선생이 제일이지요.

책이 많기로는 박 선생이지만, 책을 많이 읽기로는 역시 김 선생이에요.

한국에서 신혼 여행지로 유명하기로는 제주도가 첫번 째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하기로는 멕시코가 제일이라고 해요.

6. **사설** : 신문, 잡지 등에서 신문사나 잡지사의 의견이나 주장을 써 내는 논설.
논설. 논설위원.

신문의 사설을 자세히 읽다가 보면 그 신문사의 성격을 알 수 있다.

사설을 쓰는 논설위원이 되려면 적어도 사회 전반에 걸친 해박한 지식이 필요하다.

7. **-고서는** ____ : '행위가 끝난 후 그리고는'의 뜻으로 선행문과 후행문의 행위 사이에는 시간적 전후 관계가 있다. 동작동사와만 결합하며 시제를 나타내는 '-었-', '-겠-' 등과는 결합하지 못한다.

예 : 인사만 나누고서는 그냥 헤어졌어요.

안경을 선반 위에 놓고서는 책상 서랍 속만 찾았군요.

전화만 하고서는 오랫동안 그 사람을 만나지 못했어요.

저녁을 먹고서는 한 마디 말도 없이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대학 공부를 마치고서는 취직을 할까 해요.

3. 한글과 한자 혼용

1. **기성세대** : '기성'은 이미 만들어진 것, 이미 어떤 자격이나 지위를 가진 것을 뜻하며, 사회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세대를 기성세대라고 한다.

기성복. 기성화. 기성작가. 신세대.

요즘 신세대 젊은이들의 행동은 기성세대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너희들이 언젠가 기성세대가 되면, 그 때에서야 우리들을 이해할 것이다.

2. **차차** : 어떤 일이 천천히 차례대로 진행되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점점, 점차.

세계 경제가 차차 회복되면서, 한국의 수출 시장도 점차 넓어지고 있다.
그런 복잡한 문제는 차차 풀기로 하고, 우선 이 문제부터 해결합시다.

4. 신문의 힘

1. **개인전** : 개인의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전시회
개인발표회, 공동전.

프랑스의 유명한 화랑에서 그분의 개인전을 열기로 했다.
15년만에 열리는 그 화가의 개인전에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2. **-란** : 책이나 신문지면에 줄을 그어 다른 부분과 구분해 놓은 한 부분.
개인동정란, 독자투고란.

신문마다 경제면 하단에 당일의 환율란이 있다.

3. **조그맣다** : 그리 크거나 많지 않고 조금 작은 편이다. '조그마하다'의 준말.
자그마하다. 큼지막하다.

조그만 사람이 힘은 장사여서 그를 이길 사람이 없다.
조그맣지만 내 집이라고 장만을 하니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다.

4. **실리다** : 글, 그림, 사진들을 간행물에 내다. '실다'의 피동형.
기록되다. 기재되다.

이번 사건에 대한 기사가 신문마다 실려 있다.
10월 호 잡지에 실린 만화가 화제가 되었다.

5. **-의 움직임** :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개인이나 단체의 활동.

동정. 동향.

요즘 그 나라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주식시장에서는 큰손들의 움직임에 따라 하루의 장세가 결정된다.

6. **_____ 축에 들다** : ‘축’은 활동 또는 회전의 중심이 되는 부분을 말하며, ‘축에 들다’는 그 부류에 속한다는 뜻이다.

축에 낀다. 부류에 들다.

청원경찰도 경찰 축에 든다고 볼 수 있다.

나도 노래를 잘 하는 축에 들지만, 김 선생님의 노래 솜씨는 가수 이상이다.

5. 미담

1. **가슴이 뽀뽀하다** : ‘뽀뽀하다’는 어떤 한도에 차거나 꼭 맞아서 빈틈이 없다는 뜻. 가슴이 뽀뽀한 느낌은 어떤 일이나 결과에 만족해하거나 자랑스러울 때, 또는 보람을 느낄 때 경험한다.

가슴이 벅차다. 가슴이 뭉클하다. 가슴이 조마조마하다.

힘든 공부 끝에 시험에 합격하고 보니 가슴이 뽀뽀해진다.

이렇게 가슴 뽀뽀한 일이 어디 또 있을까?

2. **그래** : ‘그래서’의 준말로, 그 다음 일이 궁금할 때 쓴다.

그래 그 아이가 정말 훌륭한 장군이 되었대요?

주말이라서 표를 구하기가 힘들었다던데, 그래 영화는 봤대요?

3. **멍치** : 말리거나 영긴 덩어리.

멍치다. 사고멍치.

아무리 돈멍치를 가져다 준다 해도 내 결심을 바꿀 수는 없다.

눈을 멍쳐서 던지며 노는 놀이를 눈싸움이라고 한다.

4. **흘리다** : '액체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하거나 넘쳐 떨어지게 하다' 또는 '물건을 떨어뜨려 잃다'는 뜻이다.

눈물을 흘리다. 피를 흘리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다.

커피를 마시다가 옷에 흘렸다.

어떤 사람이 흘리고 간 물건을 되찾아 주는 곳이 분실물 신고 센터다.

5. **각박하다** : 성질이 모나고 인정이 없다.

인심이 각박하다. 인심이 후하다. 야박하다.

그렇게 각박하게 거절하지 말고 부탁 좀 들어 주세요.

각박한 세상에서 살다 보면 어려운 이웃을 생각한다는 것이 힘들다.

문형 연습

1. 생활과 신문

1. 만일 -는데도 -는다면 _____.

(보기) 가 :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까?

나 :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만일 수업을 하는데도 담배를 피웠다면 그건 큰 잘못입니다.

가 : 수민 씨가 등산을 갔다던데 비 때문에 걱정이예요.

나 : 만일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도 산에 올라갔다면 위험하겠군요.

가 : 인철 씨가 퇴근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나 : 만일 일이 남았는데도 벌써 퇴근을 했다면 정말 책임감 없는 사람이에요.

가 : 내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는데 정수는 계획대로 여행을 떠났을까요?

나 : 만일 내일부터 장마인데도 여행을 떠난다면 고생을 많이 하겠군요.

가 : 오늘은 휴일인데 이 선생님이 회사에 나가셨는지 집에 안 계시네요.

나 : 만일 휴일인데도 일하러 나갔다면 일벌레라고 밖에 볼 수 없군요.

가 : 요즘 젊은이들은 어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 : 그래요? 만일 노인이 앞에 서 있는데도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면 정말 예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2. -(으)ㄹ 필요가 없다.

(보기) 가 : 이 서류에 도장도 찍어야 하나요?

나 : 아니요. 서명을 하시면 되니까 도장은 찍을 필요가 없어요.

가 : 여행지에서 숙박하려면 미리 예약을 해야 하나요?

나 : 요즘은 비수기니까 예약할 필요가 없어요.

가 : 토요일에도 학교에 옵니까?

나 : 아니요, 토요일에는 수업이 없으니까 학교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가 : 전화로 취소했는데 다시 가서 확인해야 돼요?

나 : 아니요, 전화로 연락했으면 다시 갈 필요가 없어요.

가 : 지난 번에 찍은 사진이 있는데 또 찍어야 하나요?

나 : 사진이 있으면 찍을 필요가 없어요.

가 :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꼭 해야 합니까?

나 : 두 사람이 결정해야 하겠지만 꼭 해야 할 필요는 없어요.

3. -임에(는) 틀림없다.

(보기) 가 : 이 지갑이 틀림없이 선생님 것입니까?

나 : 예, 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보세요, 여기 제 이름이 있잖습니까?

가 : 정말 자기가 하지 않았다는데요.

나 : 거짓임에 틀림없어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렇게 당황할 리가 있어요?

가 : 롯데백화점 정기 휴일이 이번 월요일인지 지난 월요일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나 : 이번 주 월요일임에 틀림없어요. 지난 주 월요일에는 제가 친구하고 갔다 왔거든요.

가 : 저 사람 아는 사람이에요?

나 : 아는 사람임에는 틀림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가 : 여기가 우리가 찾던 곳 맞아요?

나 : 예, 찾던 곳임에는 틀림없어요. 뭔가 조금 달라진 것 같긴 하지만요.

가 : 그 사람이 진짜 범인이에요?

나 : 예, 범인임에 틀림없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요.

2 인기있는 지면

1. 그리고 나서(-고 나서) _____.

(보기) 가 : 아침에 일어나면 뭘 먼저 하세요?

나 : 조깅을 해요. 그리고 나서 커피를 마시면서 조간 신문을 읽어요.

가 :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뭘 하고 싶어요?

나 : 졸업하고 나서 세계 이곳저곳을 여행하고 싶어요.

가 : 먼저 이 방부터 청소해야겠죠?

나 : 예, 그리고 나서 저 방도 청소하세요.

가 : 학생 때도 뚱뚱한 편이었어요?

나 : 아니에요. 결혼하고 나서 살이 찌기 시작했어요.

가 : 어제 수영하다가 쥐가 나서 혼났어요.

나 : 준비운동을 안 하셨죠? 언제나 준비운동을 하고 나서 수영을 해야 돼요.

가 : 그 사람이 언제부터 그렇게 달라졌어요?

나 : 종교를 가지고 나서 사람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2. -기는 하지만(요).

(보기) 가 : 컴퓨터를 할 줄 아세요?

나 : 몰라요. 컴퓨터가 집에 있기는 하지만.

가 : 운전할 줄 아세요?

나 : 잘 못해요. 면허증이 있기는 하지만.

가 : 저에게 기타 좀 가르쳐 주세요.

나 : 예, 그러죠. 저도 잘 못치기는 하지만요.

가 : 그 사람이 시험에 또 떨어졌다면가요?

나 : 네, 운이 없나 봐요. 똑똑하기는 하지만.

가 : 몸이 좀 어때요?

나 : 많이 좋아졌어요. 아직 머리가 좀 아프기는 하지만요.

가 : 박선영 씨가 어떤 분인지 아세요?

나 : 잘 몰라요. 몇 번 보기는 했지만요.

3. 뭐니뭐니 해도 _____.

(보기) 가 : 한국의 전통음식으로 무엇이 있어요?

나 : 한국의 전통음식이라면 뭐니뭐니 해도 김치지요.

가 :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입맛이 없어요.

나 : 여름에 입맛을 돋구는 음식으로는 뭐니뭐니 해도 냉면이 제일이에요.

가 : 감기에 걸렸나 봐요.

나 : 감기에 걸렸을 때에는 뭐니뭐니 해도 푹 쉬는 게 제일이에요.

가 : 자녀 교육에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나 : 뭐니뭐니 해도 부모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가 : 이렇게 날씨가 추울 때는 무슨 운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나 : 겨울 운동으로는 뭐니뭐니 해도 스키가 최고죠.

가 : 설악산의 경치는 사계절이 다 다르다던데 선생님은 어느 계절이 좋으세요?

나 : 전 뭐니뭐니 해도 가을의 단풍 경치가 최고인 것 같아요.

4. -조차 _____.

(보기) 가 : 굉장히 바빠 보이네요.

나 : 예, 너무 바빠서 밥 먹을 시간조차 없어요.

가 : 어제가 경수 씨 생일이었지요?

나 : 정말 그렇군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제 생일조차 잊고 지냈어요.

가 : 이 단어 발음이 아주 어렵군요.

나 : 예, 이 발음은 한국 사람들조차 가끔 틀리는 거예요.

가 : 이번에 대상을 받게 된 소감이 어떠세요?

나 : 제가 이런 상을 받게 될 줄은 생각조차 못했어요.

가 : 지난 달에 한일 씨가 결혼하셨다면서요?

나 : 예, 그런데 가까운 친구들에게조차 알리지 않아서 아무도 못 가 봤대요.

가 : 부장님이 연락도 없이 1주일째 회사에 안 나오고 계세요.

나 : 가족들조차 부장님이 어디에 계신지 모른다면서요?

5. -기로는 -를 따를 -가 없다.

(보기) 가 : 이 김치 정말 맛있네요. 어머님께서 만드셨어요?

나 : 예, 김치를 맛있게 만들기로는 우리 어머니를 따를 사람이 없어요.

가 : 민영 씨는 한번 만난 사람의 이름은 절대로 안 잊어 버린대요.

나 : 예, 기억력이 좋기로는 민영 씨를 따를 사람이 없을 거예요.

가 : 부산에 가려는데, 뭘 타고 가는 게 좋을까요?

나 : 빠르고 편하기로는 비행기를 따를 게 없지요.

가 : 한국의 단풍이 아름답다던데, 가 볼만한 곳이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나 : 단풍이 아름답기로는 내장산을 따를 곳이 없을 거예요.

가 : 다음 주에 노래자랑대회가 있는데, 우리 부에서는 누가 나가지요?

나 : 우리 부에서 노래 잘 하기로는 진수 씨를 따를 사람이 없지요.

가 : 내일 등산 갈 건데, 뭘 입고 가야할지 모르겠어요.

나 : 활동하기 편하기로는 바지와 운동화를 따를 게 없지요.

3. 한글과 한자 병용

1. -라도 _____.

(보기) 가 : 수잔 씨한테서 요즘 통 소식이 없어요.

나 : 병이라도 났나요?

가 : 준일 씨가 아까부터 자꾸 시계를 보네요.

나 : 데이트 약속이라도 있나 보지요?

가 : 저... 잠깐...

나 : 왜 그러세요? 뭔가 할 말이라도 있으세요?

가 : 경민 씨가 아직도 안 왔는데 웬 일이죠?

나 : 교통사고라도 난 게 아닐까요?

가 : 지난 주말에 부산에 갔다 왔어요.

나 : 왜 주말마다 부산에 가세요? 부산에 애인이라도 있으세요?

가 : 우리 셋째가 이번에 연대에 입학했어요.

나 : 어떻게 아이들이 그렇게 공부를 잘 해요? 비결이라도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2. -는다면 -(으)ㄴ 텐데요.

(보기) 가 : 저는 그 모임에 안 가겠어요.

나 : 민수 씨가 간다면 다들 좋아할 텐데요. 같이 갑시다.

가 : 영수 씨가 오늘 또 늦게 와서 선생님에게 야단을 맞았어요.

나 : 10분만 일찍 일어난다면 늦지 않을 텐데요.

가 : 요즘 짧은 치마가 유행인가 봐요.

나 : 나도 10년만 짧다면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닐 텐데요.

가 : 진수가 미선이하고 또 싸웠대요.

나 : 조금씩만 서로 양보한다면 더 좋은 사이가 될 텐데요.

가 : 지난 번 제 잘못 때문에 아직도 찰스 씨를 못 만나고 있어요.

나 : 왜 사과를 안 하세요? 사과했다면 용서해 줄 텐데요.

가 : 오늘 학교에서 머리가 아파서 공부를 하나도 못했어요.

나 : 그럼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일찍 집에 오지 그랬어요. 머리가 많이 아프다면 일찍 집에 가라고 하셨을 텐데요.

3. _____ 때문이지요.

(보기) 가 : 교통사고율이 또 높아졌대요.

나 : 그건 교통질서를 안 지키는 사람들 때문이지요.

가 : 모두들 김 선생님의 이야기는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 : 그건 김 선생의 거짓말하는 버릇 때문이지요.

가 : 한국에 처음 와서 버스나 지하철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걸 보고 놀랐어요.

나 : 노인들을 공경하는 풍습 때문이지요.

가 : 야채 값이 또 올랐대요.

나 : 지난 여름의 장마 때문이지요.

가 : 우리 아버지하고는 말이 안 통해요.

나 : 세대차이 때문이지요.

가 : 왜 한국의 40대 남자들의 사망률이 세계 최고예요?

나 :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이지요.

4. -다고들 한답니다.

(보기) 가 : 신혼여행지로는 어디가 좋을까요?

나 : 한국에서는 제주도가 제일라고들 한답니다.

가 : 이번에 김상기 씨가 쓴 소설이 어떻대요?

나 : 읽어 본 사람들이 모두 좋은 작품이라고들 한답니다.

가 : 요즘은 여름도 겨울도 옛날만큼 덥거나 춥지 않아요.

나 : 그것도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들 한답니다.

가 : 이 식당 물김치는 정말 맛이 좋군요.

나 : 예, 손님들마다 모두 물김치가 맛이 있다고들 한답니다.

가 : 자신의 얼굴 중에서 어디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세요?

나 : 주위사람들은 눈이 제일 예쁘다고들 한답니다.

가 : 따님이 아버지를 꼭 닮았군요.

나 : 예, 모두들 판에 박은 듯이 닮았다고들 한답니다.

5. -로 보아서는 _____.

(보기) 가 : 영진 씨가 이 일을 잘 할까요?

나 : 영진 씨 성격으로 보아서는 틀림없이 잘 할 거라 생각해요.

가 : 저분이 연예인래요.

나 : 그래요? 옷차림으로 보아서는 연예인같지 않은데요.

가 : 김 선생님이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을 때려서 지금 경찰서에 있대요.

나 : 평소 행동으로 보아서는 절대로 그럴 분이 아니신데요.

가 : 의사 선생님, 제가 요즘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쉴 수가 없어요.

나 : 지금 건강상태로 보아서는 심한 일을 하면 몸이 견디지 못할 거예요.

가 : 한국의 인구 증가율은 어떻습니까?

나 : 지난 번에 한 인구조사 통계로 보아서는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가 : 이번 연고전에서는 어느 학교가 이길까요?

나 : 역대 전적으로 보아서는 연세대학교가 우세한데, 길고 짧은 것은 대 봐야죠.

4. 신문의 힘

1. -는 줄 알았는데요.

(보기) 가 : 3년 전부터 편팔하던 일본 친구를 어제 처음 만났어요.

나 : 저는 민수 씨가 일본어를 못 하시는 줄 알았는데요.

가 : 지난 주말에 와타나베 씨가 회사 테니스 대회에서 1등을 했대요.

나 : 와타나베 씨가요? 와타나베 씨는 운동을 전혀 못하는 줄 알았는데요.

가 : 어제 졸업시험을 봤어요.

나 : 졸업시험이라니요? 저는 현수 씨가 다음 학기에 졸업하는 줄 알았는데요.

가 : 담배 있으면 한 대만 주세요.

나 : 아직도 담배를 안 끊었어요? 저는 이제 담배를 안 피우시는 줄 알았는데요.

가 : 어제 길에서 우연히 민정 씨를 만났어요.

나 : 그래요? 저는 민정 씨가 미국에 간 줄 알았는데요.

가 : 저는 형제가 없어서 좀 외롭게 자랐어요.

나 : 그래요? 저는 형제가 많은 줄 알았는데요.

2. -었던데요.

(보기) 가 : 미선 씨에게 연락하셨어요?

나 : 전화해 보니까 벌써 고향으로 돌아갔던데요.

가 : 요즘 백화점들이 세일을 하고 있지요?

나 : 어제 가 보니까 벌써 끝났던데요.

가 : 박 선생님 결혼식때 손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나 : 예, 대학교 때 친구들이 많이 왔던데요.

가 : 사장님과 통화하셨어요? 아직 방에 계시죠?

나 : 벌써 퇴근하셨던데요.

가 : 방청소 하셨어요?

나 : 하려고 했는데 하숙집 아주머니께서 벌써 청소를 다 해 놓으셨던데요.

가 : 저한테 전화 온 거 없었어요?

나 : 아까 미선 씨한테서 급한 일 때문에 약속 장소에 못 나온다고 전화가 왔던데요.

3. -란 -는 거군요.

(보기) 가 : 이 선생님이 약혼하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나 : 소문이란 정말 빠른 거군요.

- 가 : 애인과 헤어지고 날마다 애인 생각으로 울고 있대요.
 나 : 이별이란 정말 가슴 아픈 거군요.
 가 : 여행을 갈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마음이 들뜨고 일이 손에 안 잡혀요.
 나 : 여행이란 참 즐거운 거군요.
 가 : 재산 상속 때문에 형제들끼리 싸움이 났대요.
 나 : 돈이란 참 무서운 거군요.
 가 : 다리가 불편한 아이를 날마다 학교까지 업고 다닌 어머니가 계시대요.
 나 : 어머니의 사랑이란 정말 감동적인 거군요.
 가 : 그 사람은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가장 친구까지 배반했대요.
 나 : 권력이란 참 비정한 거군요.

4. 아무리 -라도 _____ .

- (보기) 가 : 어제 친구와 농담 때문에 그만 싸워 버렸어요.
 나 :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도 서로 예의를 지켜야 해요.
 가 : 저 여자 치마 좀 보세요.
 나 : 아무리 짧은 치마가 유행이라도 저건 너무 심한데요.
 가 : 장 박사가 수술을 하다가 잘못해서 환자가 위험하대요.
 나 :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도 실수할 때가 있군요.
 가 : 자동차가 자꾸 고장나는데 팔아 버릴까요?
 나 : 아무리 고물 자동차라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죠.
 가 : 양말 한 켤레에 10만 원짜리가 있대요.
 나 : 아무리 부자라도 그런 걸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가 : 명현 씨가 오늘까지 그 일을 다 끝낼 수 있을까요?
 나 : 명현 씨가 아무리 일을 빨리 하는 사람이라도 그 많은 일을 오늘 다 끝낼 수는 없을 거예요.

5. _____ 축에 드나요?

(보기) 가 : 요즘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셨다면서요?

나 : 그 정도 가지고 부자 축에 드나요?

가 : 아드님이 일류 대학에 다니신다고요?

나 : 그 대학도 일류 대학 축에 드나요?

가 : 장 선생님 부인이 정말 미인이시군요.

나 : 어디 미인 축에 드나요? 조금 예쁜 편이지요.

가 : 생일날 남편한테서 보석 선물을 받으셨다지요?

나 : 은반지가 보석 축에 드나요?

가 : 선생님은 언제 봐도 멋쟁이세요.

나 : 제가 무슨 멋쟁이 축에 드나요. 저보다 더 멋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가 : 인수 씨 IQ가 140이라니 정말 수재시군요.

나 : 그 정도로 수재 축에 드나요? 저보다 머리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5. 미담

1. -고 얼마나 -었는지 모릅니다.

(보기) 가 : 고향에 계신 부모님에게서 편지가 왔다니 기쁘시겠어요.

나 : 예, 편지를 받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가 : 친구하고 싸웠어요?

나 : 예, 싸우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가 : 친구가 4년만에 미국에서 귀국한다고요?

나 : 예,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가 : 지난 번에 본 영화가 굉장히 감동적이었다면서요?

나 : 예, 그 영화를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가 : 테니스를 배워 보니까 어때요?

나 : 처음에는 테니스를 치고 얼마나 팔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가 : 올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을 읽어 보셨어요?

나 : 예, 그 책을 읽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2. 될 수 있는 대로 _____.

(보기) 가 : 학교에 몇 시까지 와야 돼요?

나 : 수업은 9시에 시작하지만 될 수 있는 대로 10분 전까지 오세요.

가 : 입학원서는 언제까지 내야 돼요?

나 :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내세요.

가 : 성인병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 : 될 수 있는 대로 야채하고 과일을 많이 잡주세요.

가 : 여행가는데 뭘 가져 가야 하죠?

나 : 될 수 있는 대로 짐을 가볍게 가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가 : 초상집에 가는데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나 : 될 수 있는 대로 화려한 옷을 피하세요.

가 : 어떻게 하면 자동차의 기름을 절약할 수 있어요?

나 : 될 수 있는 대로 경제속도 60Km로 다니도록 하세요.

3. -에다 _____.

(보기) 가 : 이 꽃을 어디에 놓을까요?

나 : 식탁 위에다 놓으세요.

가 : 연락처는 어디에 쓸까요?

나 : 이 종이에다 쓰세요.

가 : 커피는 어떻게 드세요?

나 : 커피에다 설탕 한 숟가락을 넣어서 마셔요.

가 : 이 사진은 어디에 붙일까요?

나 : 그 종이의 왼쪽 위에다 붙이세요.

가 : 방을 좀 예쁘게 꾸몄으면 좋겠어요.

나 : 그럼, 벽에다 그림을 걸어 보는 게 어떨까요?

가 : 제 양복에 어떤 넥타이가 어울릴까요?

나 : 민수 씨 양복에다 줄무늬 넥타이를 매면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4. -나요?

(보기) 가 : 그 사람은 형제가 7명이에요.

나 : 7명이나요?

가 : 어제 혼자서 소주를 5병 마셨어요.

나 : 혼자서 5병이나요?

가 : 제 형이 집을 나가서 3년동안 소식이 없어요.

나 : 3년이나요?

가 : 아주머니, 오늘 친구들이 스무 명쯤 올 거니까 음식 준비 좀 해 주세요.

나 : 스무 명이나요?

가 : 대학교를 10년동안 다녔대요.

나 : 10년이나요?

가 : 취미로 CD를 모으는데 한 300장 있습니다.

나 : 300장이냐요?

5. -같이 _____.

(보기) 가 : 민정 씨 딸이 그렇게 예쁘다고요?

나 : 예, 저도 한번 봤는데, 인형같이 예쁜 아이예요.

가 : 수민 씨와 얘기해 보셨어요?

나 : 예, 얘기해 보니까 천사같이 착한 사람이더군요.

가 : 그 마을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나 : 모두들 양같이 순한 사람들이었어요.

가 : 어떤 여자를 좋아하세요?

나 : 호수같이 눈이 맑은 여자가 좋아요.

가 : 이 사장님 별장에 가 보셨어요?

나 : 예, 정말 그림같이 아름다운 집이더군요.

가 : 미경 씨를 이번에는 절대로 용서 못하겠어요.

나 : 바다같이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주세요.

문화 해설

한글의 글자 모양은?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들어 발표할 당시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글을 뜻한다.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뜬 것으로, ‘ㄱ, ㄴ, ㄷ, ㄱ, ㅇ’이 기본 자음이다. 첫째, ‘ㄱ’은 어금닛소리로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것이요, 둘째, ‘ㄴ’은 혀끝소리로 혀끝이 위쪽 입천장에 버는 모양을 본뜬 것이요, 셋째, ‘ㄷ’은 입술소리로 입의 모양을 본뜬 것이요, 넷째, ‘ㄱ’은 잇소리로 이의 모양을 본뜬 것이요, 다섯째, ‘ㅇ’은 목구멍소리로 목구멍이 뚫린 모양을 본뜬 것이다. 그리고 이 다섯 개의 기본자음에 획을 덧붙여 그 밖의 자음들을 만들었다.

한편 모음의 기본자는 ‘·, ㅡ, ㅣ’이다. 첫째, ‘·’는 둥근 점으로서 하늘의 둥근 모양을 본뜬 것이고, 둘째, ‘ㅡ’는 평평한 선으로 땅의 모양을 본뜬 것이며, 셋째, ‘ㅣ’는 곧게 세운 선으로 사람이 땅 위에 서 있는 모양을 본뜬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한글은 매우 배우기 쉽고 음성학적으로도 이치에 맞는 글자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한글은 만들 때부터 반대하는 학자들이 많았고 만들어진 이후에도 한자 중심의 문화 속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한글은 주로 한자를 배우지 못한 평민이나 부녀자들을 통해 전해지다가 20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한국의 문자로서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

이야기해 봅시다.

신문 보고 알았어요.

1. 개가 사람을 무는 것은 신문에 날 만한 사건이 아니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화제거리가 되어 신문에 날 것입니다. 신문에 나올 수 있는 특이한 사건을 상상해서 말해 봅시다.

1)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서 여러분이 살던 나라에서는 기사가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2) 여러분들이 살던 나라에서 일어났던 일 중에서 한국 신문에 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2. 신문에 나는 여러 기사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뿌듯하게 했던 것이나 슬프게 했던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제 40 과

생활과 날씨

1. 일기예보

“갑자기 내린 폭설로 삼시간에 눈이 쌓여, 달리던 자동차들이 길을 잃고 제자리에 꼼짝도 못하고 서 버렸다.”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점점 폭우로 변해 이 시간 현재 강우량이 180mm를 넘었다. 이로 인해 교통이 마비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귀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위의 기사는 겨울철이나 여름철이면 한두 번씩 읽게 되는 신문의 내용이다. 아무리 일기예보를 듣고 대비를 한다고 해도 갑작스런 일기 변화에는 어쩔 수가 없다. 오래 전 우리는 어떤 일을 비유해서 말할 때 ‘일기예보같다’고 말했다. 그것은 일기예보가 그만큼 정확성이 없다는 말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인공위성을 이용한 구름 사진 등 수신자료를 근거로 하여 분석하는 일기예보이므로 비교적 정확하다. 하루 앞의 날씨만이 아니라 1주일의 날씨도 예보할 만큼 장기예보도 가능하게 되었다.

옛날에 우리 나라 겨울 날씨는 삼한사온이라고 하여 삼일은 몹시 춥고 사일은 날씨가 좀 풀려 따뜻하였다. 여름 더위에는 삼복이라는 고비

가 있어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더위를 예측하곤 했다.

오늘날에는 개개인의 생활 영역이 넓어졌으며 또 다양해졌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만 해도 직장을 중심으로 웅기종기 모여 살던 주거 생활에서 이제는 주거지와 사회생활 근거지가 구별되어 있어서 집과 직장의 거리가 멀어졌다. 혹시 급한 일이 있어도 쉽게 집에 다녀올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하루 생활의 준비는 아침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가운데에서도 날씨 변화에 대한 준비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특히 일기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 생활, 즉 비행기를 타거나 배를 타는 사람들, 수산업이나 농사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기예보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모처럼 소풍을 갔다가 비를 맞고 돌아오는 일도 요즘은 별로 없다. 기상청에다 미리 날씨를 알아 보고 날씨를 정할 정도로 일기예보를 믿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일기예보를 방송해 주는 아나운서가 쓰는 말이 너무 전문적이어서 쉽게 알아 들을 수가 없을 때가 많다는 것이다.

2. 봄 날씨

오 선생 : 웬 바람이 이렇게 불지요? 아직 꽃샘바람 불 때는 안 됐을 텐데...

박 선생 : 이맘때가 되면 중국대륙에서 발달한 고기압이 산둥반도를 지나면서 한 차례씩 불어 오곤 하지 않습니까?

오 선생 : 내일 야유회 가기로 했었는데 알아 봐야겠는데요. 이렇게 바람 불고 추워서야 어디 가겠어요?

박 선생 : 기온은 별로 낮지 않은데 바람이 부니까 체감온도가 훨씬 낮게 느껴지지요.

오 선생 : 기상예보 문의전화는 국번 없이 131번이지요?

박 선생 : 네, 맞아요. 그런데 가긴 틀린 것 같아요. 아침에 들으니 파도의 높이가 2미터나 되니 운항하는 선박들은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하던데요.

3. 장마

전 선생 : 아주 무덥고 온몸이 끈끈한 걸 보니까 또 비가 오려나 봐요. 벌써 장마가 시작됐나요?

송 선생 : 일기예보로는 우리 나라도 고온다습한 저기압권에 들어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다고 하던데요. 지금 현재 습도가 70%라니까 왜 무덥지 않겠어요?

전 선생 : 6월 장마가 들면 대개 한 달 반쯤 걸린다는데 지루해서 어떻게 하지요?

송 선생 : 그래도 우리 나라는 6월 장마라야 풍년이 든답니다. 초복, 중복 더위도 쉽게 지나가 버리니 좋지요. 뭐, 홍수나 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전 선생 : 작년에는 한강이 위험수위까지 올라가는 바람에 얼마나 마음들을 졸였다고요. 산사태로 인명 피해도 있었고요.

송 선생 : 그래도 우리 나라는 물난리는 가끔 나도 지진이나 태풍이 심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에요.

4. 여름 가뭄

김 선생 : 아침부터 찌는 걸 보니깐 오늘도 비가 오긴 다 틀린 것 같아요. 벌써 한 달째 비 한 방울 오지 않으니 큰일인데요.

이 선생 : 일기예보로는 아직도 우리 나라가 고기압권 내에 들어 있어서 메마르고 무더운 날씨가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던데요.

김 선생 : 오늘 기온이 섭씨 32도를 넘을 것이고 게다가 불쾌지수가 80도에 달할 것이라니까 모두 각별히 조심해야지요.

이 선생 : 이런 때는 사람들이 모두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짜증도 잘내고, 또 사고도 많이 내게 되나 봐요.

김 선생 : 이런 현상은 우리 나라만이 아니고 세계적인 이상기온이래요. 이렇게 날씨가 더울 때는 특별히 건강에 조심해야 해요.

이 선생 : 이렇게 불볕더위가 며칠만 더 계속되다가는 곡식이건 야채건 다 타 버리겠어요. 기우제라도 지내야지요.

5. 꽃샘추위

조 선생 : 오늘 낮 기온은 영상 7도까지 올라가 완전한 봄날씨였어요. 입춘도 지났으니 이젠 큰 추위는 없겠지요?

민 선생 : 일기예보로는 내일 낮까지는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으나 오후부터는 차차 기온이 내려가 모레 아침부터는 다소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다던데요.

조 선생 : 초봄 날씨는 하도 변덕스러워서 안심할 수 없어요. 게다가

음력 정월까지는 추위가 안 물러가니까요.

민 선생 : 영동지방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5~6도까지 내려가나, 서울을 비롯한 중서부지방은 아침 최저가 영하 1~2도 정도래요.

조 선생 : 제주도에서는 벌써 꽃소식이 들리던데, 이제 추우면 얼마나 더 춥겠어요? 그래도 금년엔 별로 춥지 않고 지나간 셈이에요. 한강이 얼지 않았으니 말이에요.

어휘와 문법

1. 일기예보

1. **삼시간** : 아주 짧은 시간.
일순간. 눈 깜짝할 시간.

홍수가 나서 그 마을이 삼시간에 물바다가 되었다.
삼시간에 고아가 된 그 아이들이 너무나 불쌍하다.

2. **-로 인해** _____ : 명사에 붙어 쓰이며, 이유를 나타내는 연결어미로서, 일반적
인 대화보다는 문어체나 격식체에서 쓰인다.

예 : 그 사람이 과로로 인해 쓰러졌대요.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인해 거리가 한산해졌어요.
그 사고로 인해 많은 희생자가 생겼다고 해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생긴 이재민을 돕기 위해 바자회를 열어요.
남북한의 오랜 분단으로 인해 말에도 많은 차이가 생겼어요.

3. **-에는 어쩔 수가 없다** : '어떻게 달리 해 볼 도리가 없다'는 뜻.
-에는 불가항력이다. -에는 별 도리가 없다.

아무리 그 일이 하기 싫어도 사장님의 명령에는 어쩔 수가 없다.
그녀의 미소에는 어쩔 수가 없어 그녀의 부탁을 들어 주었다.

4. **삼복** : 초복, 중복, 말복을 통틀어 이르는 말. 일 년 중 가장 더운 기간.
삼복더위.

삼복은 일 년 중 가장 날씨가 더운 때로서, 보통 식욕이 떨어져 기력이 약해지므로 삼계탕같이 몸을 보호하는 음식을 먹기도 한다.

5. **고비** : 일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하거나 어려운 순간이나 단계. 고비에 이르다. 고비를 넘기다. 막바지
한국 경제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이번 고비만 잘 넘기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죽을 고비를 넘겼다.

6. **영역** :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또는 '학문, 연구 등에서 그 관계자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 또는 분야'를 뜻한다.

영역별.

요즘은 서로 연구 영역이 다르다면서도 어떤 주제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하는 것이 유행이다.

7. **웅기종기** : 크기가 같지 않은 작은 물건이 귀엽게 많이 모여 있는 모양. 띄엄띄엄. 열기설기.

아이들이 놀이터에 웅기종기 모여 앉아 노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다.

열서너 집이 웅기종기 모여서 사는 작은 마을이 보인다.

8. **민감하다** : 느낌이 날카롭고 빠르다. 둔감하다. 민첩하다.

그 사람은 특히 유행에 민감하다.

그 여자는 내 말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9. **모처럼** : 애써서 오래간만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끝에 처음으로.

모처럼 왔는데 김 선생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

전엔 힘든 것을 못 느꼈는데, 모처럼 운동을 하니 굉장히 피곤하다.

2. 봄 날씨

1. **꽃샘바람** : 이른 봄철 꽃필 무렵의 쌀쌀한 바람.

꽃샘추위.

꽃샘바람이 부는 이런 날씨에는 감기를 조심해야 한다.

2. **중국대륙에서 발달한 고기압** : '고기압'은 주위보다 높은 기압으로, 중국대륙에서 차차 커지기 시작한 고기압을 말한다. 한국의 날씨는 중국과 태평양의 영향을 받는다.

3. **야유회** : 교외로 나가서 노는 것을 말한다.

들놀이. 소풍.

급한 일이 생겨서 이번 주말에 가기로 한 야유회를 취소해야만 했다.

지난 번 야유회에서 미선 씨가 노래를 멋지게 불러 인기를 끌었다.

4. **-어서야 어디 ____** : 선행문과 같은 상황 아래에서 후행문의 내용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강하게 나타낼 때 쓴다. '어디' 이하의 후행문은 의문문을 써서 강한 부정을 나타낸다.

예 : 이렇게 추워서야 어디 밖에 나갈 수 있겠어요?

공부를 저렇게 안 해서야 어디 고등학교에나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자주 노사 분규가 일어나서야 어디 경제가 안정되겠어요?

지하철이 이렇게 복잡해서야 어디 지하철로 출퇴근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낭비를 해서야 어디 평생 집 한 채 장만하겠나?

5. **체감온도** : 실제 온도와는 달리 몸으로 느끼는 온도.

체감물가.

바람이 불고 있어서 체감온도는 훨씬 낮다.

따뜻한 곳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면 체감온도가 꽤 높아진다.

6. 파도 : 바다에서 이는 센 물결.

파도가 일다. 파도가 치다. 파도가 밀리다.

오늘은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아서 배를 운항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녀의 마음 속에 일고 있는 사랑의 파도가 내게 전해 온다.

7. 운항하다 : 배를 운전하여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게 하다.

운항속도. 운항일지.

오늘의 날씨를 운항하기에 알맞다.

태평양을 운항하고 있는 여객선으로부터 구조신호가 왔다.

8. 선박 : 배

선박회사.

이 선박에는 삼십여 명의 선원이 타고 있다.

선박을 이용하여 물건을 운송하는 것이 비용이 덜 든다.

3. 장마

1. 끈근하다 : 잘 떨어지지 않고 달라붙는 성질이 있다.

끈적끈적하다. 끈기.

수백 통의 편지에 풀로 우표를 붙이고 나니까 손이 끈끈하다.

2. -려나 봐요 : 동작동사와 어울려 현재의 어떤 상황을 통해 볼 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추측하여 말할 때 쓴다. 주어가 3인칭일 때만 쓴다.

예 :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는 걸 보니, 오늘은 좀 늦으려나 봐요.

곧 대통령의 중대 발표가 있으려나 봐요.

자기들의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으니까 파업을 시작하려나 봐요.

그 사건에 대한 책임자들을 곧 처벌하려나 봐요.

값이 자꾸 오르는 걸 보니 정부의 계획대로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으려
나 봐요.

3. **고온다습** : 온도가 높고 습기가 많다. 한국의 여름날씨.
고온다습한 기후.

장마철이라서 날씨가 고온다습하다.
고온다습한 남태평양 기류가 한국으로 오고 있다.

4. **저기압** : 주위보다 낮은 기압.
고기압.

저기압이 몰고 온 비구름으로 하늘이 어둡다.
김 선생님은 오늘 사모님과 다투었는지 기분이 저기압이다.

5. **-권** : 둘레나 테두리 안을 나타내는 말.
영향권. 정치권. 대기권

애들은 두목의 영향권 안에 들어 있으므로 그의 보호도 받고 그로부터 학대도
받았다.

6. **본격적** : 제격에 맞게 활발한.
본격적인. 본격적으로.

처음에는 부업으로 시작했는데, 이젠 회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해 봐야겠
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집이며 담이며 손 봐야 합니다.

7. **습도** : 공기의 건조하고 습한 정도. (대기중에 포함되는 수증기의 양과 그 대
기가 그 온도에서 포함할 수 있는 최대한도의 수증기의 양과의 비)
습도계. 습하다. 습기.

온도와 습도가 모두 높은 이런 무더운 날엔 짜증이 나게 마련이다.

겨울철엔 습도가 낮고 건조해서 불이 나면 아주 잘 탄다.
실내 공기가 너무 건조하면 가습기를 틀어 습도를 조절해야 한다.

8. **들다** : 어떤 상태가 이루어지다.

흥년이 들다. 풍년이 들다. 장마가 들다. 나이가 들다.

사랑한다는 말보다는 미운 정 고운 정이 다 들었다는 것이 더 한국적인 표현인 것 같다.

감기가 들어서 콧속도 못하고 집에 있었다.

9. **-라야** _____ : 명사와 어울리며, 선행문에 나타난 조건에서만 후행문과 같은 결과가 나타남을 강조할 때, 또는 선행문의 조건이 대수롭지 않음을 양보적으로 말할 때 쓰인다.

예 : 그 영화는 성인이라야 볼 수 있대요.

그 곳은 관계자라야 출입할 수 있는 곳이에요.

정성껏 준비한 선물이라야 진정한 선물이라고 할 수 있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야 고작 설거지 뿐이지, 뭐.

결혼 20년만에 산 집이라 봐야 30평짜리 다세대주택인걸.

10. **수위** : 바다, 강, 호수 등의 수면의 높이.

위험수위.

오랜 장마로 한강의 수위가 높아져 낮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그분의 발언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11. **-는 바람에** _____ : 동작동사에 붙어 쓰이며, 선행문의 원인이나 기세가 후행문의 결과에 영향을 미침을 뜻한다.

예 : 서둘러서 나오는 바람에 중요한 서류를 깜박 잊고 나왔어요.

며칠동안 일에 쫓기는 바람에 전화도 못 드렸어요.

차가 밀리는 바람에 예정보다 1시간이나 늦게 도착했습니다.
형이 유학을 떠나는 바람에 나는 독방을 쓰게 되었어요.
정치 개혁을 하는 바람에 스스로 물러난 공직자가 많아졌어요.

12. 마음을 졸이다 : 속을 태우다시피 조바심을 내다.
가슴을 졸이다.

그렇게 마음을 졸이지 말고 편한 마음으로 기다려 보세요.
밤 12시가 넘도록 들어오지 않는 아들을 기다리며 어머니는 마음을 졸였다.

13. 사태 : 언덕이나 산비탈이 비로 인해 무너지는 일, 또는 쌓여 있던 눈이 흘러 내리는 일.
사태가 나다.

겨울이 되면 늘 눈사태가 나서 그 마을의 입구가 막혀 버린다.
갑작스런 산사태로 풀을 먹던 20여 마리의 가축들이 묻혀 버렸다.

14. 피해 : 재산, 명예, 신체상의 손해를 입는 것.
피해를 주다. 피해를 입다. 피해자. 가해자.

지난 태풍으로 입은 피해액이 5억 원에 가깝다.
그 사기꾼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이 셀 수 없이 많다.

15. 천만다행 : 매우 다행임.
위험천만. 천만뜻밖.

비행기가 추락했는데도 불행 중 다행으로 사망자 없이 부상자만 있다는 것이 천만다행이다.

천만다행으로 김 선생님의 자동차가 절벽 바로 앞에서 섰다.

4. 여름 가뭄

1. 가뭄 : 오랫동안 비가 안 오는 날씨.

가뭄이 들다. 가물다. 한발.

가뭄 끝은 있어도 장마 끝은 없다.

그 학생은 가뭄에 콩 나듯이 학교에 온다.

2. 찌다 : 뜨거운 김으로 음식을 익히거나 식은 것을 덥히다.

찌는 듯한 더위. 찜통.

찌는 더위를 이기지 못해 모두들 물 속으로 뛰어 들었다.

딱딱하게 굳은 떡을 다시 찌니 새로 한 것처럼 부드럽다.

3. 다 틀린 것 같다 : 어떤 일의 가능성이 모두 사라진 것 같다.

다 그른 것 같다.

일이 되어 가는 것을 보니 성공하기는 다 틀린 것 같다.

저 친구 공부하는 것을 보니 이번 시험에 합격하기는 다 틀린 것 같다.

4. -째 : 시간을 나타내는 말 뒤에 붙어, '그 시간 동안'의 뜻을 나타내거나 일부 차례나 등급을 나타내는 명사에 붙어서 '그 수 만큼'의 뜻을 나타낸다. 또 일부 명사에 붙을 때는 '전부, 그대로'라는 뜻이다.

한 달째. 두 시간째. 첫째. 둘째. 뿌리째.

벌써 두 시간째 기다리는 중이다.

친구가 며칠째 소식이 없어서 하숙집에 가 볼까 한다.

5. 메마르다 : 땅이 물기가 없고 기름지지 못하다.

건조하다. 인정. 감정이 메마르다.

오랜 가뭄으로 산과 들이 메말랐다.

요즘처럼 인정이 메마른 세상에선 그런 사람을 찾아 보긴 힘들다.

6. 섭씨 : 온도계의 눈금의 명칭.

섭씨 30도(30℃). 화씨 55도(55°F)

7. 불쾌지수 : 온도, 습도 등으로 인해 인체에 느껴지는 쾌, 불쾌의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 것.

불쾌감. 불쾌하다. 물가지수. 지능지수.

불쾌지수가 80이상이면 거의 모든 사람이 불쾌감을 느낀다.

요즘같이 불쾌지수가 높을 때는 서로 목소리가 높아지기 마련이다.

8. 달하다 : 목적을 이루다. 어떤 장소, 수치, 정도에 이르다.

극도에 달하다.

백 명의 학생 중에서 그 영화를 본 사람이 거의 90명에 달한다.

9. 신경이 날카롭다 : 사물에 대한 주의가 보통 때보다 날카롭다.

신경이 예민하다.

요즘 진급문제로 신경이 날카롭다.

김 선생님은 신경이 날카로운 사람이니 조심하는 것이 좋다.

10. 짜증 : 속에서 올라오는 화나 싫증.

짜증나다. 짜증스럽다.

아무리 좋은 소리도 자꾸 듣다 보면 짜증이 난다.

날씨는 덥고, 할 일은 많고, 그래서 자꾸 짜증이 난다.

11. 이상기온 : 보통 때와는 다른 기온. 제 철에 맞지 않는 기온.

이상난동. 이상한파.

지구의 오염으로 인해 곳곳에 이상기온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올해 겨울에는 이상난동으로 야외 스케이트장이 완전히 망했다.

12. 불별 : 몹시 뜨겁게 내려 쬐는 햇볕.

불별더위. 불별같다.

불별 밑에서 일을 하자니 죽을 지경이다.

불별더위가 시작되자 사람들이 휴가를 떠났다.

5. 꽃샘추위

1. 완연하다 : 뚜렷하게 나타나다. 모양이 서로 비슷하다.

완연히. 완연하게.

이제는 봄이 완연하다.

그 아이는 완연히 제 할아버지였다.

2. 포근하다 : 탄력성이 있고 보드라워서 솜 위에 살이 닿을 때와 같이 약간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이 있다.

포근히. 푸근하다.

어머니의 품과 같이 포근한 내 조국이여!

이불이 포근하니까 절로 잠이 온다.

3. 다소 : 얼마쯤. 약간

월급이 다소 적은 것 같지만 대신 배우는 것이 많으므로 만족합니다.

다소 제가 실수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4. 추위가 물러가다 : '물러가다'는 어떤 것이 왔다가 다시 돌아간다는 뜻.

더위가 물러가다. 병마가 물러가다.

아직 추위가 물러갈 때가 안 되었다.

어느새 불별더위가 물러가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분다.

5. 비롯하다 : 처음으로 시작되다.

비롯되다. 비로소.

이 영화는 여행 중에 실제로 경험한 이상한 사건에서 비롯했다.

위로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아래로는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6. 추우면 얼마나 더 춥겠어요? : '-면 얼마나 더 -겠어요?'는 '더이상 -(으)ㄴ 수 없으니까 신경쓰지 말라'는 뜻으로 쓰인다.

아이가 먹으면 얼마나 더 먹겠어요?

자기가 알면 얼마나 더 알겠어요?

7. -는 셈이다 : 사실 꼭 그렇지는 않지만 앞뒤의 상황으로 짐작해 볼 때 그런 정도이거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음을 뜻한다.

예 : 월급의 50% 이상을 예금하니까 많이 저축하는 셈이죠.

임금이 올랐지만 물가가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임금이 오르지 않은 셈이에요.

지난 번에는 자네가 이겼고, 오늘은 내가 이겼으니 서로 비긴 셈이네.

아기가 엄마와 있는 시간은 주말 뿐이니 늘 떨어져 있는 셈이지요.

평균이 75점인데 말하기는 85점이니 다른 것에 비해서 말은 잘 하는 셈이지요.

문형 연습

1. 일기예보

1. -어 버리다.

(보기) 가 :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어요?

나 : 버스 안에서 지갑을 잃어 버렸어요.

가 : 왜 어제 모임에 안 나왔어요?

나 : 미안해요. 깜빡 잊어 버렸어요.

가 : 영수 씨 어디 갔어요?

나 : 화가 나서 나가 버렸어요.

가 : 어제 남은 음식은 어떻게 했어요?

나 : 제가 친구들하고 다 먹어 버렸어요.

가 : 지난 번에 타던 자동차는 팔았어요?

나 : 동생에게 줘 버렸어요.

가 : 이번에 보너스 받으셨지요? 좀 빌려 주세요.

나 : 벌써 다 써 버리고 한 푼도 없어요.

2. -로 _____.

(보기) 가 : 과장님이 왜 입원하셨대요?

나 :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치셨대요.

가 : 영선 씨가 안 보이는데 학교에 안 나왔나요?

나 : 예, 감기로 결석했어요.

가 : 어제 신문 보셨어요?

나 : 예, 지진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쳤더군요.

가 : 지하철이 정말 복잡하군요.

나 : 예, 이 시간에는 지하철이 출근하는 사람들로 언제나 만원이에요.

가 : 사장님이 왜 입원하셨대요?

나 : 과로로 쓰러지셨대요.

가 : 올해는 흉년이라지요?

나 : 예, 오랜 가뭄으로 농작물이 다 말라 죽었대요.

3. -로 인해 _____.

(보기) 가 : 남부지방에 태풍이 지나갔다면서요?

나 : 예, 강한 바람을 동반한 폭우로 인해 그 지방에 큰 피해가 났대요.

가 : 인호 씨는 언제나 담배를 많이 피우더니 요즘 달라진 것 같아요.

나 : 지나친 흡연으로 인해 건강을 해쳤다고 이제부터라도 담배를 끊겠대요.

가 : 영진 씨는 근식 씨와 잘 아는 사이예요?

나 : 예, 그분의 도움으로 인해 지금의 제가 있게 되었지요.

가 : 진수 씨가 병원에 입원했다던데 무슨 일이에요?

나 : 며칠동안 밤을 새면서 일하다가 과로로 인해 쓰러졌대요.

가 : 요즘 그 나라의 경제 사정이 어때요?

나 : 전쟁으로 인해 경제 사정이 굉장히 나빠졌대요.

가 : 수입 완전 자유화가 곧 발표된다고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면서요?

나 : 아니요, 이번 정부 발표로 인해 국민들이 안심하게 되었어요.

4. -(으)ㄹ 만큼 _____.

(보기) 가 : 형제가 얼굴이 많이 닳았어요?

나 : 누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만큼 닳았어요.

가 : 누님이 많이 건강해지셨어요?

나 : 예, 이제는 운동도 할 만큼 건강이 회복되었어요.

가 : 그 코메디 영화가 재미있다면서요?

나 : 예, 눈물이 나올 만큼 웃겨요.

가 : 갈비찜이 그렇게 맛이 있어요?

나 : 예,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만큼 맛이 있어요.

가 : 할머니, 손주가 그렇게 귀여우세요?

나 : 그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엽지.

가 : 어제 돌 잔치에 가서 잘 잡수셨어요?

나 : 예, 정말 배가 불러서 일어날 수 없을 만큼 많이 먹었어요.

5. 모처럼 _____.

(보기) 가 : 어제 어디 다녀 오셨어요?

나 : 모처럼 등산을 갔는데 산 입구에서 비가 와서 돌아왔어요.

가 : 아주 열심히 공부하시네요.

나 : 모처럼 다시 시작한 공부니까 열심히 해야죠.

가 : 이제 그만 집에 가야겠어요.

나 : 왜요, 모처럼 놀러 오셨는데 더 노시다가 가세요.

가 : 10년만에 만난 친구와 무슨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 : 모처럼 만나니까 오히려 더 할 말이 없더군요.

가 : 어제 저녁에 뭐 하셨어요?

나 : 모처럼 외식을 하려고 집사람하고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이 정기 휴일이어서 그냥 돌아왔어요.

가 :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군요.

나 : 모처럼 친구를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려고 했는데 날씨가 더워서 음식이 벌써 상해 버렸잖아요.

2. 봄 날씨

1. 웬 _____ ?

(보기) 가 : 선생님, 숙제 여기 있어요.

나 : 웬 일이에요? 윌리엄 씨가 숙제를 다 해 오고.

가 : 미숙 씨 이 케익 좀 잡춰 보세요.

나 : 웬 케익이에요? 오늘 누구 생일이에요?

가 : 우리 내일 여행이나 갈까요?

나 : 갑자기 웬 여행이에요? 다음 주에 시험인데.

가 : 영숙 씨, 이 자동차 어때요? 멋있지요?

나 : 웬 자동차예요? 새로 샀어요?

가 : 수민 씨, 오래간만에 만나는군요.

나 : 예, 그런데 이게 웬 가방이에요? 여행가요?

가 : 지금 밖에 비가 많이 오나 봐요.

나 : 일기예보에서 오늘은 날씨가 좋을 거라고 했는데 웬 비가 오지요?

2. 이맘때가 되면 _____.

(보기) 가 : 연말이 되니까 거리에 사람이 정말 많군요.

나 : 예, 이맘때가 되면 모두들 마음이 들뜨지요.

가 : 요즘 백화점마다 정기 세일이래요.

나 : 예,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세일을 하지요.

가 : 한국에서는 언제쯤 첫눈이 와요?

나 : 이맘때가 되면 첫눈이 오는데 올해는 좀 늦는 것 같아요.

가 : 영민 씨가 설악산에 갔대요.

나 : 영민 씨는 매년 이맘때가 되면 꼭 설악산으로 여행을 가요.

가 : 3년 후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나 : 3년 후 이맘때가 되면 아마 난 결혼해서 아기 엄마가 되어 있을 거예요.

가 : 설악산을 좋아하세요?

나 : 이맘때가 되면 늘 친구들과 함께 설악산에 가곤 했지요.

3. 이렇게 -어서야 어디 _____ ?

(보기) 가 : 물가가 비싸서 살기가 힘들어요.

나 : 이렇게 월급은 안 오르고 물가만 올라서야 어디 살 수가 있겠어요?

가 : 자동차가 자꾸 많아지는 것 같아요.

나 : 이렇게 교통이 복잡해서야 어디 다닐 수가 있겠어요?

가 : 옆집 피아노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죽겠어요.

나 : 글썸 말이야. 이렇게 저녁 늦게까지 시끄러워서야 어디 잠을 잘 수 있겠어?

가 : 지금 몇 시지요? 회사에 가야 하는데.

나 : 그렇게 아프고서야 어디 회사에 출근하겠니?

가 : 취미가 아무것도 없으세요?

나 : 이렇게 바쁘고서야 어디 틈을 내서 취미생활을 하겠어요?

가 : 영민 씨가 또 화가 났나 봐요.

나 : 저렇게 화를 잘 내서야 어디 친구를 사귄 수 있겠어요?

3. 장마

1. -(으)ㄴ 걸 보니까 -려나 봐요.

(보기) 가 : 날씨가 왜 이렇게요?

나 : 글썸요. 구름이 잔뜩 낀 걸 보니까 소나기가 오려나 봐요.

가 : 크리스 씨가 아직까지 안 왔어요?

나 : 예, 한 시간이 넘도록 안 오는 걸 보니까 오늘은 학교에 안 오려나 봐요.

가 : 민수 씨가 웬 일이죠? 식사 후에도 담배를 안 피우는군요.

나 : 한 달째 담배를 안 피우는 걸 보니까 이번엔 정말 담배를 끊으려나 봐요.

가 : 정수 씨가 지금 뭐해요?

나 : 옷을 다리는 걸 보니까 외출하려나 봐요.

가 : 옆집 사람들이 왜 왔다갔다하지요?

나 : 사람들이 짐을 싸는 걸 보니까 이사하려나 봐요.

가 : 어디 아프세요? 안색이 안 좋은데요.

나 : 예, 요즘 계속 피곤하고 소화가 안 되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병원에 가야 하려나 봐요.

2. __ (으)로는

(보기) 가 : 장관들이 다 바뀔거라는 소문이 있던데요.

나 : 정부 발표로는 당분간 그런 일은 없을 거랍니다.

가 : 민국 씨가 요즘 안 보이는데 뭘 한대요?

나 : 소문으로는 이민을 갔대요.

가 : 이번 야구경기에서 누가 이길까요?

나 : 전문가 말로는 역대 전적으로 보아 우리 편이 유리하대요.

가 : 요즘 물가가 어때요?

나 : 신문보도로는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던데요.

가 : 어제 병원에서 검사 받으셨죠?

나 :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별 이상이 없대요.

가 : 통일신문사 입사 시험이 언제래요?

나 : 제가 알아 본 바로는 올해엔 신입사원 모집이 없대요.

3. -는다니까 왜 -지 않겠어요?

(보기) 가 : 부장님은 월급도 많으실 텐데 생활에 여유가 없으신가 봐요.

나 : 대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둘이나 있다니까 왜 힘드시지 않겠어요?

가 : 그 회사 사람들이 파업을 일으켰대요.

나 : 일은 많고 월급은 다른 회사의 반 밖에 안 된다니까 왜 화가 나지 않겠어요?

가 : 윗층 아주머니가 요즘 날마다 왜 저렇게 웃고 다니죠?

나 : 남편이 이번에 또 승진했다니까 왜 웃음이 나오지 않겠어요?

가 : 저 아주머니는 늘 신경질적인 것 같아요.

나 : 아이가 다섯이라니까 왜 짜증이 나지 않겠어요?

가 : 미국에 있을 때는 한국이 그리웠는데 한국에 오니까 또 미국이 그리워요.

나 : 미국에서 태어나서 20년 동안이나 살다 왔다니까 왜 미국이 그리지 않겠어요?

가 : 결혼식장에서 수미 씨 어머니가 우시는 것 같았어요.

나 : 곱게 키운 딸이 시집을 간다니까 왜 섭섭하지 않겠어요?

4. -라야 _____.

(보기) 가 : 그 회사에 입사하고 싶은데 어떤 조건이 있나요?

나 : 무역회사니까 영어를 잘 하는 사람이라야 입사할 수 있을 거예요.

가 : 그 회사의 사장님은 엔지니어 출신인데 이번에 책을 쓰셨대요.

나 : 문학을 전공한 사람이라야 책을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 : 그 영화는 누구나 다 봐도 돼요?

나 : 18세 이상이라야 그 영화를 볼 수 있대요.

가 : 어떤 사람이 이 회사에 입사할 수 있습니까?

나 : 건강하고 유능한 사람이라야 우리 회사에 입사할 수 있습니다.

가 : 이 백화점에서 주는 사은품은 얼마 이상 사야 받아요?

나 : 2만 원 이상이라야 사은품을 받을 수 있어요.

가 : 오늘 저녁 파티에 갈 거예요?

나 : 부부동반이라야 참석할 수 있다니까 저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5. -는 바람에 _____.

(보기) 가 : 시험 공부 많이 하셨어요?

나 : 어제 밤에 전기가 나가는 바람에 시험공부를 못 했어요.

가 : 더 주무시지 않고 왜 벌써 일어나셨어요?

나 : 밖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바람에 더 잘 수가 없어요.

가 : 옷에 뭐가 묻었어요?

나 : 커피를 마시는데 옆 사람이 모르고 치고 지나가는 바람에 커피를 쏟았어요.

가 : 왜 팔에 기브스를 했어요?

나 : 계단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부러졌어요.

가 : 약속 시간에 많이 늦으셨군요.

나 : 예, 차가 고장나는 바람에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가 : 왜 곧장 집에 안 왔어요?

나 : 집에 오다가 우연히 친구를 만나는 바람에 잠깐 다방에 들렀다 왔어요.

4. 여름 가뭄

1. -긴 다 틀렸다.

(보기) 가 : 다음 주 월요일부터 중간 시험이 시작돼요.

나 : 주말에 쉬긴 다 틀렸군요.

가 : 길이 너무 막히는데요.

나 : 제시간에 도착하긴 다 틀린 것 같아요.

가 : 집 값이 또 오른대요.

나 : 올해 안에 집을 사긴 다 틀렸어요.

가 :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하죠?

나 : 오늘도 일찍 집에 들어가긴 다 틀렸군요.

가 : 시험 잘 보셨어요?

나 : 이번에 시험을 못 봐서 장학금을 타긴 다 틀린 것 같아요.

가 : 이번 추석에 고향에 가실 거지요?

나 : 기차표를 못 사서 이번 추석에 고향에 내려가긴 다 틀렸어요.

2. 계다가 _____.

(보기) 가 : 철수 씨가 성격이 참 좋죠?

나 : 예, 성격이 좋고 계다가 똑똑해서 인기가 좋아요.

가 : 이 음식이 너무 짜죠?

나 : 예, 너무 짜고 계다가 매워서 더 못 먹겠어요.

가 : 가을을 좋아하세요?

나 : 예, 가을은 날씨가 좋고 계다가 먹을 것도 많잖아요.

가 : 이 방이 좀 좁은 것 같죠?

나 : 예, 방이 너무 좁고 계다가 가구가 너무 커서 더 좁아 보여요.

가 : 요즘 경제 사정이 안 좋은 모양이죠?

나 : 예, 인건비가 오르고 계다가 가물까지 겹쳐서 물가가 오르기 때문이죠.

가 : 왜 큰 차보다 작은 차가 인기가 있을까요?

나 : 작은 차는 기름도 적게 들고 계다가 세금이 아주 싸거든요.

3. -만이 아니고 _____.

(보기) 가 : 이 불고기는 영미 씨가 만드셨어요?

나 : 그럼요. 불고기만이 아니고 여기 있는 음식 모두 제가 만든 걸요.

가 : 우리 나라에서는 요즘 공해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나 : 그건 한국만이 아니고 세계 모든 나라의 문제예요.

가 : 구두 새로 사셨어요?

나 : 예, 구두만이 아니고 옷이랑 핸드백이랑 많이 사서 지금 돈이 한푼도 없어요.

가 : 요즘 환절기라서 아이들은 감기에 조심해야 돼요.

나 : 이번 감기는 아이들만이 아니고 어른들도 조심해야 된대요.

가 : 요즘 달러 값이 계속 오르고 있지요?

나 : 달러만이 아니고 엔 화도 상승세예요.

가 : 요즘 현금 인출기가 있어서 돈 찾기가 아주 편리하지요?

나 : 예, 인출만이 아니고 대출까지 자동으로 되니까 아주 편리해요.

5. 꽃샘추위

1. 비교적 _____.

(보기) 가 : 사또 씨 발음이 어때요?

나 : 비교적 좋은 편이에요.

가 : 6살인데 이렇게 키가 커요?

나 : 예, 우리 애가 비교적 큰 편이에요.

가 : 미애 씨 아버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 : 비교적 개방적인 분이세요.

가 : 집에서 기를 수 있는 동물로는 뭐가 좋을까요?

나 : 고양이나 강아지가 비교적 기르기가 쉽지요.

가 : 교통이 별로 안 막히는군요.

나 : 글썄 말이에요. 오늘은 토요일인데도 비교적 차가 잘 빠지는군요.

가 : 벌써 단풍이 들었네요.

나 : 예,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비교적 단풍이 일찍 들었군요.

2. 하도 -어서 _____.

(보기) 가 : 벌써 식사 하셨어요?

나 : 예, 미선 씨와 같이 먹으려고 기다리다가 하도 배가 고파서 먼저 먹었어요.

가 : 지난 주에 어디 갔다 오셨어요?

나 : 공부도 잘 안 되고 하도 답답해서 바다 구경 좀 하고 왔어요.

가 : 안에서 기다리시지 왜 밖에 나와 계세요?

나 : 옆에 앉은 사람이 담배를 하도 피워서 나왔어요.

가 : 집에 전자 오락기가 있으시군요.

나 : 아이가 하도 사 달라고 졸라서 사 줬어요.

가 : 아직 결혼하고 싶지 않다면서 왜 선을 보셨어요?

나 : 어머니가 하도 잔소리를 하셔서 봤어요.

가 : 피곤하시다면서 왜 벌써 일어나셨어요?

나 : 밖이 하도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3. -나 _____.

(보기) 가 : 세 살 때 기억이 나요?

나 : 확실한 기억은 없으나 제가 살았던 집은 기억이 나요.

가 : 그 동네는 교통이 불편한데 왜 그리로 이사를 가세요?

나 : 교통은 불편하나 공기가 좋거든요.

가 : 한국 여자들이 옛날처럼 늘 한복을 입고 생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 : 한복이 보기엔 아름답고 좋으나 생활하기엔 좀 불편한 옷이에요.

가 : 요리하기가 귀찮아서 라면을 자주 먹는 편이에요.

나 : 라면은 간편하기는 하나 건강에는 별로 좋지 않은 음식이에요.

가 : 사립 대학교는 등록금이 너무 비싸지 않아요?

나 : 그렇기는 하나 선생님들이나 환경이 좋은 편이에요.

가 : 한국의 여름은 굉장히 덥군요.

나 : 덥기는 하나 그래도 장마철을 제외하고는 습기가 많지 않아서 괜찮아요.

4. -면 얼마나 더 -겠어요.

(보기) 가 : 영화가 너무 길어서 지루한데 나갈까요?

나 : 1시간이나 지났는데 길면 얼마나 더 길겠어요. 참고 끝까지 봅시다.

가 : 장마가 얼마나 계속될지 걱정이군요.

나 : 벌써 3주일이나 비가 왔는데 앞으로 오면 얼마나 더 오겠어요.

가 : 민수는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좀 그만 먹으라고 하세요.

나 : 먹으면 얼마나 더 먹겠어요. 마음껏 먹으라고 합시다.

가 : 우리 할머니는 잔소리가 너무 심해서 짜증이 나요.

나 : 이제 사시면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힘들어도 조금만 참으세요.

가 : 길이 막히는데 다른 길로 돌아서 갈까요?

나 : 빨리 가면 얼마나 더 빨리 가겠어요. 그냥 이 길로 갑시다.

가 : 옆 방 친구가 자꾸 제 방에 와서 전화를 써요.

나 : 전화 요금이 나오면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친구 사이가 멀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5. -(으)ㄴ 셈이다.

(보기) 가 : 아침 식사는 하셨어요?

나 : 커피하고 사과 한 쪽을 먹었으니 한 셈이죠.

가 : 경주에 가 보셨어요?

나 : 텔레비전도 보고 사진도 봤으니까 가 본 셈이에요.

가 : 이번 학기는 언제 끝난대요?

나 : 수업은 아직 좀 남았지만 학기말 시험이 끝났으니 이제 다 끝난 셈이죠.

가 : 이번 시험은 무슨부였죠?

나 : 그렇지만 우리가 더 안 좋은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이번 시험은 우리가 이긴 셈이에요.

가 : 기숙사생활하고 하숙생활을 비교해 보면 어때요?

나 : 기숙사보다 하숙비는 비싸지만 식사가 나오기 때문에 하숙생활이 더 싼 셈이에요.

가 : 남편이 어제 일찍 들어오셨어요?

나 : 보통 귀가시간이 12시인데 어제는 10시에 들어왔으니 일찍 들어온 셈이죠.

문화 해설

24절기

24절기는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한 바퀴 도는 360도를 15도씩 24등분하여 만든 것이다. 24절기의 첫째는 입춘(立春)이고 그 다음은 경칩(驚蟄)이다. 경칩은 땅 속의 동물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는 뜻이며 이 때 매화나 진달래의 싹이 튼다. 밤과 낮의 길이가 거의 같은 춘분(春分)에는 감자와 봄 무를 심고 나비들이 날아다니기 시작한다. 한식(寒食)에는 조상의 묘를 찾아 보고 한식의 하루 전날이거나 같은 날인 청명(淸明)에는 청명주(酒)를 담으며, 농촌에서는 본격적인 농사 준비에 들어간다. 봄비가 내려서 곡식이 윤택해진다는 곡우(穀雨)는 4월 20일이다.

여름에는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입하(立夏)와 소만(小滿), 햇보리를 먹을 수 있다는 망종(芒種)이 있다. 망종에는 본격적인 모내기가 시작된다. 낮이 가장 긴 하지(夏至)에는 복숭아가 익어 가고, 소서(小暑)부터는 본격적인 더위가 오고 장마철이 시작된다. 가장 더운 때인 대서(大暑)에는 감자를 수확하고 가을 배추를 심는다.

가을에는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처서(處暑)를 비롯해서 이슬이 내리는 백로(白露), 다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추분(秋分)이 있다. 첫 서리가 내리고 벼를 베기 시작하는 한로(寒露)는 10월 9일이고, 상강(霜降)으로 들어서면서부터는 겨울이 가까워져 철새가 날아 오고 첫 얼

음이 언다.

겨울에는 김장철이 됨을 알리는 입동(入冬), 난로 놓을 때인 소설(小雪)과 대설(大雪)이 있으며,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으며 동지팔죽을 쑤어 먹는 동지(冬至)와 일 년 중 기온이 제일 낮은 소한(小寒)과 대한(大寒)이 있다.

이야기해 봅시다.

생활과 날씨

1. 우리 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계절마다 자연이 달라집니다. 계절에 따라 자연의 모습이 달라지듯, 날씨에 따라 사람의 기분도 바뀐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날씨에 어떻습니까?

- 1) 조용히 비가 내리는 가을 아침
- 2) 눈이 소복소복 쌓이는 겨울 저녁

2. 같은 날씨라도 처지에 따라 느낌이 다르다고 합니다. 어떤 때 그런지 이야기해 봅시다.

- 1) 우산 장수와 쫓긴 장수 아들을 둔 부모 심정 (비가 올 때와 맑을 때)
- 2)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비를 맞을 때와 이별하고 혼자서 비를 맞을 때